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8권 제3호 (통권 96호) / 2023. 9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3호 (통권 96호), 2023년 9월호

발행일 2023년 9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 모형과 활용- 성경적 관점의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 박안나
Biblical Counseling Case Conceptualization Model and Application
- Focusing on Predisposing Element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 Anna Park
- 029 넷플릭스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에 투영된 상호교차적 권력관계 고찰 | 김태룡 / 안송범
A Study on Intersectional Power Relations Projected on
Christian Characters in Netflix Series | Taeryong Kim / Soongbeum Ahn
- 051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어떤 상담자인가?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동향 분석을 통하여- | 전요섭
What Kind of Counselor is A Military Chaplain?
-centering around the US. Military Chaplain's Role and Tendency Analysis | Joseph Jeon
- 069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 김성원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Theological Concepts of Young Children | Sung-Won Kim
- 091 기독교적 교수-학습 모형 탐색: D. I. Smith의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 | 유은희
A Study on a Model of Faith-Informed Teaching: Teaching as a
Christian Practice by D. I. Smith | Eun Hee Yoo
- 123 흐룬 판 프린스터러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고찰 | 최용준
A Research on the Christian Worldview of Groen van Prinsterer | Yong Joon (John) Choi
- 145 정신장애인의 고통 개념분석 | 최은정 / 이민경 / 조현미
Concept Analysis of Suffering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
Eun Joung Choi / Minkyung Lee / Hyun-Mee Cho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 모형과 활용 - 성경적 관점의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Biblical Counseling Case Conceptualization Model and Application - Focusing on Predisposing Element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박안나 (Anna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biblical predisposing elements and to implement these into a counseling case conceptualization model. The general predisposing elements from previous studies are two, the developmental,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roblem and the internal elements of the client but from biblical perspective the worldview and the motivation of the heart are more essential and fundamental. The worldview itself becomes a case conceptualization elements as biblical human views, values, family views, and property views. The motivation of the heart was summed up in seven verbs representing the 35 X-ray questions suggested by Powlison. This study used Sperry and Sperry(2012)'s frame to develop a biblical case conceptualization model, the two biblical elements, the worldview and the motivation of heart were added to the top in the predisposing elements of the case conceptualization frame. A counseling form including this case conceptualization model was proposed and explained with a virtual counseling cas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laid the foundation for concrete and visually enabling the conceptualization of biblical counseling cases, which have been described abstractly, and provided a practical form that can be used directly in the biblical counseling field.

Key words: Biblical Counseling, Case Conceptualization, Predisposing Elements, Motivation, Worldview

* 2023년 5월 12일 접수, 7월 17일 최종수정, 8월 29일 게재확정

** 헤세드 상담센터(Hessed Counseling Center) 실장,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annapark236@gmail.com

I. 서론

고통 가운데 있는 내담자를 잘 돕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와 그 원인을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 능력이 상담자에게 요구되는데, 사례개념화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인과 경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기반으로 상담 목표와 전략까지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상담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말한다(이윤주, 2016). 완성도 높은 사례개념화를 통해 도출된 상담 목표가 내담자에게 공유되면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신뢰하면서 상담에 협력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어 상담의 성과를 촉진하게 된다(이윤주, 2016 ; 주혜선, 2016). 이처럼 상담 성과의 요인이며 상담사의 전문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사례개념화가 강조되면서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도 기독교 상담의 특성이 반영된 사례개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전요섭, 2017). 박안나(2021)는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에 관한 연구에서 Sperry와 Sperry(2012)의 사례개념화 모형(그림 1)이 사례개념화 정의에 충실하면서도 영적인 관점을 담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논증하여 이 모형이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 작업에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영적인 관점이란 문제를 보는 성경적 관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관점의 세계관, ② 영육혼이 통합된 존재이나 그 중에서도 영이 가장 본질적임을 강조하는 인간관, 그리고 ③ 인간의 변화 원리인 성경적인 변화모델 등을 의미한다. 즉 이 사례개념화 모델을 활용하여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관, 변화모델 관점에서 상담 사례에 대한 진단과 목표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박안나, 2021).

Sperry와 Sperry(2012)의 사례개념화 모형은 생활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부적응적 패턴’이 호소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부적응적 패턴’이 모형 중심에 위치하고 이 중심을 가로와 세로로 교차하는 공식 2개로 구성된 구조로, 가로축은 부적응적 패턴의 경과를 보여주는 진단적 공식(Diagnostic Formulation)이며 세로축은 부적응적 패턴의 원인을 분석하는 임상적 공식(Clinical Formulation)이다. 진단적 공식은 내담자의 보고로 구성되는데 반해 임상적 공식은 상담자가 부적응적 패턴의 원인을 설명하는 ‘유발요인(Predisposition)’과 ‘유지요인(Perpetuants)’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사례개념화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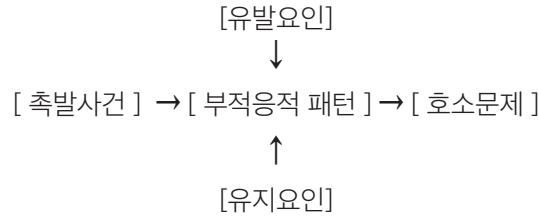


그림 1. 사례개념화 모형 (Sperry & Sperry, 2012)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개념이지만 사례개념화의 본질은 구조 자체보다 내용물인 ‘가설’이며 가설의 핵심은 진단적 공식, 곧 내담자의 부적응적 패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된 원인으로부터 진단과 처방이 나오며 이것이 상담 목표와 연결되어 내담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형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기 위해 상담자는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정립이 필요하고 그 이론을 근거로 상담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 나가야 한다.

성경적 상담의 상담 이론은 성경의 충분성에 기초하여 상담에서 성경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이는 내담자 문제의 유발요인과 유지요인 분석과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 상담 목표까지 사례개념화 작업 전체가 성경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례개념화와 그 요소를 성경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에 대한 논의는 필수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사례개념화의 핵심이 문제 원인 분석에 있다는 데 주목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접근해야하는지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를 밝혀 그림 1에서 제시된 사례개념화 모형, 특히 진단적 공식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유발요인’으로 촉진된 ‘부적응적 패턴’이 ‘유지요인’에 의해 지속되어 ‘호소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유발요인’을 내담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유발요인에 관한 문헌들을 통해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이어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유발요인을 고찰하여 ‘세계관’과 ‘마음의 동기’라는 독특한 유발요인 ‘요소’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은 문헌연구로 수행되며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관한 고찰 연구(2021, 박안나)에서 참고한 문헌과 이 후 발표된 최신 문헌을 살펴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성경적 상담은 ‘해석’이 사례개념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Whitman, 2021)을 참고하여 성경적 상담의 해석을

고찰한 문헌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사례개념화 요소를 포함한 사례개념화 모형과 양식을 제안하고 가상 사례를 적용해 볼 것이다.

상담연구는 학문적 가치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시되는 상담의 실제적인 발전을 가져온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성경적 상담 방법의 구체성에 대한 필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기에 본 연구가 성경적 관점의 ‘문제 원인’을 설명하고 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가시적인 사례개념화 도식은 성경적 상담 방법에 대한 실용적 주제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적 상담과 관련 교육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펴는 글

1. 유발요인

사례개념화는 내담자 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견해이며 그 견해의 초점은 내담자가 호소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설명에 있다(이윤주, 2016: 54 ; 이윤주, 2001: 88). Eells(1997)는 사례개념화를 ‘내담자의 심리적, 대인관계적, 행동적 문제의 유발요인 및 유지요인에 대한 핵심 가설’로 정의했는데 이 역시 사례개념화의 초점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례개념화의 기본 가정은 내담자의 문제에는 반드시 이유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곧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이명우, 2018:10 ; Powlison, 2003). 결국 사례개념화란 문제의 유발요인에 대한 ‘가능성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Sperry & Sperry, 2012: 25).

‘유발요인(Predisposition)’은 내담자의 반응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며, 그중 유발요인이 될 만한 단서를 선택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해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것은 상담자가 취한 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례개념화 요소 중에서도 유발요인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이는 유발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사례개념화의 수준을 좌우하여 예후에 대한 예측력의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Sperry & Sperry, 2012 ; 이윤주, 2016). 사례개념화 요소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유발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가족 상담 영역을 보면 고기홍(2005)은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가족구조, 의사소통, 역할, 위계, 경계, 규칙, 생활주기’의 7개 요인을 도출해 가족문제를 이 요인들로 설명하는 사례개념화 틀을 제시하였다. 문정화(2011)는 결혼초기 부부문제에 대한 통합적 가족치료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 연구를 통해 부부가 원가족 경험에 기인해 자신들의 부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온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부부갈등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체계론적 관점에서 부부

문제의 유발요인은 원가족 요인에, 유지요인은 부부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 정혜정(2018)은 정서중심적 부부치료(EFT: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의 임상적 사례개념화에서 내담자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되어 유지되고 있는지는 한국 부부만의 문화적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 문화 고유의 토착 정서를 기반으로 한 관계 정서와 정서 표현, 부부 애착 등에 대한 탐색 원리를 지침으로 제공했다.

놀이치료 영역에서도 사례개념화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정희(2015)는 아동의 장애 범주에 따라 유발요인 소인이 달라 사례개념화 요소의 탐색 정도가 달라짐을 보고하였는데, 발달장애는 신체, 언어, 발달평가 및 놀이 활동에서 관찰된 발달적 구성요소가 사례개념화의 주 요소가 되며, 행동장애는 부모 및 양육자 보고와 유전 및 신경 화학적 정보에 보다 중점을 반면 정서장애는 치료자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아동의 관점에서 본 관계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탐색 요소로 나타났다. 발달단계에 따라서도 유아기는 기질이나 부모자녀관계평가가 주요하나 아동전기는 유아기에 비해 아동보고에 의한 정보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장애유형별, 발달별 문제의 유발요인 소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진로상담 영역에서도 사례개념화 연구가 활발하였다. 김민선, 김민지, 이소연(2018)은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에 관한 질적연구를 통해 대학생 진로문제를 다루는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개인배경 및 적응수준’, ‘진로 관련 당면 문제’, ‘가족배경’,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 ‘진로상담 전략’ 총 5개 영역을 사례개념화 요소로 탐색한다고 보았는데, 특히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한 요소 중 ‘가족배경’은 이윤주(2001)의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 즉 포괄적인 일반 상담의 가족 항목과는 달리 가족의 직업, 경제적 상황, 부모의 기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해 진로상담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의 경우 상담자들이 진로에 관한 고민을 호소문제로 갖고 있는 내담자라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개입을 위해 내담자의 정서나 성격문제를 중요하게 여겨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에 일반적 요소와 진로상담만의 독특한 요소가 함께 있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지은, 이제경(2018)도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의 내용 타당성 연구를 통해 비슷한 결과를 보여 진로문제의 원인 탐색에 ‘원가족의 진로 관련 이력, 생애역할 인식, 진로신화 및 편견’ 등 진로상담만의 차별적 요소들이 더욱 다양해지는 것뿐 아니라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주혜선(2018)은 트라우마 사례개념화 양식(Trauma Case Formulation Framework, TCFF)을 개발하고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트라우마 사례개념화는 트라우마 사건 특성, 트라우마 관련 심리적 증상, 증상을 유지시키는 심리적 기제, 트라우마 치료목표, 트라우마 치료전략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트라우마의 경우 유발요인이 트라우마 경험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유지요인 즉, 트라우마 증상을 유지하는 요인이 ‘원인’으로 설명되며 연구결과 트라우마 증상을 유지하

는 심리적 기제로서 4개의 요소(트라우마 관련 심리적 증상에 트라우마 대한 역기능적 해석과 평가, 안정화 능력부족, 트라우마 외현기억과 암묵기억의 분리, 자신·타인·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체계)가 사례개념화 양식에 구조적으로 포함되었다. 정희성(2016)은 여성주의 목회상담 사례개념화에 대해 논하였는데, 여성주의 목회상담의 사례개념화에서 내담자 이해는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서 내담자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과 상호의존관계에 있어 내담자의 성적, 인종적, 계층적 정체성과 권력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내담자의 기독교적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내담자 문제 요인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정희성, 2016: 379, 380). 하신혜·김갑숙(2017)은 미술치료가 일반상담과는 다른 고유한 문제 해석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미술치료 사례개념화에 관한 두 번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미술치료가 유발요인을 탐색하는 영역이 내담자가 선택하는 매체 요인, 치료사 요인, 미술 평가 세 가지로 나뉘며 이를 체계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구조적 틀로서 사례개념화 양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담이론마다 인간의 문제 원인을 분석하는 전제와 관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비교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흔히 정신역동적 입장은 무의식의 갈등을 유발요인으로 보는 사례개념화를 하며, 인지치료 입장은 역기능적 사고와 신념을 원인으로, 행동치료는 환경과의 관련성이나 개인의 학습, 자극과 반응에 관한 영향을 원인으로 보는데 이러한 각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정희성, 2016). 김재환(2022)은 약물중독상담 사례개념화를 위해 인지·행동적 관점, 신경생리관점, 대상관계관점에서 약물중독의 유발요인과 병인론을 검토하고 단일 이론으로 접근한 사례개념화의 한계를 지적하여 이들을 절충한 통합적 사례개념화를 제안하였다. 즉 다양한 수준의 약물중독 문제의 사례개념화에서 인지·행동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증상이 심각할수록 신경 생리적인 접근과 대상 관계적 접근을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윤미(2019)는 고등학교 남학생의 단일 사례를 대상관계, 인지치료, 실존역동적 관점 세 가지 이론에 적용하여 사례개념화를 시도해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상담자들이 달리 내담자 문제를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박정·이은경(2022)은 범이론적인 사례개념 요소들과 게슈탈트 상담이론을 통합한 게슈탈트 상담 사례개념화의 모델을 개념도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는 내담자, 상담자, 그리고 내담자-상담자 관계를 축으로 하면서 게슈탈트 심리상담의 4단계 절차인 주제의 발견, 배경탐색, 지금-여기의 활용, 대화적 관계를 적용한 것이다. 이 개념도의 핵심 역시 내담자의 크고 작은 행동 동기를 완결되지 못한 게슈탈트를 발견하기 위해 탐색하며 특히 다른 이론과 달리 현재 지금 여기의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라는 전경에서 출발해 배경으로 탐색해간다는 게슈탈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들은 상담자가 취한 상담이론이나 상담 주제에 따라 사용된 명칭

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윤주(2001)의 연구에서 도출된 사례개념화 요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윤주(2001)의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은 총 8개 영역 27개 요소이며 이 중에서 문제의 유발요인과 관련된 것은 다음 표 1과 같이 4개 영역 및 14개 요소이다.

표 1. 유발요인과 관련된 사례개념화 요소

영역	사례개념화 요소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발달적 역사, 문제의 기원, 과거 문제력 및 당시 환경상황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내적 요인	자아개념, 통찰 내용과 수준, 인지적 스타일 및 특징, 정서적 스타일 및 특징, 신체·생리·행동적 특징, 원함(wants)
문제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	문제와 관련된 현재 생활 여건,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황적 요인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대인관계 양상, 대인관계 문제

앞에서 살펴본 사례개념화 연구들은 유발요인의 명칭이나 그 하위 요소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 4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4개 영역의 하위 요소들이 각 이론이나 주제에 따라 특화되거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4개의 영역 중에서도 ‘문제의 발달적·역사적 배경’과 ‘내담자의 내적 요인’ 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발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상황적 요인’이나 ‘대인관계’는 내담자의 부적응적 패턴을 강화하는 환경 또는 보호하는 자원으로서 탐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담자가 사례개념화시 개념적으로 유발요인의 요소는 ‘문제의 발달적·역사적 배경’과 ‘내담자의 내적 요인’으로, ‘문제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 ‘대인관계 특성’은 유지요인으로 보고 그 내용을 탐색하는 기반이 된다. 물론 모든 사례에 꼭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으나 상담자가 상담 초반 사례개념화를 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단순한 질문보다는 ‘문제의 발달적, 역사적 배경이 어떠한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내담자의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난 상황이나 대인관계 특성은 어떠한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과 생각을 통해 탐색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성경적 관점의 유발요인

성경적 상담은 상담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며 사례개념화의 유발요인의 분석 작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본 유발요인은 무엇일까?

1) 세계관

사례개념화 모형에서 보았듯이 내담자를 상담실에 오게 한 문제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부적응적 패턴이 있으며 그 반응 패턴은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일정한 개념과 신념에 따라 반복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반응 패턴 그 이면에는 특정 개념이나 신념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한 사람이 세계와 인간을 대하는 신념체계인 ‘세계관’ 개념과 연결된다. 세계관은 세상과 삶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전제를 의미하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세계관은 일상에서 감정이나 행동과 같은 태도로 표현되고 삶에서 패턴을 이루어 때로 문제 증상이 되기도 한다(박윤정, 2012 ; 홍경자, 박병준, 2022). 따라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의 유발요인 분석에서 내담자의 고유한 세계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며, 세계관에 대한 통찰이 있을 때 내담자는 자기 문제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홍경자·박병준, 2022).

성경은 바로 이 세계관을 유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세계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주관적인 세계관을 뛰어 넘는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김준수, 2016) 그 기준과 진리가 되는 기독교 세계관 또한 계시하고 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근간으로 한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이 선한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고귀한 존재라는 것으로 시작하여,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회복의 길이 열린, 하나님이 펼치는 구원 사역 그 서사와 과정 가운데 인간과 그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재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문제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진리인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참 해석이며 참 해결로 가는 길이 된다. 세계관은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본 틀이기에 내담자 문제를 인간이 놓인 세계를 설명하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내담자 문제 분석의 시작인 것이다.

Powlison(2003)은 인간의 어떤 반응도 -그것이 문제 반응이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반응이든-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없다고 말하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인간의 존재와 내담자 문제를 연결했으며 같은 맥락에서 최금순(2018)은 내담자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적인 시각 아래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볼 때 확인할 수 있기에 내담자가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내담자의 문제를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른 성경의 주제, 약속, 명령에서 출발하여 어디에서 어긋났는지 살펴보는 것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문제가 있다’ 또는 ‘비정상이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벗어난 상태에 놓인 일이며(안경승, 2007: 145),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이 놓여져 있는 구속

사 관점의 과정과 연결하여 보아야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단지 어린 시절에 주어진 외부 자극이나 내면의 왜곡된 개념으로부터 형성된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 않으며 그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김준수, 2016). 물론 ‘문제의 발달적·역사적 배경’이나 ‘내담자의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구원 계획에서 벗어난 인간의 죄 된 반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내담자 문제의 유발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과 인간관으로 내담자의 문제와 반응을 비추보는 작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내담자의 가치관이나 가정관, 재정관, 이성관, 양육관, 교육관 등이 어떠한 세계관과 인간관을 기반으로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의 발달적·역사적 배경’과 ‘내담자의 내적 요인’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호소 문제로까지 연결되었는지 인과적 논리로 가설을 세워가야 한다.

2) 마음의 동기

성경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구원의 계획에서 벗어난 문제 패턴이 인간의 ‘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히는,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 속성을 강조하는 인간관을 포함한다(Powlison, 2003 ; 김준, 2021). 더 나아가 성경은 마음의 핵심을 생각과 감정의 차원보다 더 깊은 곳에 위치한 ‘동기’에 있음을 강조하여 마음의 메커니즘이 동기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따라서 성경적 상담에서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 그 자체보다 내담자의 마음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으며 마음에서 작동하는 실제적인 동기와 욕구의 내용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속성을 가진 ‘마음의 동기’를 통해 내담자 문제의 유발요인을 설명한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마음의 동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능동적인 속성이 있어 왜곡된 핵심신념이 형성되고 이 신념에서 즉흥적인 사고로, 사고에서 감정으로 이어져 결국 문제 반응을 유발한다고 보는 원리이다(Powlison, 2003 ; 김준, 2021: 85).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문제 원인의 핵심은 인간 마음의 동기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일반 심리학에서 문제 원인으로 다루는 환경이나 발달, 경험, 생물학적 원인 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원인이 되어 문제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죄를 품은 인간의 마음과 그 핵심인 동기로부터 나온 반응이 병리적 증상을 가져온다(Welch, 2003: 16-17 ; 안경승, 2007 재인용). 그리고 앞에서 세계관에 대하여 살펴보았듯이 동기는 하나님을 빼고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Powlison, 2003). 종합하면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담으로서 성경적 상담은 반드시 ①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②인간 마음의 동기를 보는 관점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내담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하며(Powlison, 2003) 이는 유발요인의 요소가 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례개념화 모형에 적용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앞에서 유발요인의 요소로 ‘문제의 발달적·역사적 배경’과 ‘내담자의 내적 요인’을, 유지요인의 요소로 ‘문제와 관련된 상황적 요인’과 ‘대인관계 특성’으로 본 것과 성경적 관점의 유발요인 요소인 ‘세계관 및 동기’를 함께 표기하여 개념화 및 도식화를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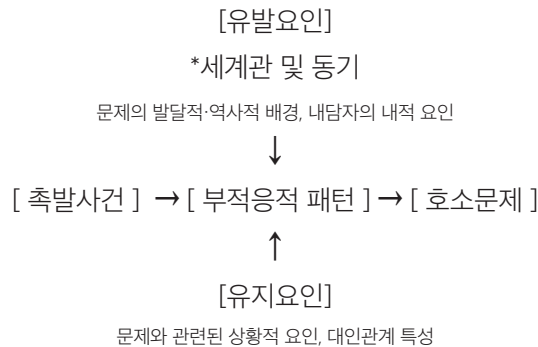


그림 2. 요인관련 요소를 표기한 사례개념화 모형

특히 ‘세계관’과 ‘동기’ 이 두 가지는 영적 존재인 사람의 마음 안에 놓인 전제이며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형성된 생각은 발달하며 역사적 배경을 갖게 되고 내담자의 내적 도식과 같은 요인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유발요인의 뿌리가 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유발요인의 상단 또는 우선 배치하는 것이 사례개념화 도식에 적합하다. 성경은 심리학이 말하는 문제 원인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참된 원인을 지적하고 있기에 사례개념화에 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3. Powlison의 X-Ray 질문을 사례개념화 요소로 활용

성경적 관점의 유발요인의 한 축인 세계관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간관이나 가치관, 이성관, 가정관, 양육관, 재정관, 교육관 등 흔히 인생관이라 말하는 모든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사례개념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축인 마음의 동기는 어떻게 사례개념화 요소로 표현할 수 있을까? Powlison은 ‘어떤 거짓과 어떤 욕망이 이 세상의 죄악 된 패턴을 통하여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Powlison, 2013). 즉 ‘이 세상의 죄악 된 패턴’이 사례개념화에서 ‘내담자의 문제 반응 패턴’에 해당한다. Powlison은 이 패턴을 ‘쉽게 짜증내는 것, 이기

심, 절망감, 현실 도피, 자기 의, 자기 연민, 아무것도 못하는 두려움, 불평, 불만 등'으로 예를 보이고 '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즉, 이러한 패턴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떠한 거짓이 있고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는 성경에서 표현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동사'를 활용한 질문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Powlison, 2013). 그 동사는 사랑하다(love), 신뢰하다(trust), 두려워하다(fear), 바라다(hope), 추구하다(seek), 복종하다(obey), 피하다(take refuge)와 같은 것이며 총 35개의 '하나님 관계 동사'로부터 35개의 질문이 파생되었다(Powlison, 2013). Powlison이 'X-ray 질문들'이라고 이름붙인 이 질문들은 행동과 감정 아래에 있는 마음 속 숨은 동기를 드러낸다(Powlison, 2003: 196). 다음 표 2는 35개의 동사들과 질문들을 Powlison이 예를 들어 설명한 동사 7개를 대표 동사로 보고 동사에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질문 앞 번호는 Powlison이 사용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표 2. 마음을 드러내는 X-ray 질문들 (Powlison, 2012 ; Powlison, 2013)

대표 동사	하나님관계 동사	해당 X-ray 질문들
두려워하다 (fear)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5.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당신이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라다 (hope)	바라다 소망하다 하고싶다 필요하다 부유하게 하다 갖고싶다 바치다	2.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욕망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바라는가? 4. 당신은 당신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6.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 기분인가? 7. 당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무엇인가? 17. 무엇이 당신을 부유하고, 안전하고, 번성하는 것 같이 느끼게 하는가? 23.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부터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가? 32. 당신은 어떻게 사단의 노예 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다 (love)	사랑하다 중요하다 의미있다 행복하다 당연하다 생각하다 이야기하다 시간을쓰다 상상하다 자신을위하다	1.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미워하는가? 12. 누구의 행위가 중요한가? 15. 무엇이 당신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18. 무엇이 당신에게 최고의 기쁨, 행복을 주는가?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이며 비참한 것인가? 21. 당신은 무엇을 당신의 권리로 보는가? 25. 당신은 무엇을 가장 자주 생각하는가? 26. 당신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27.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28. 당신의 독특한 공상이나 상상은 무엇인가? 31. 당신은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가?

복종하다 (obey)	기쁘게 하다 복종하다 따라하다 기준이있다 편들다 따르다 송배하다 정의하다	13. 당신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가? 9.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 당신의 행성은 어떤 태양 주변에서 공전하는가? 14. 누가 당신의 롤 모델인가? 16. 당신은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하는가? 19. 누가 정권을 잡는 것이 모든 일을 더 좋게 만드는가? 20. 누구의 승리와 성공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30. 당신의 우상들과 거짓된 신들은 무엇인가? 35.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는가?
추구하다 (seek)	목표하다 계획하다 기도하다 후회하다	3.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고 목표로 하며, 무엇을 쫓아가는가? 8. 당신이 성취하기 위해 만든 계획, 전략과 의도는 무엇인가? 24.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33. 당신이 마음속으로 “만약~ 이기만 했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피하다 (take refuge)	안전하다 도피하다	10. 당신은 어디에서 피난처, 안전, 위안, 도피, 보호를 찾는가? 22. 당신은 언제 중압감을 느끼며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는가? 무엇을 통해 도피하는가?
신뢰하다 (trust)	신뢰하다 믿다 의롭다	11. 당신은 무엇 혹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29. 당신의 삶을 해석하고 당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작동하는 신념은 무엇인가? 34. 당신에게 본능적으로 올바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관계 동사’들을 응용한 내용이나 35개의 질문들은 상담 대화에서 성경적 관점 사례개념화를 위한 유발요인 탐색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Powlison이 설명한 것과 같이 이 동사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내담자의 문제유형을 분노, 두려움, 회피로 나누었는데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감정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대표되는 동기의 표현이며 동기는 의식적으로 계산하는 것부터 맹목적인 것, 강박적인 것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 활성화 동사들이 기본이 되어 동기를 탐색하게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밝혀준다고 하였다(Powlison, 2003 ; Powlison, 2013). 더 나아가 그는 인간은 예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성경에서 동기에 대한 질문은 주권에 관한 질문이라고 규정해 동기의 본질은 ‘신’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즉 동기는 ‘누가 또는 무엇이 내 행동을 지배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신인가?’의 문제이며 결국 동기를 확인하는 X-ray질문은 사람 마음에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신’을 분별하게 해준다는 것이다(Powlison, 2013).

따라서 유발원인으로서 동기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 동기인가?”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닌 “이러한 사고, 감정 또는 행동 패턴의 주인은 누구인가?”이며 성경적 관점의 상담자가 유발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이 개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내담자를 심리학적 내면의 여정으로 몰아넣거나 죄의 문제에 가두어 놓고자 함이 아니다. 이 질문과 관점은 내담자를 어둠에서 나오게 해 그리스도의 빛으로 초대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Powlison, 2013). 이 동사들에 합당한 대상, 즉 사랑할 대상(love), 신뢰할 대상(trust),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fear), 소망의 대상(hope), 추구해야 할 대상(seek), 순종해야 할 대상(obey), 참으로 우리의 피난처인 대상(take refuge)인 하나님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며 상담자는 이 목적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Powlison, 2013). 이제 동기에 대한 요소까지 구체화되었으니 이를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 모형에 반영해보자. 동기 요소를 밝히는 7개의 대표 동사를 ‘~하다, 구하다’라는 서술을 제외한 명사형으로 축약하고 위 표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두려움/소망/사랑/복종/추구/도움/신뢰’라는 표현으로 그림 3에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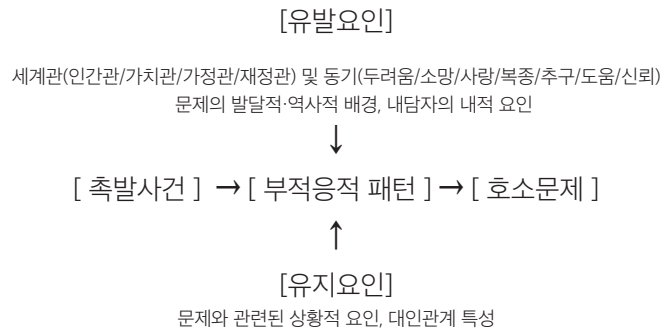


그림 3. 성경적 관점의 사례개념화 모형

4. 성경적 관점의 사례개념화 모형과 양식의 활용

1) 성경적 관점의 사례개념화 모형과 양식

유정이·두경희·이아라(2014)는 상담기록의 필수 목록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상담의 시작부터 종결에 이르는 과정기록의 효용성을 상담과정기록은 ‘잘못된 상담’을 방지하는 효과에 두고 여기에서 잘못된 상담이란 목표와 과정이 일치하지 않은 상담, 또는 무계획적인 상담이라고 하며 상담 목표의 도출뿐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명시되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상담과정

이 양식을 사용함에 있어 특히 사례개념화 작업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 사례개념화는 가설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되는 정보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여 수정하거나 정교하게 하여 점차 완성되어 가는 지속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이윤주, 2016: 55). 사례개념화는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상담 초기를 몇 회기로 보느냐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나 1회기 후 사례개념화 작업으로 가설을 세우고 2회기, 3회기 후에 가설을 검토하며 수정하거나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Whitman, 2021). 둘째, 사례개념화의 목적은 상담자가 세운 가설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내담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여 문제해결을 통해 내담자를 돕는 데 있다(이윤주, 2016: 54).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 작업에 있어서는 이 목적이 더욱 중요하다. 기독교 상담이 다른 상담과 구별되는 본질적 요소는 상담자의 자세로, 성경적 관점의 상담자는 내담자를 계약 관계를 맺은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에 머물거나 미묘한 우월적 관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안경승, 2016).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에서 내담자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잘 배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고 또 스스로 돌아보아 가설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내담자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내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확인하여 틀과 이론에 내담자에 맞춰가려는 것이 있다면 멈추어 다시 방향을 내담자를 돕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성경적 관점의 사례개념화는 일종의 ‘해석’이다(Whitman, 2021).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내담자가 어떻게 호소문제가 되었는가를 탐색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며 이는 상담자의 분별을 요구한다. 한 사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사례개념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따라서 상담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을 채택하고 접목해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안경승, 2016). 정확한 해석에 도달한다는 것은 상담자가 ‘깨달음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상담자들은 이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작업을 해야 하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별이 필요한 일, 상담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기반이 되는 일이다(Whitman, 2021).

2) 성경적 관점의 사례개념화 모형과 양식의 활용 예

지금까지 논의한 성경적 관점의 사례개념화 모형의 활용의 예를 위해 간단한 가상 사례를 통해 적용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단순히 각색한 가상 사례를 3단계 즉 ① 진단적 공식화, ② 성경적 관점의 유발요인을 포함한 임상적 공식화, ③ 상담 목표 설정의 순서로 적용해 본 것이다.

① 진단적 공식화 : 내담자 H는 45세 미혼 여성이며 기독교인으로 일상에서 숨이 멎는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해 상담 센터를 내방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악기를 전공한 H는 교회의 신앙 훈련 참여와 봉사 활동을 위해 또 전공 특성상 풀타임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지난 20년 이상 파트타임 연주자로서 근근이 생활해 왔다. 최근 내담자는 채용시험에 낙방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었고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급기야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공황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상담자는 내담자 문제의 사례개념화를 위해 내담자가 보고한 최근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불안하게 여기게 된 계기와(촉발사건) 그 불안 이면의 생각을(부적응적 반응패턴) 탐색해 진단적 공식화를 시도하였다(그림 5).

촉발사건	부적응적 반응패턴	호소문제
[최근 연속 채용 낙방] → [‘나는 왜 이리 부족한가’] → [불안, 숨이 멎는 것 같은 공황증상]		

그림 5. 사례적용 예 : 진단적 공식화

② 성경적 관점의 유발요인을 포함한 임상적 공식화 : 상담자는 H의 반응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내담자의 내적 요인’을 탐색한 결과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25년 전 대입 실기 시험의 실패 후 태동하였으며 그 후 오디션이나 채용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H가 자신의 실패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영향을 주는 ‘상황’과 ‘관계’를 유지요인으로 보았을 때, H는 자신의 실패를 섬김의 부족으로 질책하고 과중한 봉사를 끊임없이 요구한 A목사의 말을 그대로 흡수하고 그 요구대로 살고 있었다.

상담자는 이러한 요인들의 전제가 되는 세계관을 H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잘못된 신관(神觀)이 자리 잡고 있어 하나님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가설을 세운다. 입시 때부터 내담자는 하나님을 자신을 낙방시킨 주체로 여겨왔는데 이후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목회자마저 질책했기에 결국 자신이 패배자이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 것이다. 하나님은 피할 안전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자극이 있을 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그림 6).

유발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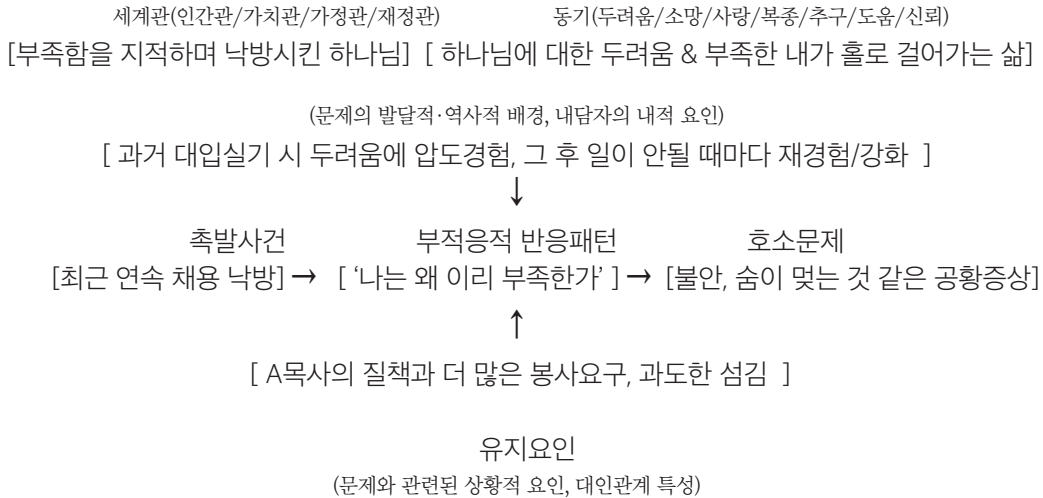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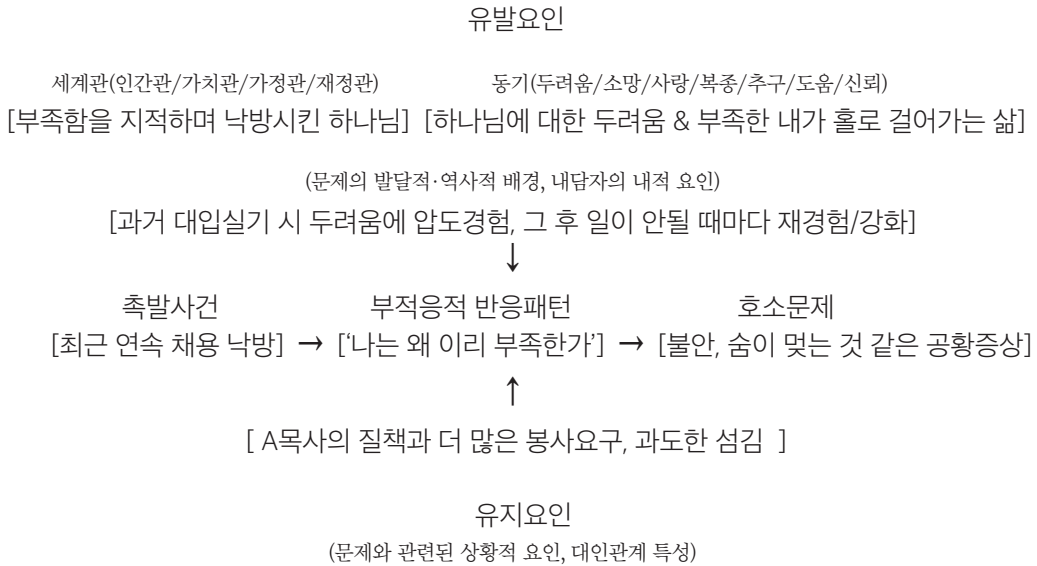


그림 6. 사례적용 예 : 성경적 관점의 임상적 공식화

③ 상담 목표 설정 : 상담목표는 유발요인과 유지요인 또는 호소 문제 그 자체에서 상담자가 제안하여 내담자와 합의할 수 있기에 상담자는 하나님과 관계 또 내담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를 정해 나간다. 상담자는 공황 증상 시 내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훈련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단순히 두려움의 감정이 강화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그 두려움의 근본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내담자가 이해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제안한다. 이 목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경적 관점의 사례개념화가 내담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내담자가 동의하게 되면 동맹은 강화된다. 내담자와 합의가 되면 상황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그 하나님이 H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관점에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해석하는 상담 목표를 더 할 수 있다(그림 7). 목표 달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는 내담자와 합의하여 정하여 이 양식에 덧붙일 수도 있다.

내담자 : H (45 , 여)

사례개념화



상담목표

1. 공황상황 대처기술 습득과 적용
2.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미지 수정
3.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재해석

그림 7.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 모형을 적용한 상담양식

물론 사례개념화와 상담 목표 설정은 사례마다 또 상담자마다 다르며 완벽한 공식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례개념화 작업은 단회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담이 진행되면서 정교해지며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협력하게 된다. 이때 상담자가 성경적 관점을 근거로 이러한 모형과 양식을 활용한다면 상담 초기는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상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되고 상담 목표를 세운 후에는 이 양식으로 인해 더욱 더 목표중심적인 상담이 되는데 매우 용이할 것이다.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보다 실제적인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를 위해 사례개념화의 핵심인 유발요인의 요소를 성경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세계관과 마음의 동기라는 요소를 사례개념화 모형에 적용하였다. 유발요인 분석에서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성경이 전제하는 세계관과 인간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이는 내담자를 고통에 이르게 한 반응이 결국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기에 상담에서 유발요인의 탐색은 세계관과 인간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점을 논증하였다. 특히 마음의 동기를 탐색하기 위해 Powlison이 제안한 마음을 꿰뚫은 X-ray 질문 35개를 검토하여 대표 동사로 범주화하여 사례개념화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Sperry와 Sperry(2012)의 사례개념화 모형에 세계관과 동기 및 그 구체적인 요소를 표기한 도식을 제안하고 간단한 가상 사례를 통해 양식 활용을 논의하였다. 이 사례개념화 모형이 포함된 상담 양식은 사례개념화를 정교화해가는 과정은 물론 도출된 상담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사례개념화는 결국 사례에 대한 상담자의 인지적, 영적 판단이기에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는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을 평가하는 과정과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에 있어 상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례개념화의 핵심인 유발요인을 성경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요소인 세계관과 마음의 동기를 사례개념화 모형에 적용하여 그동안 추상적으로 설명되었던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를 모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가능하게 한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성경적 상담 현장에서 직접 사용가능한 실용적인 양식을 제안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참 진리인 성경의 기준으로 문제의 유발요인을 분석한 사례개념화로부터 도출된 상담 목표와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내담자를 진정으로 돕는데 용이하고 그 활용이 매우 실제적이어서 성경적 상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관련 연구가 실제 사례의 적용 또는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의 요소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형태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기홍 (2005). 가족문제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3(1), 3-15.
- 금명자 (2021). **상담 사례개념화 연습하기**. 서울: 학지사.
- 김민선·김민지·이소연 (2018). 대학생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 도출에 관한 질적연구. **진로교육연구**, 31(1), 103-130.
- 김재환 (2022). 약물중독상담 통합적 이론 사례개념화 모델에 관한 고찰. **인문사회** 21, 13(6), 969-982.
- 김준 (2021). **성경적 상담과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 김준수 (2016). Adler의 생활양식 분석과 기독교적 평가. **복음과 상담**, 24, 73-99.
- 문정화 (2011). **결혼초기 부부문제에 대한 통합적 가족치료 사례개념화 모형 개발 연구 :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MRI의 의사소통모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박안나 (2021). 성경적 상담의 사례개념화에 대한 고찰: Sperry의 모형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9(2), 109-136.
- 박윤정 (2012). 기독교 상담자와 기독교 세계관 정립의 중요성. **복음과 상담**, 19, 157-187.
- 박정·이은경 (2022). 상담사례개념도를 활용한 계슈탈트 상담 사례개념화: 내담자-상담자 관계와 4단계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4(1), 123-143.
- 성혜숙·김희정 (2012). 학교상담 사례 개념화 요소 목록 개발. **교원교육**, 28(4), 101-122.
- 안경승 (2007). 기독교상담과 병리에 대한 이해. **복음과 상담**, 9, 141-167.
- 안경승 (2016). 기독교 상담과정의 독특성. **복음과 상담**, 24(2), 221-253.
- 유정아·두정희·이아라 (2014). 상담기록의 필수 목록 개발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인식에 대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연구**, 15(5), 1695-1715.
- 이명우·박정민·이문희·임영선 (2005). 사례개념화 교육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77-296.
- 이명우 (2018).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의 실제**. 서울: 학지사.
- 이지은·이제경 (2018). 진로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상담학연구**, 19(1), 243-268.
- 이윤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이윤주 (2016). 효율적인 상담사례개념화를 위한 상담사례개념도의 활용.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1(2), 53-72.
- 이장호·금명자 (2020). **상담연습 교본** 제4판. 서울: 법문사.
- 이화실·이혜은 (2016). 상담성과 모니터링을 적용한 상담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1(2), 1-23.

- 장유진 (2021). 숙련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및 상담개입전략 수립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7(1), 459-482.
- 전요섭 (2017). 기독교상담 특성이 반영된 사례개념화. **신학과 실천**, 53, 255-280.
- 정혜정 (2018). 정서중심적 부부치료(EFT)의 임상적 사례개념화를 위한 문화적 요인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6(4), 591-625.
- 전정미 (2015). 장애범주 및 발달단계에 따른 놀이치료의 사례개념화 구성요소.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8(4).
- 정희성 (2016). 여성주의 목회상담을 위한 사례개념화/평가 모델. **목회와 상담**, 26, 361-392.
- 주혜선 (2016). 트라우마 사례개념화 양식(TCFF)의 개발: 사례개념화 기반의 트라우마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89-125.
- 최금순 (2018). 상담의 초기탐색내용에 관한 연구. **ACTS 신학저널**, 36, 397-435.
- 최윤미 (2019). 상담 이론에 기반한 상담사례의 사례개념화 - 대상관계이론, 인지치료이론, 실존역동적 접근 방식의 사례개념화.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4(2), 27-41.
- 하신혜·김갑숙 (2017). 미술치료 사례개념화에 대한 치료사의 인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24(4), 949-967.
- 하신혜·김갑숙 (2020). 미술치료사의 사례개념화 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27(2), 283-305.
- 홍경자·박병준 (2022). 세계관 해석과 철학상담. **현대유럽철학연구**, 65, 91-120.
- Eells, T. D. (1997).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Lambert, H. (2012).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Wheaton: Crossway.
- Scott, S. & Lambert, H. (2012). *Counseling the Hard Cases*. Nashville: B&H Academic.
- Powlison, D. (1998). X-ray Questions: Drawing Out the Whys and Wherefores of Human Behavio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8(1), 2-8.
- Powlison, D. (2003). *Seeing with New Eyes: Counseling and the Human Condition Through the Lens of Scripture*. New Jersey: P & R Publishing.
- Powlison, D. (2013). Revisiting Idols of the Heart and Vanity Fai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7(3), 37-68.
- Powlison, D. (2019). *Safe & Sound: Standing Firm in Spiritual Battles*. Greensboro: New Growth Press.
- Sperry, L. & Sperry, J. (2012). *Case Conceptualization: Mastering this Competency with Ease and Confidence*. FL: Routledge.
- Timothy K. (2010). *Counterfeit Gods: The Empty Promises of Money, Sex, and Power, and the Only Hope that Matters*. London: Penguin Books.

Welch, E. T. (1998). *Blame It on the Brain?* New Jersey: P & R Publishing.

Whitman, L. (2021). *A Biblical Counseling Process*.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 모형과 활용 - 성경적 관점의 유발요인을 중심으로

Biblical Counseling Case Conceptualization Model and Application - Focusing on Predisposing Element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박 안 나(헤세드 상담센터)

논문초록

본 연구는 사례개념화의 핵심인 유발요인의 요소를 성경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도출된 사례개념화 요소를 사례개념화 모형으로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 유발요인 요소는 문제의 발달적·역사적 배경과 내담자의 내적 요인이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세계관과 마음의 동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세계관은 인간관, 가치관, 가정관, 재물관 등과 함께 사례개념화 요소가 되며, 마음의 동기는 Powlison이 제안한 마음을 꿰뚫은 X-ray 질문 35개를 검토하여 7개의 대표 동사로 범주화하여 요소로 정하였다. 도출된 사례개념화 요소를 Sperry와 Sperry(2012)의 사례개념화 모형에서 유발요인의 상단에 추가하였고 이 모형이 포함된 상담 양식을 제안한 후 가상 사례로 활용을 적용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추상적으로 설명되었던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를 모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가능하게 한 기반을 마련하고 성경적 상담 현장에서 직접 사용가능한 실용적인 양식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성경적 상담, 사례개념화, 유발요인, 동기, 세계관

넷플릭스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에 투영된 상호교차적 권력관계 고찰*

A Study on Intersectional Power Relations Projected on Christian Characters in Netflix Series

김태룡 (Taeryong Kim)**

안승범 (Soongbeum Ah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ower relationships surrounding Christian identity by analyzing Christian characters in Netflix movies and drama series made in Korea from an intersectional point of view. This is based on the need to closely examine the realistic evaluation of Christians and Korean churches from the general public opinion.

For this purpose, based on Raymond Williams' concept of 'structure of feelings', it was premised that culture and art reflect the emotions and values of contemporary members of society. In addition, the concept of 'intersectionality', which explains that the composition of social power is formed on the overlap of various identity factors, was used as the main analysis methodology. From this point of view, 8 characters who appeared in 7 dramas or movies released through Netflix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hristian characters in Netflix content appeared to overlap with issues such as social and economic class, gender, and generation gap. And they were portrayed as causing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in various ways in social relationships. This is judged to reflect the public opinion on Christianity.

Key words: Netflix, Korean churches, Christian Character, Intersectionality, Christian cultural content

* 2023년 8월 11일 접수, 9월 1일 최종수정, 9월 4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1-KDA-1250004)

** 경희대학교(Kyung Hee University)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contentist@khu.ac.kr

*** 경희대학교(Kyung Hee University)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instory@khu.ac.kr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만든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를 상호교차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심층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일차적으로 이들 작품은 한국 대중의 인식 속에 자리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의 면면을 해명하는 과정은 그들의 말과 행위, 상징적 위치에 ‘특권/차별’의 계기들이 복합적으로 기입되어 있다는 가설에 따른다.

오늘날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개념은 사회와 문화와 정치, 경제 등의 영역에서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비판적 성찰을 도모하기 위한 실천적 용어가 되고 있다.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직업 등 다양한 정체성의 요소들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는 운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부당한 관습을 타파하고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정치적 올바름’은 인정 투쟁의 과정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유명 인사의 도덕 문제, 사회복지 제도나 소수자 관련 정책 문제, 젠더 이슈 관련 문제를 논할 때 차용된 경우가 대표적이다(이종일, 2019: 47-52).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쟁을 광범위하고 민첩하게 가시화시키는 계기 중에는 글로벌 문화콘텐츠들이 있다. 특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애니메이션, 글로벌 OTT 드라마 시리즈에서 페미니즘, 블랙워싱, 동성애 코드 등이 논란이 된 사례는 매우 흔하다. 대표적인 예로 2023년 디즈니가 제작한 실사 뮤지컬 영화 <인어공주>를 둘러싼 전 세계적 이슈를 들 수 있겠다(SBS, 2023).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라 보았다(Francis Fukuyama, 2018/2020: 193). 정체성 정치라는 용어는 1977년 컴바히강 공동체라는 호전적 흑인 레즈비언 단체에 의해 정치 담론으로 도입되었다(Asad Haider, 2018/2021: 27). 김창남은 정체성 정치를 젠더, 인종, 세대, 종교, 지역, 성적 지향 등 특정한 정체성 요소를 공유하는 집단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갈등과 운동으로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정체성 정치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까지 중요한 사회적 의제였던 이념 정치의 자리를 대체하였다고 말한다(김창남, 2021: 308). 김지연은 카림의 논의를 빌려 2020년대 한국사회 내 정체성 정치의 현황에 대해 논한다. 그는 우리 시대의 조류를 ‘3세대 정체성’으로 명명하며 국가, 성별, 인종, 계급, 취향 등의 다양한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혼종적이고 고유한 ‘나’로서의 정체성을 핵심으로 여긴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주장한다(김지연, 2022: 11-12). 이렇듯 정체성 정치 개념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충돌하는 양상을 판단할 때 요긴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계의 일부 진영은, 정체성 정치와 정치적 올바름의 전 사회적 확산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에 선다. 그 맥락을 살펴보면, 정체성 정치를 이념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마르크스 진영의 국가 분열 및 기독교 문화 파괴 전술로 간주하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복음기도신문, 2023 ; 코람데오닷컴, 2023). 더 나아가 ‘마귀의 계략’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 신앙의 차원에서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박동일, 2020: 29-33). 이러한 입장은 공통적으로 정체성 정치의 사회적 발현과 기독교 세계관의 확장이 양립 불가하다는 시선을 드러낸다. 물론 한국 기독교계 내부에는 정체성 정치의 활성화를 가치중립적으로 파악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정체성 정치가 지니고 있는 순기능에 기초해 양자의 공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견해도 존재한다(문화선교연구원, 2023).

포괄적으로 보면, 한국 기독교계의 주류는 정체성 정치 담론을 비판적으로 경계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비기독교인이 주류인 대중 사회는, 기독교계가 정체성 정치의 실천적 흐름을 막아서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후자를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2022년 11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개신교인 1,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2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중 ‘한국교회가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비개신교인의 62.2%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앤조이, 2023).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2022년 4월 국민일보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각 종교의 상징적 이미지 단어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가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22). 2023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70.8%를 기록하였다(한국기독교공보, 2023a). 이를 근거로 추정한다면 대중의 인식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정체성 정치의 거시적 흐름에 차별·혐오·배타적 태도로 대항하는 세력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평등·정의·공존 등의 가치를 저해시키거나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방해하는 존재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인식에 대한 기독교 내부의 태도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진리 수호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로 보는 강경한 입장, 정체성 정치와 기독교 세계관의 타협을 요청하는 중재적인 입장을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한편 교회의 대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족과 이웃 사랑 부재가 초래한 결과로 간주하는 성찰적 입장도 감지된다. 이중 어떤 노선이 한국교회의 주된 입장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절충되어야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에 앞서 더 구체적으로 대중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선명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앞서 소개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거시적인 경향성을 설명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설문을 통한 인식 조사는 문항에 제시된 ‘키워드’를 개념적 울타리로 하며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개인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한 보완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은 드라마 시리즈 속 서사 정보와 이미지에 주목하는 이유가 된다. 국내외에서 글로벌 콘텐츠로 조명받은 작품들 안에는 맥락적으로 발현되는 보편적 ‘문화적 요소’들이 기입되어 있다. 특히 한국인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지평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장면들이 수렴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로부터 정체성 이슈를 찾아볼 것이다. 먼저 기독교인 캐릭터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망 내에서 구조화된 권력이 작동하는 지점을 읽어내고, 권력의 방향성을 진단할 것이다. 서사 정보 속 기독교인의 행태가 사실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독교가 사회적인 보편 가치와 어떻게 길항하는지, 정체성 정치의 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짐작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정체성 정치와 연관된 사회적 의제를 옹고 그릇의 관점에서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목적과 거리가 멀다. 단지 동시대 사회관계망 안에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태도와 ‘정체성 정치’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한다. 그리고 대중의 보편적 시선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 기초한다.

II. 한국교회를 향한 동시대의 감정구조와 방법론으로서 ‘상호교차성’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사안에 따라 긴 시간 지속되어 왔다. 교계와 학계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대중의 시선을 객관화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해 왔다.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글로벌 문화콘텐츠에 반영된 반기독교 정서를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도 진행되어 왔다. 최근의 예를 들면,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목사는 <오징어 게임>, <수리남> 등을 거론하며 넷플릭스 드라마에 한국 개신교 코드가 클리셰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 작품을 통해 기독교인이 비윤리적인 이중성을 가진다는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의 글은 사회가 교회에 바라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노컷뉴스, 2023).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는 <오징어 게임>에서 주요 인물의 아버지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일삼는 목회자로 설정된 부분에 주목한다. 이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유명 목회자들의 성범죄 사건이 반복

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이 서사화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대중적인 문화콘텐츠의 내용이 보내는 메시지, 특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겹쳐히 수용하는 데서부터 사태 전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한국기독교공보, 2023b). 또한 성결대 운영훈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기독교 내부의 문제가 공적인 영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으로 진단한 바 있다(데일리굿뉴스, 2023). 고신대학교 강진구 교수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기독교인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성경적 삶의 실천, 이웃과의 교류를 통한 기독교인 이미지의 개선, 기독교 대중예술가 양성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다(강진구, 2023: 72). 담론장에 제출된 기독교인의 시선을 종합해보면, 한국교회가 현실을 자각하고 자성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디어가 반복 재생산하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우려 섞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뉴스파워, 2021). 때로는 반기독교적 작품이 유포하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비판하며(크리스천투데이, 2022) 적극적인 응전의 자세를 내보이기도 한다. 한국교회언론회가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을 반기독교 작품으로 규정하며 제작진의 사과와 영상삭제를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 이미지를 생산하는 문화콘텐츠들, 혹은 대중문화 전반에 대해 앞서 제시한 대타적 입장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징후적으로 읽고자 한다.

일찍이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 개념을 경유해 동시대 특정 사회의 문화적 구성물들의 함의를 진단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한 사회의 감정구조란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사고방식, 생활 형태, 삶에 대한 특수한 감각 등을 통해 감지되는 것이다. 그것은 동일한 장소·시간·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간에 형성되며 공동체의 심층에서 공유되며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특징을 갖는다(Raymond Williams, 1961/2021: 72-87). 이는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신념과는 달리 실제로 활발히 체험되는 ‘감정’이나 ‘정서’에 더 가까운 것이다(Raymond Williams, 1977/2013: 268-269).

감정구조 개념에 착안해서 보면, 한국사회 내에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기독교를 향한 부정적 태도는 대중의 의식과 경험에 기반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감각으로 체화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주목할 것은, 감정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감정구조가 세대를 거쳐 학습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세대는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감정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Raymond Williams, 1961/2021: 81). 과거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 문화가 누리던 사회적 위상과 현재의 낙차가 바로 감정구조 변화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렇듯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감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계기들을 포착하고, 그 양상을 징후적으로 파악해보는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감정구조를 하나의 문화적 가설로 내세우면서 예술, 문학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시대를 공명시킨 예술, 문학이라면 사회 구성원의 정서와 사회의 내용을 적실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Raymond Williams, 1977/2013: 270-271). 이를 오늘날의 상황에 접목하면, 폭넓은 지지를 받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수용체험을 분석하는 것은 동시대의 감정구조와 그 역동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안송범, 2022: 95). 이미 다수의 연구자들은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디어 텍스트, 특히 영상서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대의 감정구조를 읽으려는 시도를 수행한 바 있다(Podalsky, L, 2003 ; 강유정, 2015; Robe, C, 2017 ; 김소은, 2017). 이는 현대에도 감정구조의 개념이 문화연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기독교(인) 이미지를 통해 기독교를 둘러싼 동시대인의 감정구조를 읽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넷플릭스는 미국의 글로벌 OTT 기업으로 전 세계 OTT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매체의 변화, 콘텐츠 시장의 확장,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 활성화로 인하여 TV나 극장(영화관)으로 대표되는 레거시 미디어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로 자리잡았다. 국내 미디어·콘텐츠 시장에서도 넷플릭스는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2022년 10월 기준 이용자 수는 1,137만 명으로 2위 기업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기록하며 최근 2년간 매년 84%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의 잇따른 흥행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국내외적으로 더 확대될 것(지인혜, 2023: 22-32)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들이 시대의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흡수하고, 대중의 문화 취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연구 경향으로도 확인된다. 각종 학술 DB 사이트를 통해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거대한 학술적 담론장이 이미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밝힌 대로, 이 글은 넷플릭스에서 유통되는 한국 콘텐츠들 중 가장 주목받은 작품들 상당수에서 기독교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데 주목한다. 분석 대상 선정의 기준은 2020년 이후 개봉(방영)되어 넷플릭스를 통해 높은 관심도를 보인 영화와 드라마 시리즈이다. 관심도의 측정은 주간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넷플릭스의 차트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 비영어권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는 동시에 영어·비영어권 전체 차트에서는 5위 이상에 랭크된 바 있는 작품들로 제한하였다. 그 중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닌 캐릭터가 등장하여 일정한 서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선정된 작품은 <오징어 게임>(2021), <지옥>(202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2022), <더 글로리>(2022), <수리남>(2022), <길복순>(2023), <퀸메이커>(2023)이다.

본 연구가 캐릭터 분석을 위해 차용할 방법론적 도구는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이다. 패트리샤 힐 콜린스와 시르마 빌게에 따르면 상호교차성이란 개념은 다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호교차성은 세계, 사람들, 그리고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나 자신과 사회적, 정치적 삶의 사건들과 조건들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하고도 상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많은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다. 사회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과 권력의 구성은 인종, 젠더, 계급 모두 사회를 나누는 하나의 축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여러 축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상호교차성은 분석 도구로서 사람들이 세계와 자신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Patricia Hill Collins & Sirma Bilge, 2016/2020: 22).”

계급, 젠더, 인종, 국가, 지역, 민족, 섹슈얼리티, 비/장애, 시민권, 학력 등은 한 사회를 구분하는 주요 축으로 기능하며 특권과 차별을 낳는 계기들로 작동할 수 있다(Patricia Hill Collins & Sirma Bilge, 2016/2020: 25).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개체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며, 상호교차적인 권력 체계를 형성한다(Patricia Hill Collins & Sirma Bilge, 2016/2020: 56). 예를 들면 미국의 흑인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은 순수한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최소 둘 이상의 차별이 상호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복잡성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는 이처럼 특권/차별을 낳는 요소들이 서로 얽혀 다차원적인 특권과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일한 정체성으로 대상을 파악하거나, 개입된 특권/차별의 요소를 단순화하여 인식한다면 개인, 집단, 사회의 복잡한 체계를 간과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후쿠야마는 기존의 정체성 정치가 특정 정체성을 선택/배제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체성 집단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고 보았다(Francis Fukuyama, 2018/2020: 195-201).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교차와 접합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앞서 나열한 다양한 정체성의 조건들이 사회적 특권 혹은 차별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종교로서 ‘기독교’ 역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일정한 권력관계를 파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종교적 관계 안에서, 곧 단일 조건에 의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보다 다른 조건들과 연결되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한 상호교차적 갈등은 형태와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억압과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시리즈 속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상호교차성으로 읽는다는 건, 종교를 포함한 다양한 정체성의 교차점에서 권력관계가 어떻게 엮이고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주안점은, 넷플릭스 콘텐츠 속 기독교인 캐릭터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다중다기한 방식으로 억압을 야기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주로 특권을 누리며 차별을 발생시키는 존재인 셈이다. 그런데 이차적으로 보면, 해당 캐릭터가 지닌 권력이 단순히 ‘종교’를 축으로만 작동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젠더, 세대, 계급 등의 축이 서로 얽혀 복합적인 형태의 차별과 억압을 발생시킨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그래서 이 글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인 캐릭터가 지닌 권력이 종교 외에 어떠한 축과의 결합 위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차별과 억압의 양상을 면밀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요컨대 3장에서는 작품 속 기독교인 이미지에 내재된 상호교차적 축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경유할 것이다. 첫째, 극 중 기독교인 캐릭터가 행사하는 또는 추구하는 권력은 무엇인가? 둘째, 권력이 작동하는 또는 추구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셋째, 피권력자는 누구이며 권력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넷째, 피권력자는 어떠한 차별과 억압을 겪고 있거나 겪게 되는가? 이를 통해 한국 사회와 미디어, 그리고 대중이 기독교를 어떠한 정체성 이슈와 연결하고 있는지, 한국 기독교를 어떠한 유형의 권력과 병치시키고 있는지, 기독교인이 어떠한 차별과 억압을 파생시킨다고 보고 있는지를 종합해보고자 한다.

III. 기독교인 이미지에 접합된 상호교차적 권력관계 분석

1. 계급적 특권이 야기하는 차별과 억압

넷플릭스 콘텐츠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주로 계급적 특권과 젠더·세대적 특권을 축으로 형성된다. 한 사회에서 계급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사회·경제적 기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따른다. 해당 인물 혹은 집단이 지닌 경제력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나눌 것이며 특히 상위 계급에 속한 기독교인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계급적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인물 중 다수는 목회자의 신분을 지니고 있으며 종교적 권위를 기반으로 부의 축적 및 사회적 신분 상승을 지향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해당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계급적 특권을 행사하는 기독교인 캐릭터의 권력관계 분석

작품명	<수리남>	<지옥>	<퀸메이커>	<더 글로리>	<더 글로리>
사진					
인물명	전요환	김정철	나진국	이길성	이사라
권력 발생 심급	종교, 계급	종교, 계급	종교, 계급	종교, 계급	계급
작동방식	기만, 폭력, 환각	기만, 폭력, 공포	야합	기만, 부정축재	폭력, 환각
피권력자	강인구, 수리남 성도 들, 수리남 국민	민혜진, 피고지인, 한국 국민	교회 성도들	교회 성도들	문동은, 제자들
차별/억압	환각에 의한 복종, 주체성 상실	사회적 배제, 인격 말살, 주권 상실	참정권 상실	가스라이팅, 착취	인격 말살, 주체성 상실, 환각에 의한 복종

종교인으로서 권위가 계급적 특권과 결합한 대표 사례는 <수리남>의 전요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요환은 표면적으로는 수리남에서 목회하는 성직자이지만, 사실은 마약왕으로 군림하는 인물이다. 그는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특권을 행사한다. 그는 타인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한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집도할 뿐만 아니라 범죄가 진행되는 중에도 자신들의 무리를 이끌며 기도회 등의 종교적 행위를 수행한다. ‘코카인은 주님의 은총’과 같은 말로 자신의 사업을 성역화하고 자신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을 ‘사탄’으로 지칭하며 자신을 신의 대리자로 위치시킨다. 또한 쿠데타로 집권한 수리남 대통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관계망을 구축한다. 이후 그는 수리남 대통령의 비호 아래 코카인 유통권을 독점한 후 법적·제도적 규율 바깥에서 자유롭게 확보한다. 겉으로는 공익사업을 하는 등 모범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코카인 경작지를 군대로부터 보호받는 등의 초법적 특권을 누린다.

전요환은 이러한 종교적, 사회적 특권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기만이다. 그는 사실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는 4화 중 핵심인물인 강인구와 코카인 밭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불법적 사업을 신성한 ‘사역’으로 둔갑시킨 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는 물리적인 폭력 행사다. 그는 사업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직접

적인 경쟁상대인 첸진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 세력 역시 무력으로 통제한다. 동업자 혹은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리남 대통령과 강인구, 구상만을 겁박하는 장면도 그 연장선에 놓인다. 4화에 등장하는 간부급 여신도가 강인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를 거칠게 훈육하는 장면은, 사업적 성공을 위해 그의 모든 관계망이 수단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셋째는 환각이다. 이때의 환각은 극단적인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대한 수사적 성격을 갖는다. 전요환은 수백 명에 달하는 자신의 성도들을 왜곡된 교리와 마약으로 통제한다. 왜곡된 교리와 마약은 사실상 유비관계에 놓이는데, 후자는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즉물적인 비유일 수 있다. 2화에서 보여지는 여신도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유통 반경을 확대하려는 시도, 남신도들에게 충기를 지급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사병화하는 모습 등도 신적 권위를 통해 상대를 가스라이팅한 후, 일종의 종교적 환각을 범죄에 이용하는 행태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수리남>은 낯선 중남미 국가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여주면서, 지역과 국가, 계급과 종교가 착종된 미묘한 권력관계를 전시한다. 전요환에 의해 폭력적 억압을 경험하는 대상은 넓게는 마약을 접하게 되는 자들과 수리남 거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대상은 수리남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전요환이 제공하는 마약으로 인하여 극적 종교 체험과 마약 효과로서 환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복종하는 것처럼 그려진다. 그들이 자율적 주체로서, 한 명의 독립적 인격으로서 주체성을 거의 상실한 것처럼 설정된 것은 다소 비약이지만, 이는 한국교회 내 ‘목회자-성도’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극단적으로 활용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옥>의 김정철은 극 중에서 대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새진리회’의 2대 의장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원래 그는 목사로서 ‘미래종교’라는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새진리회를 연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진리회의 초대 의장 정진수와 결탁해 2대 의장에 오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진리회의 비밀을 밝히려는 민혜진 변호사를 유인하여 살해를 시도한다. 3화에 그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의 ‘강력한 의장’이 되겠다는 언급을 통해 계급적 권력을 지향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새진리회 의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김정철을 정통 기독교인으로 간주하긴 어렵다. 그러나 ‘미래종교’라는 종교단체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그는 기독교와 기독교계가 이단으로 간주하는 세력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생각나게 한다. 특히 비기독교인의 포괄적 인식 속에서 ‘문제적인 기독교 지도자’의 면모를 지녀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의장이 된 이후 그는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마치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며 권위적 독재자의 면모를 내보인다. 새진리회의 건물 벽면의 그림이 북한의 선전선동부의 화풍으로 묘사된 것도 그러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 김정철이 이끄는 새진리

회는 천사에 의해 죽음을 고지받은 자들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후, 그들의 죽음을 방송으로 내보내며 대사회적 장악력을 키운다. 그 과정에서 대중 여론을 조작하는 인플루언서(화살촉)와 모종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처럼 그려지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김정철은 정보에 대한 해석 권력을 신의 이름으로 틀어쥔 채, ‘신의 결정-처벌’ 과정을 주관하며 신의 대리인이라는 이미지를 실리적으로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한다. 이는 대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일부 한국교회가 맹목적인 믿음을 근거로 배타적 차별과 폭력을 행사했던 순간들을 과장되게 보여준다. 김정철의 신적 권력은 정부의 기능과 공권력까지도 통제범위 안에 둔다는 점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기독교(유사 이단)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면 김정철의 상징적 위치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의 이미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N스크린 시대, 정보를 독점하고, 해석 권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계급 우위를 점하는 권력 집단의 면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정확한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 이는 향후 출현 가능한 상호교차적 권력관계의 양상을 짐작시킨다.

김정철의 폭력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대표적 캐릭터는 민혜진이라고 할 수 있다. 민혜진은 김정철에 의해 사회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준하게 된다. 이차적인 피해 당사자는 천사의 고지를 받은 후,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모욕적인 종교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김정철에 의해 ‘신의 단죄’로 해석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물리적 사망 이전에 인격이 말살되는 피해를 입는다. 일반 시민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배경에서 최종적이고 광범위한 피해자가 된다. 김정철이 이끄는 새진리회가 국정을 좌우하면서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침해받는다.

<퀸 메이커>에 등장하는 나진국 목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함으로써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종교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가 설교하고 있는 예배당의 크기, ‘총회장님’이라는 호칭, 지교회들을 아우를 때 성도가 50만 명에 이른다는 정보를 취합하면, 그는 대형교회 목사이자 교계의 거물로 추측된다. 그는 예배 중 설교를 통해 정치적 연설을 반복하며, 8화에서는 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출마 선언의 아젠다는 ‘서울을 평화와 영생의 도시로 바로 세울 것’이라는 포부로 요약된다. 이는 그가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선출 권력이 되려는 인물이라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다. 여기에는 정치적 언어, 정치적 행동을 종교 행위로 포장해 세력을 과시하는 일부 교계 지도자의 모습이 스며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의 계급적 욕망은 경쟁 후보인 백재민의 선거 전략가가 제안한 단일화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초반에는 응당한 보은을 제시한 백후보 측의 제안을 ‘나는 맘몬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말로 거절하나, 상대방이 ‘아시아 최대의 비전센터 건축’을 제시하자 ‘할렐루야’라는

말로 응답한다. 이후 단일화 수락 연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일화를 선언, 정치권과의 야합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욕망을 우선 충족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나진국에 의해 ‘어린양’으로 불리는 교회 성도들은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로 비친다. 정치적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나진국의 설교에 열정적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은 종교적 사명감으로 충만하다. 백재민이 단일화 이후 얻은 지지율 상승의 결과는 성도들의 일체화된 종교적 열정의 힘을 반영한다. 중요한 것은 환각과 공포를 통해 권력을 휘둘렀던 전요환과 김정철과는 다르게, 나진국의 경우 물리적 강압이 없다는 것이다. 성도들을 가치판단이 불가능한 수동적 존재로 그린다는 점은 지나친 설정이지만, 현실에서 보고되고 있는 종교적 가스라이팅 사례를 고려한 결과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

<더 글로리>의 경우 두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이사라의 아버지인 이길성 목사이다. 이길성 목사는 대형교회의 목사로 등장한다. 그의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와 다르게 사회의 유력인사들이 드나드는 교회인 것으로 보인다. 5화 중에는 이사라가 문동은을 협박할 때 ‘우리 교회에 경찰 간부가 많다’는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길성 목사는 간접적으로 사회적 보호막을 가진 것처럼 비친다. 15화에서는 그가 약 20여 년에 걸쳐 수백억 원대의 현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는 그가 종교적 지위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부정 축재를 해온 권력 추구형 인물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편 딸인 이사라와의 관계를 통해 그가 기만적인 방식으로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있음이 고발되는 장면이 있다. 12화에서 이길성은 마약에 빠진 딸을 보호센터에 보내자는 아내의 말에 ‘목사 딸년 마약한다고 광고를 하라’는 핀잔을 준다. 그는 목회자로서의 양심과 부모로서의 책임보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부인인 이사라의 모에게도 나타나는데, 3화에는 마약에 취해 잠들어있는 딸을 훈육하기보다는 다음 날에 있을 특별전을 걱정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는 그가 이길성과 마찬가지로 교회 사모와 어머니로서의 덕목보다는 당장의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이길성과 그의 부인은 목회자 부부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윤리적 행실은 외면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은폐하면서 교회 안팎에서 확보해온 사회적 실익에 집착한다. 교회 성도들은 억압적 착취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목회자에 대한 맹목적 신뢰 속에 비판의 기능, 자성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처럼 묘사된다. 이길성이 탈세로 축적한 돈이 성도들의 헌금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비기독교인의 시선을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사라는 <더 글로리>의 주요 악역 5인 중 한 명으로 등장하며 주인공인 문동은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인물이다. 가해자 5인 중 3인이 경제적 상위 계급에 속하는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사라도 그중 한 명이다. 이사라가 폭력을 행사하는 방

식은 자신과 상대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힘의 우열로 인지시키며 진행된다. 1화에서 이사라는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는 문동은을 괴롭히며 “너 때문에 달방이라는 말 처음 들었다”라는 말로 모욕감을 준다. 또한 15화에서는 같은 그룹에 속했지만 서민층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를 “문동은이 아니었다면 (괴롭힘의 대상은) 너였다”고 공격하기도 한다.

특기할 것은, 그가 악행을 지속하는 중에도 타인의 시선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8화에서 성인이 되어 찾아온 문동은에게 “나는 너에게 한 짓을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도외시한 채, 도피적이고 가시적인 영성에 매몰된 일부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계급적 특권의식뿐만 아니라 왜곡된 선민의식이 나타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편 2화에서는 그의 제자 또는 대리작가로 보이는 여러 화가들이 마약을 투여받으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저거 맞으면 더 잘 그리냐”는 친구의 질문에 이사라는 “저거 맞으면 내 말을 잘 듣지”라고 응답한다. 이는 최근 한국교회의 부정적 이슈로 조명되었던 가스라이팅, 그루밍 범죄의 일면을 환기시킨다. 또한 <수리남>의 전요환의 사례처럼 ‘기독교인-마약’ 사이의 연상관계를 반복하는 부분은 기독교를 대상으로 여러 문인, 학자, 사상가들이 반복했던 표현인 ‘종교는 인민의 아편’(Karl Marx, 1927/2011: 8)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일부 기독교인에게서 발견되는 초월적이고 도피적인 영성의 폐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시절 이사라는 문동은과의 권력적 착취 관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를 연장하여 성년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 계급에 있어서의 우위를 활용해 약자를 고립시키고 인격을 말살하는 태도를 보인다. 화실의 제자들에게 행하는 폭력은 가스라이팅을 통한 노동력 착취로 연결되는 바, 그 모든 과정에는 ‘환각’으로 묘사된 기독교인의 맹목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이 결부되어 있다.

종합하면, <더 글로리>의 이사라 일가의 폭력적 행태는 오늘날 대형교회 목회자 가족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 가족 내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도 존재한다. 편향된 시선이 존재하지만, 종교(기독교)와 계급이 교차하는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젠더적·세대적 특권이 야기하는 차별과 억압

넷플릭스 콘텐츠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젠더적 특권과 세대적 특권이 결합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폭압적인 행태를 내보이는 인물의 상당수는 중년 남성인데, 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른 형태의 폭력을 실천한다. 오늘날 스크린에서 상당 부분 사라진 전통적 가부장 모습을 한 중년 남성이 기독교인 이미지로 귀환한 점은 주목을 요한다. 그들의 성격에 따라 여성 또는 젊은 세대는 다른 유형의 억압을 받는 장면으로 등장한다.

표 2. 젠더·세대적 특권을 행사하는 기독교인 캐릭터의 권력관계 분석

작품명	<오징어 게임>	<길복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진			
인물명	지영 부(사진은 지영)	길복순 부	신부 부, 신랑 조부
권력유형	젠더, 세대	젠더, 세대, 성적 지향	젠더, 세대, 성적 지향
작동방식	가부장, 폭력, 성폭력	가부장, 폭력	가부장, 혼인 및 파혼 강요
피권력자	아내, 딸 지영	딸 길복순	신부, 신랑
차별/억압	주체성 상실, 성적 자기결정권 상실, 사회부적응	주체성 상실, 사회부적응	성 정체성 상실, 종교 자유 상실, 주체성 상실

지영 부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인 ‘지영’의 아버지다. 작중 지영 부는 직접 출현하지 않지만, 대사와 일부 이미지를 통해 뚜렷한 서사 정보를 갖는다. 지영은 참가번호 240번으로 생사를 건 게임에 참여한다. 그의 개인사는 6화 중 구슬치기 게임을 앞두고 나눈 새벽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상세하게 설명된다. 사실상 죽음을 각오한 지영은 가정사의 아픔을 새벽에게 털어놓는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으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는 성폭력을 자행한 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회개 기도를 하는 인물이었다. 이후 지영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이에 분개한 지영은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다. 지영은 “성(姓)이 무엇이나”는 새벽의 질문에 “그런 것 없다”며 부성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다.

지영 부가 아내와 딸에게 젠더적·세대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성폭력이 포함된 가정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 중 여성들은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지영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물리적 폭력에 의해 직접 살해되고, 지영은 살인범이 된 후, 결국 게임 과정에 내몰려 죽음

에 이르게 된다. 지영은 어린 나이에 친부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셈인데, 그때부터 지영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방기한다. 그가 데스 게임에 임한 것은 삶과 죽음이 무의미한 상태의 절망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다. 신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목회자 이면서 반사회적 사이코패스였고 상습 (성)폭행범인 지영의 아버지는 모순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기독교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의 폭력적 이미지는 젠더, 계급, 종교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길복순>은 킬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엄마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길복순을 중심으로 플롯이 진행된다. 그는 상식선에서 양립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는 캐릭터이다. 그런데 영화 중반 그의 과거사가 밝혀지는 순간, 그의 현재를 만든 복합적인 계기들이 짐작된다. 사진 속 정보를 통해 보건대, 그의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기독교인이었다. 담배를 피우는 길복순의 손을 강압적으로 쥐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기도를 하는 모습도 등장한다. 이 장면까지는 기독교인 가장의 모습으로 다소 불편하지만 헤아려 볼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담배를 씹어 먹으라는 처벌을 딸에게 내리는 모습이나 무차별적 폭력을 당한 복순의 얼굴은 부모의 자격, 경찰의 본분을 논하기 전에 그의 비인간성을 보여준다. 비정상적인 체벌을 가장의 권위를 앞세워 정당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체벌 전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 기도는 딸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자신에게, 또 딸에게 신의 합당한 처벌로 치환하는 의식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이후 길복순에게 두드러지는 모성애와 범망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 등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와 관련된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증오, 반발심과 모종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길복순 아버지의 길복순에 대한 폭력은 종교와 성차에 더해 세대(연령) 간의 힘의 차이가 결합되어 가시화된다. 결국 길복순은 <오징어 게임>의 지영과 마찬가지로 친부를 직접 살해하는 방식으로 억압의 고리를 끊는다. <길복순>은 길복순의 선택과 행위에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면서 반영웅으로서 성격을 부각시킨다. 이는 킬러라는 그의 직업이 불법성과 반사회성을 표면화하면서도 딸과의 연대를 통한 주제의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연관된다. 그는 레즈비언 딸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젠더 문제를 고발하고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까지 끌어안는다. 이는 <길복순>이 장르적 성격이 강한 오락영화이지만, 기독교, 젠더, 성적 지향, 세대 문제가 교차하는 자리에서 중층적인 메시지를 드러내는 서사물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2화 ‘홀러내린 웨딩드레스’는 원치 않았던 결혼을 하게 된 신부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신부와 신랑은 각자의 부와 조부 간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사랑이 부재한 혼인을 하게 된다. 신랑의 조부는 교회 장로로서 성가대 반주자로 활동하는 신부를 손주며느리로

삼기를 원한다. 하지만 결혼식 중 드레스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때 신부 등에 있던 관세음보살 문신이 드러나며 신랑의 조부는 충격을 받게 된다. 신부의 종교가 자신과 다름을 인지한 신랑의 조부는 결혼을 파할 것을 요청한다. 한편 신부의 부 역시 극 중 정확하게 묘사되지는 않았으나 맥락상 기독교인으로 파악된다. 신부의 부는 신랑이 재벌 집안의 자손인 것을 알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인물이다. 그는 결혼식 이후 신랑 측에서 파혼을 요청하자 결혼식을 주관한 신랑 측에 거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딸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다.

이렇듯 2화의 에피소드는 종교적 성향과 경제적 이해관계, 가부장적 규제력이 만나는 자리에서 결혼이 이해 당사자에게 어떤 폭력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극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자신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불교 신자임을 아버지에게 통보하는 신부의 모습은 기독교인(아버지)의 ‘종교 강요’ 문제의 일면을 전경화한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또한 기독교인의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도 환기시킨다. 이는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중 ‘타 종교에 대한 태도’가 ‘교인들의 삶’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한 조사 결과와도 연결된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54). 이후 장면에서 신부는 아버지에게 종교적 정체성과 함께 숨겨왔던 성 정체성을 밝힌다. 자신과 애정관계에 있는 동성의 연인을 소개하며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공표한 것이다. 이때 아버지는 혼란과 분노에 사로잡혀 졸도하고 두 연인은 당당하게 손을 잡고 걸어간다. 그들은 우영우의 시선을 통해 지지를 받는데, 이 장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수용자에게 요구하는 태도를 담아낸다. 결과적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화는 기독교인의 이미지 속에 착종된 대중의 부정적 편견, 특히 이성애 중심적 신앙관이 성소수자에게 행할 수 있는 차별의 강도까지 서사화하고 있다.



그림 1 기독교인 캐릭터에 투영되는 권력의 작동방식과 억압의 생산 구조

위의 그림은 3장의 분석 결과를 총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기독교인 캐릭터에 투영되는 기독교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을 시각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기독교인은 주로 권력자로 묘사된다. 그들은 경제·사회계급적, 종교적, 젠더·세대적 권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권력의 요소들은 상호교차하며 여러 형태의 차별과 억압을 생성한다. 계급과 종교적 권력의 교차는 기

만, 폭력, 환각, 공포, 야합 등의 방식을 통해 작동된다. 젠더/세대와 종교적 권력의 교차는 성폭력, 폭력, 가부장제를 통해 발현된다. 피권력자들은 주로 기독교인 캐릭터의 성도나 가족으로 등장하며 협력 또는 적대관계 인물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을 포괄하기도 한다. 이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시민부터 이주민(수리남), 빈민(더글로리), 어린 여성(오징어 게임, 길복순), 성소수자(우영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상호교차성의 시각에서 권력에 의해 타자화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 집단이다. 기독교인의 권력에 의해 차별과 억압을 경험한 피권력자들은 복종, 인격 말살, 착취, 가스라이팅, 사회부적응, 자기결정권 박탈 등의 피해를 입는다. 이를 종합하면 주체성의 상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3장에서는 기독교인 캐릭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력의 유형, 권력의 작동방식, 피권력자와의 관계, 발생하는 차별과 억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중들의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와 중첩되어 있는 정체성과 특권 및 차별 관련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캐릭터는 경제적·사회적 계급 권력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목회자 캐릭터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특권을 행사하며 이미 상류층에 속해 있거나 더 큰 권력을 추구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자신의 실익 추구를 종교적 사명으로 둔갑하여 추종자들을 현혹한다. 또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만, 환각, 폭력 등 비정상적인 방식을 동원한다. 다수의 콘텐츠에서 이러한 유형의 캐릭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대중들의 인식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빈민과 소외된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기독교는 이미 사회적으로 상류층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종교이며, 사회적 권력층과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고 현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특권적 집단으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사회 지도자들과 일부 유명 목회자들의 모순적 행태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성도 간의 관계가 가스라이팅 등의 방식을 통해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대중들의 시선 또한 읽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권력 유지에 협조하는 존재들이며 주체성을 상실한 채 기만당하는 비이성적 존재로 인식된다. 이는 한국교회를 맹목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을 투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독교인은 젠더 및 세대 권력과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대부분 가부장적 권력을 지닌 중년 남성이 권력자로 묘사되며 그들의 딸이 피권력자로 위치한다. 그들은 대부분 이중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기독교인으로 등장한다. 주로 여성에 대한 억압기제를 지닌 채 등장하며 여성의 저항으로 인하여 서사세계에서 축출된다. 이는 젠더적 관점에서 기독교는 이미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가부장제의 대변자로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가 억압을 극복하는 주체적 존재로 묘사되는 구도에서는 기독교인이 그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자리에 배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젠더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기독교를 타인의 주체성 혹은 성 정체성을 억압하는 독선적 존재로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을 반영한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에 있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자신의 규율을 강요하는 기독교인 캐릭터의 모습이 다수 발견된다. 이 역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더 이상 이타적 이웃이 아닌 타 종교인을 배척하는 차별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피권력자를 억압하다가 끝내 축출되는 기독교인 캐릭터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적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시대의 지배적 미디어가 기독교인을 권력자이자 억압자로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 기독교 공동체의 반성적 성찰을 재고하게 한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 이면에는 종교 및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표현상 구체화의 정도와 유사한 캐릭터의 지속적 등장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호오만을 원인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가장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은 기독교가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고 더 나아가 억압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선의 불식을 위해서는 더 낮은 곳을 향하는 태도 전환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 차원의 전략적 대응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대중들에게 기독교는 대화가 불가능한 비이성적 집단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으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수단을 통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연구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문화 콘텐츠는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텍스트인 동시에 그것을 확대 및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한 상호작용 방식을 적극 수용하여 도전적이며 새로운 담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 연구라는 특성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대중의 보편적 시선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본 논문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유정 (2015). 영화 <겨울여자>의 여대생과 70년대 한국사회의 감정구조. **대중서사연구**, 21(2), 187-217.
- 강유원 역 (2011). **헤겔 법철학 비판**. Marx, K. (1927).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서울: 이론과실천.
- 강진구 (2023).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이미지 연구 -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2023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72-74.
- 권순옥 역 (2021). **오인된 정체성**. Haider, A. (2018). *MISTAKEN IDENTITY*. 성남: 두 번째테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김소은 (2017). 멜로드라마의 ‘감정 구조’ 형성 방식 연구 -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중심으로. **드라마 연구**, (52), 5-60.
- 김지연 (2022). MZ세대의 출현과 광고의 정체성 정치: 현대자동차 영상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 연구**, (118), 3-37.
- 김창남 (2021). **한국 대중문화사**. 파주: 한울 아카데미
- 박동일 (2020). “정치적 올바름” 속에 숨겨진 마귀의 계략,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10월 호, 29-33.
- 박만준 역 (2013).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Will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성은애 역 (2021). **기나긴 혁명**. Willams, R. (1961). *The Long Revolution*. 파주: 문학동네.
- 안승범 (2022). 한류 태동 과정에 대한 연구 - 내재적 동인이 중층적 발현에 대한 고찰.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7), 87-113.
- 이선진 역 (2020). **상호교차성**. Collins, P. H. & Bilge, S. (2016). *Intersectionality*.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수경 역 (2020).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Fukuyama, F. (2018). *IDENTITY*. 서울: 한국경제신문.
- 이종일 (2019).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과 논쟁 범위. 이종일 (편저). **정치적 올바름 논쟁과 시민성**(pp. 47-52). 파주: 교육과학사
- 지인혜 (2023). 국내 OTT 산업 및 기업의 주요 현황과 시사점. **미디어 이슈 & 트렌드**, 54, 22-32.
- Podalsky, L. (2003). Affecting legacies: Historical memory and contemporary structures of feeling in ‘Madagascar’ and ‘Amores Perros’ (Latin-American film). *SCREEN*, 44(3), 277-294.
- Robe, C. (2017). The Specter of Communism: A Communist Structure of Feeling within Romanian New Wave Cinema. *Film Criticism*, 41(2), <https://quod.lib.umich.edu/f/>

fc/13761232.0041.203/--specter-of-communism-a-communist-structure-of-feeling-within?rgn=main;view=fulltext.

국민일보 2022. 4. 27일자. “[한국교회 세상속으로...] “기독교 배타적”...호감도 25% 그쳐.”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42493>. (검색일 2023.6.22)

노컷뉴스 2023. 5. 28일자. “[파워인터뷰] 백광훈 원장, 대중문화 속 기독교,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950695>. (검색일 2023.6.23.)

뉴스앤조이 2023. 1. 21일자. “세상 사람과 평등 의식 차이 ‘없는’ 개신교인...” 교회 안에서만 성결한 삶 작용.”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21>. (검색일 2023.7.4)

뉴스파워 2021. 10. 31일자. “[소강석 목사 영혼 아포리즘] “한국교회여, 오징어 게임을 멈추게 해 주세요””

<http://www.newspower.co.kr/50558>. (검색일 2023.6.23.)

문화선교연구원 2018. 12월자. “[임성빈의 문화칼럼] 정체성의 정치와 교회, 신앙인.”

<https://www.cricum.org/1420>. (검색일 2023.7.3.)

복음기도신문 2022.. 8. 17일자. “[세상 바로 보기] 정체성 정치와 성경적 세계관.”

<http://gnpnews.org/archives/120200>. (검색일 2023.7.4)

코람데오닷컴 2020. 9. 2일자. “‘탈이념’이 아니라 ‘문화 막시즘’입니다.”

<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21>. (검색일 2023.7.4)

크리스천투데이 2022. 9. 20일자.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기독교와 마약 중독 매치시켜”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0064>. (검색일 2023.6.23.)

한국기독교공보 2021. 10. 11일자. “오징어게임, 기독교 향한 독설은 현실”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9091279182>. (검색일 2023.6.23)

한국기독교공보 2023. 2. 19일자. “불교는 ‘친근’ ... 개신교는 ‘거리감’”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9689115749>. (검색일 2023.6.22)

SBS뉴스 2023. 5. 26일자. “[스프] 논란의 ‘인어공주’, 정작 불편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05880. (검색일 2023.7.4)

넷플릭스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에 투영된 상호교차적 권력관계 고찰

A Study on Intersectional Power Relations Projected on Christian Characters in Netflix Series

김태룡 (경희대학교)

안승범 (경희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만든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를 상호교차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심층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대중의 보편적 시선에서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 기초한다.

이를 위해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감정구조' 개념에 착안하여 문화, 예술이 동시대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또한 사회 권력의 구성이 다양한 정체성 요인의 중첩 위에서 형성됨을 설명하는 '상호교차성' 개념을 주된 분석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7개의 작품에 등장한 8명의 인물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넷플릭스 콘텐츠 속 기독교인 캐릭터는 주로 사회적·경제적 계급, 젠더, 세대 등의 심급과 중첩되어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과 억압을 야기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넷플릭스, 한국교회, 기독교인 캐릭터, 상호교차성, 기독교문화콘텐츠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어떤 상담자인가?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동향 분석을 통하여-*

What Kind of Counselor is A Military Chaplain? -centering around the US. Military Chaplain's Role and Tendency Analysis

전요섭 (Joseph Jeon)**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identification and role of military chaplains as a counselor. Chaplains were emphasized in their roles as counselors in addition to their role as officers and pastors.

(1) There is a growing trend in the US military to emphasize the counseling role of chaplains as religious liaison officer. While the role of chaplains between the US military and the Korean military differs significantly, but Korean military chaplains should also be capable to taking charge of civil affairs related to religion as counseling experts with more expertise in civil affairs. (2) It has been revealed that chaplains, as counseling specialists for psycho-spiritual therapy, play a crucial role in resolving the psycho-spiritual issues of soldiers. (3) As counselors for evangelism, chaplains are officially recognized as agents of evangelism, so they should seize opportunities in counseling to fulfill their pastoral calling, engage in evangelism, and the ministry of salvation.

The researcher emphasized the need to further strengthen CPE as a means to enhance the counseling capabilities of chaplains. The researcher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linical training. There was a proposal to support chaplains in acquiring counseling-related qualifications similar to the approach in the US military by providing support for obtaining counseling credentials during their active duty.

Key words: military chaplain, Christian counseling, pastoral counseling, military counseling, mental health, U.S. military

* 2023년 8월 11일 접수, 9월 1일 최종수정, 9월 4일 게재확정.

** 성결대학교(SungKyul University) 파이테이아(교양교육)학부 교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로 53 성결대학교 중생관 507호실, jeon8182@gmail.com

I. 여는 글

군종목사는 전쟁/전투 일선에서 활동하는 전투요원은 아니지만 고대로부터 전쟁/전투와 긴밀한 동반관계를 유지해왔다(Mendenhall, 2009: 8-13). 군종목사 제도가 비교적 일찍 정착되었던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서는 수많은 전쟁/전투를 겪으면서 군종목사의 역할과 임무를 발전시켜왔다. 군종목사 고유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임무는 무엇보다도 예배와 설교, 기도로 대표되는 종교(목회)활동이다. 하지만 현대 군종목사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종교적 지원만 하는 전통적인(목회적인) 역할과 기능을 넘어 군으로부터 더욱 확장된 역할과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 군종목사가 순수하고, 단순하게 오직 목회돌봄(예배와 설교, 기도 등)이라는 영적 활동만 하는 것은 사실상 군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다. 군종목사는 군에서 자신의 종교/종파의 선교/전도/포교를 위해 공식적으로 초빙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Stahl, 2017: 236).

특히, 근래 군종목사의 역할 특징으로는 어느 국가이든 심리정서적 차원의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Grace Davie(2015: 39-53)는 어느 국가의 군종목사이든 현대 군종목사는 심리정서적이며 동시에 신학적인 과제를 동시에 담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고 진술하면서 군종목사의 심리정서적 기능을 상담으로 이해하고 이를 강조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근현대에 발생한 전쟁/전투들을 분석해 볼 때, 군종목사는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받아왔고, 또 이에 부응하여 상당히 기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Seddon et al, 2011: 1357-61). 미군의 경우에는 군종목사에게 점차 증가하고 광범위해지는 장병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과거보다 더 많이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거에 없던 종교연락장교로서 상담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군대에서 군종목사에게 전통적인 목회돌봄의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더하여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부각하여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범주의 확장과 기능강화는 군종목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일각이 있는가 하면, 군종목사의 본질적인 역할을 희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일각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군종목사가 군에서 다양한 상담자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과연 ‘군종목사는 어떤 상담자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미군 군종목사의 역할과 그들의 활동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군 군종목사의 상담적 기능과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군종목사에게 요구되는 상담자 역할을 다루면서 역할 내의 역할 갈등, 심리영적

치유상담자로서 군종목사, 복음전도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를 살펴보고,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II. 군종목사에게 요구되는 상담자 역할

대한민국 군종목사의 고유업무는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대민업무로서 이는 군종제도가 창설되었을 때부터 군이 군종목사에게 요구해 온 업무이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임무는 종교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활동도 공히 힘써야 할 주요업무인 것은 틀림없으나 종교활동과 대등한 가치로 인식되거나, 대등한 비율의 활동을 요구받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종목사의 상담업무가 강조되고, 장병들을 상담하는 일이 군종목사에게 중요한 일로 강조되고 있더라도 위 네 가지 고유업무에 군이 다섯 번째로 상담업무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상담업무가 네 가지 고유업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교활동의 범주에서는 신앙상담, 전도상담 등 다양한 목회상담을 시행하고 있고, 교육활동에서도 전입신병상담 등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도활동에서는 관심장병상담, 수감자상담, 환자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대민업무에서는 미군에서 사용하는 용어 ‘종교연락장교’(liaison office)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즉 교단 책임자와 군종활동지원 및 정책관련상담, 지역 종교지도자들과 종무협조상담, 향토사단에서는 향군종상담 등을 원활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군종목사의 상담기능을 더욱 부각하고,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군종목사를 일컬어 ‘군복을 입은 성직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목사이며 군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미군의 경우에 군종목사는 소속교단에서 군에 파송한 목사임과 동시에 국방부와 각군에 소속된 군인/장교라는 이중적 정체성에 더하여, ‘상담자’라는 세 번째 정체성을 요구받는 상황이다(Davie, 2015: 39-53). 그래서 군종목사는 목사, 장교, 상담사라는 삼중적 지위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장병들에게도 제3의 정체성인 ‘상담사’로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Norton, 2015: 21-39).

1.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 역할 내의 역할 갈등

Davie(2015, 39-53)는 군종목사의 역할을 구성하는 다양한 업무와 업무 간의 서로 호환되는 정도의 문제를 일컬어 ‘역할 내 역할’(the roles within the role) 갈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적하고 있다. 상담자의 역할도 군종목사의 주요업무라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역할 내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군인교회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신앙상담은 목회돌봄의 본질이기도 하며, 목회의 의미 및 당위성이라 표현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동일한 군종목사의 상담이라 할지라도 이단 장병상담, 복무부적응 장병상담, 수감자상담, 환자상담, 포로상담, 지역 종교지도자들과의 종무상담, 지원국/주둔지 군종장교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상담 등 상담의 범주가 넓어지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업무 가중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역할도 군종목사가 해야 하는가?’하는 역할 내 역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군에서 군종목사의 상담은 장병의 문제를 치료, 치유, 회복, 변화를 통해 사고예방 및 사기진작, 재발방지, 전투력향상 등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군이 상담활동의 범주를 넓히고 군종목사에게 전문성과 적극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군의 경우, 군종목사에게 부과하는 상담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상당한 지식과 기법이 필요한 것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Phillips, 2004: 47-58). 그 이유는 군종목사가 담당해야 할 상담의 범주가 더욱 세분화되고, 더욱 광범위해지고, 더욱 전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군종목사의 고유업무인 종교활동은 대부분 집단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많이 띄고 있는 편이다. 설교하는 것, 기도해주는 것, 예배를 인도하는 것, 성례를 집행하는 것, 축도 등이 그러한 사역이다. 하지만 상담은 대부분 개인적이고 양방적인 차원이다. 예를 들면, 내담자(장병)를 개인적으로 만나 문제를 경청해야 하고, 심리영적 문제를 직면시켜야 하고,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어야 하고, 문제분석을 위해 기법이 발휘된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하고, 상담내용을 분석, 진단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다양한 심리영적 기술과 기법의 적용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군종목사의 심리영적 돌봄은 예배, 설교, 성찬, 기도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에 상담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Harrison, 2017: 22).

특히, 미군의 경우, 역할 내 역할 갈등은 우리나라 군종목사에 비해서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군종업무 가운데 일부는 더욱 확대되어 새로운 요구들이 발생하고, 점차 세분화되고, 특수화되어가고 있다. 이를테면, 미군은 2009년 11월 군종목사에게 공식적으로 종교연락장교 역할을 주문하게 되었다.¹ ‘종교연락장교’(religion liaison office)라 함은 군종장교 가운데 ‘종교연락장교’라는 직책(보직)을 부여하여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종목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 국가에 파병된 미군이 주둔지에서

1) 본디, ‘연락장교’라는 의미는 둘 이상의 조직(국가)이 공식적으로 연락 창구를 두어 소통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연락을 담당하는 장교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는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문제발생시 중재, 갈등해소, 충돌 해소 및 완화, 협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군에는 연락장교라는 직책이 있기도 하고, 정책부서에서는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단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업무에는 ‘연락장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무에 따라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군사활동을 수행할 때, 지역의 무슬림 주민들을 상대로 종교적인 충돌 없이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 부대가 어떤 작전을 수립하고, 해당지역 종교에 장병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교를 전담하고, 지휘관에게 종교관련 참모조언을 담당하는 군종목사가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종교연락장교의 역할은 파병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종교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 갈등, 위협, 충돌 등을 해소하고 지역 및 지역주민 안정화를 꾀하는 군종목사의 확장된 협상적, 설득적, 교육적, 상담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Gutkowski & Wilkes, 2011: 111-24).

이런 종교연락장교의 업무는 한국군 군종목사에게도 유사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는 이를 ‘대민업무’라 한다. 하지만 현재 군에 규정된 대민업무에 더하여 새롭게 확장되고, 구체적인 요구를 군종목사에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평시에 대민업무가 심각한 역할 내 역할 갈등요소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파병부대 군종목사에게는 미군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종교연락장교 업무는 이해, 설득, 타협, 조정 등 거의 외교적인 일이고, 협상가에 가까운 상당한 상담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심리상담이나 영적 상담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상담업무라 할 수 있다.

‘상담’ 자체는 군종병과 뿐만 아니라 군의 모든 병과에 요구되는 업무라 할 수는 없는데, 이에 종교관련 상담일 경우에는 그 담당부서가 군종병과이며 군종목사의 임무이다. 이를테면 ‘교육’도 군의 모든 병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교육 등은 주로 공보정훈병과와 그 장교들의 고유업무이지만 종교관련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응당히 군종업무로 보아야 한다.

지역주민과 종교, 지역종교지도자, 정부조직 및 비정부조직, 민간 자발조직 등과 종교문제의 협력, 협상, 설득, 교육, 상담을 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의 확장된 전문가 역할에 대해서 군종목사는 딜레마로 이해하고 당황할 수도 있다. 종교연락장교로서 효과적인 참모역할의 공식화는 군종목사로 하여금 더욱 업무의 긴장도를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역할은 일선 여단(연대)에 근무하는 군종목사보다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군종목사의 임무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우리 군의 경우, 향토사단에 근무하는 군종부 군종장교(목사, 신부, 법사, 교무)는 지역 종교지도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종교연락장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해외 파병 미군 군종목사는 내부적으로 파병 장병들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에 주력하지만 대부분 이슬람권에 주둔하므로 종교연락장교 역할을 수행해야하므로 더욱 긴장되고 업무 갈등을 느낄 수도 있다. 이슬람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군 군종 이맘(إمام, Imam: 무슬림 군종장교)의 종교연락장교 역할은 수니파, 시아파의 종파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무슬림이라는 동질적 입장에서 종교적으로 큰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개신교 군종목사의 이런 역할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해외 파병 부대 종교연락장교 업무는 종교와 관련하여 지역 평화, 인도주의적 관계개선, 종교갈등 해소 및 화해 구축 등의 미명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군의 군종목사가 여러 무슬림 지역에서 수행하는 민사임무(군종장교의 종교적 차이, 언어적 한계, 문화적 갈등, 지역파악 정보부족, 분쟁지역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반미 인식감소, 지역주민과의 종교갈등 해소 및 화해 구축, 주둔지 종교지도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및 협상의 상담에 성공하고, 군에 기여했다는 보고들이 많다(Gutkowski & Wilkes, 2011: 111-24). 이런 확장된 업무와 역할로 인해 군종병과가 국가 및 군의 군사적, 전략적,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군 군종목사 중령 Lee(2005: 1) 등은 “미군에서 군종목사는 군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군에는 아직 이런 역할 확장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대한민국 군종목사의 경우에도 평화유지군에서 이와 같은 업무요구가 아직 강력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능력 향상은 언제라도 강력하게 요구받을 수 있는 업무임에는 분명하다. 평시에는 주둔지 지역종교지도자와의 원활한 관계유지가 요구되며, 전시에는 점령지 주민과 민간종교단체와의 충돌 및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상담자 역할수행이 요구되므로 이에 적절한 지침이 교리화되어 교범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심리영적 치유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

어떤 사회에서나 정신건강 문제는 점차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군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군은 통제된 사회이며, 불안, 공포가 팽배해 있는 극한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젊은이들의 정신력이 더욱 강해지거나 아니면 부적응이 발생하여 문제상황이 될 수 있다. 군인은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이 잘못될 때,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군이 비전투손실을 막기 위해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장병들의 급증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 전문인력(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국방부 훈령 제1818호 제4장 제18조[임무] 1. “고충을 호소하는 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부여한 업무를 수행”) 채용에 대한 국방부 훈령도 있었다. 군이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상담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군종목사의 고유업무에 상담기능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Saunders, 2023: 133-135).

군에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해소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상태이다. 여기서 ‘불충분’이라는 의미는 그 인력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내용에 있어서 그들은 장병들에 대하여 영적 지지, 영적 치료 등 영적 접근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군 군종목사는 모든 군사환경에서 미군에 복무하는 인원에게 영적 지원(spiritual support)을 하는 특수목회자로 인정되고 있다(Patterson, 2014: 19). 군의 모든 활동이 전투력 증강에 있다고 볼 때, 군종목사가 장병들이 겪고 있는 심리영적 문제를 해소, 해결해줌으로써 무형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군의 요구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모든 군사환경에서 영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전시는 모든 군사환경 가운데 가장 중시되는 위기상황이므로 장병들을 위해 더욱 충분한 그리고 독특한 영적 자원(spiritual resource)을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이 담대하게 전쟁/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Whitt, 2014: 2). 군종목사가 ‘장병들을 위해 영적 자원을 지원하는 자’라는 면에서는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군의 경우, 종교유무에 관련없이 대략 64%의 장병들은 영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oper, et al, 2023: 56-65). 하지만 일부 장병들은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에서 기독교 신앙, 즉 영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은 군종목사가 제공하는 심리영적 상담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거나, 기독교 신앙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군종목사와 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장병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Eleonoli, 2007: 54-65).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 심리정서적 증상을 막거나 치료, 회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군종목사와 상담하는 것을 거리낄 수도 있을 것이다(Koenig, 2012: 1-11). 이런 경우, 종교가 없거나 다르거나, 심리영적 지지를 거부하는 장병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장병들에게 군종목사의 심리영적 접근은 매우 반가운 일일 수 있다.

군종목사가 활용할 ‘영적 자원’은 이른바 ‘은혜의 방편’(means of grace)이라 하는 예배, 설교, 세례와 성찬, 기도(안수기도, 회개기도), 심방, 상담 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은혜의 방편은 장병들로 하여금 전의를 다지고 용기와 담력을 갖도록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심리정서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장병들에게 기도해주는 것이 웬만한 정신건강 증진행위보다 더 나은 경우도 많이 있고, 장병들이 예배와 설교에 빈번하게 노출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규범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규범적인 행동 촉진에 큰 도움이 되며, 기독교 신앙의 사고예방, 비전투손실예방, 무형전력 증진 등 신앙전력효과

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되고 있다(Mason, 2014: 179). 종교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Carson, 2018: 64-65).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장병들의 자기 규제 및 자기 통제를 촉진하여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군종목사는 장병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군인교회에 출석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Marty Mendenhall(2009: 8-13)은 장병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신건강전문가들의 67%는 영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함으로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무능’이라는 표현은 군 정신건강전문가들을 다소 폄하하는 의미의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해 Denise C. Cooper(2023: 56-65)는 그와 유사하게 군에서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들도 영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거의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분야에서는 장병들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군종목사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영적 문제가 따로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모든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군종목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적을 사살한 후, 또는 동료가 적에 사살된 후, 그 장면을 목격한 장병들의 트라우마는 단순히 심리정서적인 충격만이 아니다. 특히 신자장병에게 있어서 심리정서적 트라우마는 동시에 영적 트라우마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일이다. 죄의 행위가 단지 법률적 위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도덕적 손상, 심리정서적 손상 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죄와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을 벌하신다는 두려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재앙적 사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심 등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Guy Harrison(2013: 34)은 이를 ‘soul pain’(영혼의 통증)이라고 표현하면서 상담자가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영적 고통은 누구보다도 군종목사가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죄책감과 용서, 사죄의 확신, 죽음불안과 공포 및 내세의 문제와 같은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다. 장병들이 겪는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군종목사는 군의관이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은혜의 방편을 통한 목회돌봄의 차원에서 심리영적 상담을 제공한다(Allen, Nieuwsma & Meador, 2014: 1-11). 따라서 군종목사의 상담은 심리정서적 접근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영적이어서만도 안 되며, 심리영적인 접근이어야 하는데, 이는 군종목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며 기능이다. 미국 국방부(The Department of Defense)는 장병들의 건강에는 심리영적 건강을 더 나은 전인적 건강으로 이해하여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Cooper, 2023: 56-65). 군종목사는 심리영적인 문제를 치료, 치유, 회복하는 업무수행을 강하게 요구받아왔으며, 좀 더 ‘숙련된 영적 돌봄’(skilled spiritual care)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Mendenhall, 2009:

8-13).

바그다드에 주둔했던 미군 군종목사 Henry Beaulieu는 ‘새벽 2시쯤에 동료병사 가운데 한 명이 적의 총탄을 맞고 죽거나 폭파되는 악몽을 반복하여 꾸는 증상’으로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군종목사인 자신을 찾아온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Davie, 2015: 39-53). 군종목사는 이런 장병들에게 성경말씀을 들려주고 치료와 치유를 위한 기도로 심리영적 안정을 갖도록 하고,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도록 하며, 의미 재구성에 대한 상담으로 치유하는 특화된 존재이다.

신체와 심리가 연결되어 있고, 심리와 영 그리고 영과 신체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불과한 개념이다. 그래서 ‘심신상관’(心身相關)이라는 용어와 의학용어 ‘PNI & E’(Psychology, Neurology, Immunology & Endocrinology)는 영이 강조된 ‘영심신상관’(靈心身相關), ‘SPNI & E’(Spirituality, Psychology, Neurology, Immunology & Endocrinology)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와 영적인 문제의 상관관계는 개념상 소홀히 여겨진 것이 사실이며, 심리와 영에 대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부여하여 하나는 심리학, 심리치료 및 정신의학의 영역으로, 또 하나는 종교적, 신학 및 영적 치료의 분야로 분리하여 이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영적 개념은 심리적인 것과 별개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영적 분야에서는 심리를, 심리영역에서는 영적 영역을 배제하거나 소외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인(全人)을 고려한다면 이 둘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 입장을 견고히 해야 한다. 심리적인 면과 영적인 차원을 동시에 이해하고, 동시에 다루는 것을 일컬어 ‘심리영적’(psycho-spiritual)이라 하며, 이는 전인건강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하는 과제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는 일에 있어서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 및 심리상담전문가의 독단적인 활동은 장병들의 전인건강 차원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장병들의 진정한 전인건강을 추구한다면 군종목사의 심리영적 접근을 결코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연계/통합 프로그램의 활용이 있어야 한다.

통합병원 및 야전병원에서 또는 군 상담전문가들과 연계/통합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Cooper(Cooper, 2023: 56-65)는 미 해군에서 군종목사와 군 정신건강전문가(군의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간호사, 심리치료사 등)가 함께 4주간 실시한 연계/통합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미 해군에서 작전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해군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종목사와 군 정신건강전문가가 연계/통합하여 상담 및 심리영적 치료를 실시한 결과, 군종목사는 군 정신건강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기도, 안수기도, 고백, 회개, 용서, 사죄의 확신, 화해, 슬픔에 대한 의미 재구성, 죄책감 해소, 소망 등을 다루었을 때, 치료가 촉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연계/통합 프로그램은 치료에 있어서 이른바 ‘전인

적’(wholistic), ‘통합된’(unified), ‘연계된’(collaboration) 접근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Harrison(2017: 22)은 군종목사의 이런 역할을 ‘medical ministry’(의료 목회)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역의 특수성을 표현한 바 있다. 군종목사는 다른 정신건강전문가와 더 많은 협력체계 하에 전인 건강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군종목사의 개입은 분명한 증상 감소와 회복 및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이 흔히 발견된다.

심리영적 차원의 연계/통합모델을 활용한 군대 보건의료지원체계는 전인치유를 위해 향후 더욱 발전해야 할 분야로서 전문화, 특성화되어야 하며, 긴급히 체계화시켜야 할 분야이며,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다. 이런 협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국방부 군종실 및 각군 본부 군종실에서 다양한 심리영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면밀히 다루고, 교리화된 교범(field manual)이 마련되어야 한다.

Davie(2015: 39-53)는 군종목사의 정체성을 논할 때, ‘사역의 존재’(being of ministry)라는 정체성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사역’(ministry of being)이라는 정체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전투 현장에서 장병에게 베풀어지는 사역의 집행자로서 목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투현장이나 죽음의 현장에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장병들과 함께 있어주는 존재(ministry of being)로서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의 유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군에서 군종목사의 역할에 대한 개념 및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는 영국군 군종정책 논의에서 드러난 갈등으로서 영국이 치른 전쟁/전투를 반추, 분석하여 전시 군종활동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종목사의 안전유지 및 보호차원에서 전투지역에 군종목사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후방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전선에서 죽음에 임박한 장병들과 함께 있어주는 존재의 사역자로서 군종목사의 역할과 배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Davie, 2015: 39-53).

Harrison(2017: 22)은 이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군종목사’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인데 군종목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기에 처한 장병들의 인식에는 군종목사가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단서가 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종목사가 주둔지에 장병들과 함께 있어줌으로써 장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여 우울 및 불안과 공포 등 두려움과 심리영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해군의 경우, 함선에 군종목사가 승선함으로써 수병들이 갖는 심리영적 안정감이 크다는 경험적 진술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Davie(2015: 39-53)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영국 전투작전을 회고한 영국의 한 사령관의 진술을 인용하여 군종목사의 상담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전투상황은 극심한 스트레스, 불

안과 공포, 우울, 슬픔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장병들의 심리정서를 다룰 수 있는 장교가 군종목사 외에는 없었다. 따라서 군종목사 없이는 장병들을 전투작전에 투입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인용하여 군종목사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는 한국군 상황이라 하여 다른 양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이 어떤 이유에서 군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down sizing)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사고예방, 사기진작, 군 전투력 유지 및 증강, 극대화를 위해서는 군종목사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여 대대급 부대에서 수시로 장병들의 눈에 띄고, 간략하나마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복음전도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이전인 1991년 군내 기독교신자가 4%였었는데, 전쟁 중에는 75-80%로 증가한 것을 보면 “참호 속의 무신론자는 없다.”(no atheist in a foxhole)는 말이 맞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통계를 볼 수 있다(Chaika & Dragan, 2022: 213-29. 우크라이나는 2006년에야 군종 제도가 시행되어 215명의 군종목사가 복무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불안, 공포상황은 장병들로 하여금 종교적 민감성을 갖게 하여, 종교를 갖도록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 하여 전쟁 중 무신론자 장병들이 모두 군인교회에 출석하는 신자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군종목사의 전도상담은 대리적 신앙에서 직접적 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불안과 공포는 신앙을 갖기에 좋은 심리영적 토양이 될 수 있으므로 위기상황에서 군종목사는 상담을 통해 장병들에게 기독교신앙을 갖도록 하는 상담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긴장의 상황’(the angle of eschatological tension)으로 설명된다(Davie, 2015: 39-53). 이 용어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신앙과 인간 경험 사이의 긴장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종말론적 긴장의 상황은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본질적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 역사적, 우주적 종말개념보다는 기독교신자들이 겪는 개인적 종말(죽음) 앞에 자신의 믿음과 삶의 경험, 희망과 현실 간의 긴장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확고한 인식을 갖고자 하는 성향이 발생하며, 이런 종말론적 상황, 종말론적 인식 등은 장병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독교신앙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Davie(2015: 39-53)는 ‘확산적 기독교’(diffusive Christian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쟁으로 인해 기독교신앙을 갖게 되는 충분한 동기부여와 그로써 양질의 기독교신앙 확산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로 보건데, 전쟁이 기독교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동기부여를 한 것이 명백하지만 장병들의 신앙

행태는 소위 ‘속하지 않고 믿는 것’(believing without belonging)으로서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신앙을 갖거나 가지려는 터전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Davie(2015: 39-53)는 어떤 상황에서도 군내 무신론자 또는 반신론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군의 위기상황이나 전쟁/전투 상황에서는 군종목사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상당부분 감소되고, 군종목사에 의한 영적 지지/지원을 무시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휘관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으로 분석했다. 군종목사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배와 설교에서는 물론, 상담에 있어서도 목사 고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 전도의 기회, 구원사역의 기회로 포착해야 한다.

Davie(2015: 39-53)는 개인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든지, 종교적 경험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종교적 행위나 신앙을 통해 종교적 만족을 얻으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일컬어 ‘대리적 종교’(vicarious religion)라고 했다. 이 개념은 종교적 신념이나 실천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행위를 통해 종교적 의미를 얻으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활동은 개인적인 믿음과 신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나 일부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경험을 추구하거나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를 대신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즉, 자신은 기독교신앙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군인교회에 출석하지는 않고 다른 장병들에게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도록 요청하거나,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신앙을 통해 종교적인 지식, 위로, 의미, 희망 등을 얻으며, 자신의 종교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

III.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방안

대부분 군종목사의 상담에 대한 이해의 기반은 입대 전, 소속교회에서의 사역훈련 가운데 몇 차례 경험할 수 있는 임의적인 상담사역(대부분은 수련감독자에 의한 수퍼비전이 없는 상담)이 대부분이고, 소속교단의 목사양성과정인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목회)상담학관련 한두 과목을 통해 수립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 및 수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신학대학원 교육과정에 임상목회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 실습이 포함된 학교가 많아 목사가 되기 전, 체계적인 임상실습을 통해 상담수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학대학원의 경우는 CPE를 교육과정으로 채택한 학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군종목사로 임관하는 순간까지 CPE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해 본 목사들은 거

의 없는 실정이다. CPE는 환자, 가족 및 기타 임상관련된 사람들에게 심리영적 돌봄을 제공하도록 목사를 임상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군종목사에게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수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한국군에는 이른바 ‘K-CPE’라 하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군종장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나 필수과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CPE 프로그램은 상담기술 향상을 위한 이론적인 학습과 환자상담의 임상실습 및 수련감독이 모두 포함된다. CPE를 통해 훈련받은 군종목사는 종종 군 병원에 보직을 받아 건강관리팀의 일원이 되어 장병들에게 심리영적 지원하는 임무를 맡기도 한다.

군종목사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해 초군반(OBC), 고군반(OAC)에 상담관련 과목의 교육시간을 확장하는 것과 상담자교육 및 임상훈련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군종목사가 상담학회와 연계하여 임상지원체계에 따라 수련감독급 상담사들로부터 수련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군종목사 내 수련감독급 상담사를 양성하여 이 일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국방부나 각군 본부 군종실 등 정책부서에서는 군종목사가 심리영적 상담자로서 장병상담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그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의사들이 새로운 의학지식 및 기술과 기법향상을 위해 꾸준히 학회에 참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종목사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담학회에 참석하여 꾸준히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군 본부 군종실에서 비용과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군은 군종목사들이 전반기에는 일반상담학회(한국상담학회 또는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수련 및 교육연수를 받고, 후반기에는 기독교/목회상담학회에 참석하여 자기개발은 물론, 상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방부 훈령 제1818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교육 및 전문성 제고 등) 제3항에 따르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군 내외 각종 교육 및 회의, 세미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등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는 운영부대장의 승인 후 출장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군종장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보장이 규정화되어야 한다.

미군의 경우, 장병들의 정신건강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군종목사는 ‘비임상 제공자’(non-clinical provider)로 분류된다. 군종목사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전문가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심리영적 문제의 전문가로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강박증, 망상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비롯한 장병들의 임상적인 증상을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Seddon, et al, 2011: 1357-61).

근래 미육군 군종목사들 가운데는 장병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미국 결혼 및 가족 치료협회’(AAMFT)에서 제공하는 가족상담, 결혼상담 및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임상수련을 받은 후,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들이 많이 있다(Norton & Soloski, 2015: 21-39). 군종목

사 재직 중, 결혼 및 가족치료사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고, 특별한 경우이기는 해도 장기복무 군종목사들에게는 이런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리라 본다(Ritchie, 2011: 163-70).

군종목사는 장병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설픈 전문가 흉내를 낸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라 할지라도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훈련을 받지 않은 목사는 어떤 종류의 상담도 해서는 안 된다.”(Patton, 2015)고 강경한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다. 이는 군종목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인 임상수련을 받고, 슈퍼비전을 받아 유능한 상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 결혼 및 가족치료협회’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결혼 및 가족치료사 전문자격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상담 및 치료에 있어서 “자신의 인정된 능력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 치료 또는 조언하지 않는다.”(Norton & Soloski, 2015: 21-39)고 명시하고 있다.

Harrison(2017: 33)은 군종목사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으로서 장병의 발달, 성격, 인지, 정서, 행동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서는 군종목사의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 군종목사는 높은 수준의 심리영적 문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당한 기법의 상담학적 문제해결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IV. 닫는 글

이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활동 동향분석을 통해 한국군 군종목사가 군대에서 어떤 상담자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방안을 모색한 연구였다. 군종목사는 ‘군복을 입은 성직자’라는 말과 같이 군인과 목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최근에는 ‘군인,’ ‘목사,’ ‘상담자’라는 삼중적 지위로 인식될만큼 상담적 임무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군은 군종목사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군은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특히, 미군 군종목사의 종교연락장교 임무는 한국군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군 군종목사들도 대민업무에서 더욱 전문성이 강조된 상담자로서 종교관련 민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심리영적 치유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는 불안, 공포가 팽배한 군의 극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전투손실을 막고,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복음전도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는 장병들에게 상담능력을 발휘하여 위로와 안위

를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갖도록 하고 기독교신앙을 수용하게 하는 목사 고유의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 군종목사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배와 설교는 물론, 상담을 통해 은연 중에 목사 고유의 사명감당 기회, 전도의 기회, 구원사역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방안으로 연구자는 군종장교 양성과정(초군반)이나 직무능력향상과정(고군반)에 상담관련 과목과 교육시간의 확장 및 상담자교육, 임상훈련 및 CPE 등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연구자는 군종목사들이 일반 상담학회와 연계하여 임상 지원체계에 따라 수련감독급 상담사들로부터 수련 받는 것을 군종목사의 상담직무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미군처럼 재직 중에 역량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군종목사들이 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향후,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군종목사의 상담과 정신건강전문가들(정신건강 의학과 군의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비교하여 장병들이 지각하는 상담만족도 및 변화의 정도 등을 측정하는 연구가 시행된다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군종목사 상담의 장점이 나타난 경우에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고 신장하는 자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군종목사가 활용하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어떤 신앙요소가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해결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한 연구결과들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파생될 수 있는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Allen, J. P., Nieuwsma, J. A. & Meador, K. G. (2014). The Role of Military and Veterans Affairs Chaplains in the Treatment of Alcohol Problems. *Pastoral Psychology*, 63(1), 1-11.
- Carson, M. L. S. (2018). Pastor as Counselor: Wise Presence, Sacred Conversation. *Journal of European Baptist Studies*, 18(2), 64-65.
- Chaika, O. & Dragan, O. (2022). Chaplain Service Pastor as A Special Kind of Public Service Military Officer in The Ukrainian Army Introduction. *Kościół I Prawo*, 11(2), 213-29.
- Cooper, D. C., Evans, C. A., Chari, S. A., Campbell, M. S. & Hoy, T. (2023). Military Chaplains and Mental Health Clinicians: Overlapping Roles and Collaborative Opportunities. *Psychological Services*, 20(1), 56-65.
- Davie, G. (2015). The Military Chaplain: A Study in Ambigu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Christian Church*, 15(1), 39-53.
- Eleonora, B. (2007). Religious and Spiritual Issues in Psychotherapy Practice: Training the Trainer.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44(1), 54-65.
- Gutkowski, S. & Wilkes, G. (2011). Changing Chaplaincy: A Contribution to Debate over the Roles of US and British Military Chaplains in Afghanistan. *Religion, State and Society*, 39, 111-24.
- Harrison, G. (2017). *Psycho-spiritual Care in Health Care Practice*.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Koenig, H. G. (2012). Religious versus Conventional Psychotherapy for Major Depression in Patients with Chronic Medical Illness: Rationale, Methods, and Preliminary Results.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460419, 1-11.
- Lee, W. S., Burke, C. J. & Crayne, Z. M. (2005). *Military Chaplains as Peace Builders: Embracing Indigenous Religions in Stability Operations*. Alabama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 Mason, K. (2014). *Preventing Suicide: A Handbook for Pastors, Chaplains and Pastoral Counselor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Mendenhall, M. (2009). Chaplains in Mental Health. *Annals of the American Psychotherapy Association*, 12(1), 8-13.
- Norton, A. M. & Soloski, K. L. (2015). Officer, Chaplain, Therapist: A Feminist Perspective on the Challenges of Supervising U.S. Army Chaplain-Therapists.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27(1), 21-39.

- Patterson, E. (Ed.) (2014). *Military Chaplains in Afghanistan, Iraq, and Beyon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 Patton, J. (2015). *Pastor as Counselor: Wise Presence, Sacred Conversation*. Grand Rapids: Abingdon Press.
- Phillips, R. (2004). The Military Chaplain in Time of War: Contours and Content of Ministry. *Quarterly Review*, 24(1), 47-58.
- Ritchie, E. C. (Ed.) (2011). *Combat and Operational Behavioral Health*. Fort Detrick. ML.: Borden Institute.
- Saunders, J. (2023). Spiritual Readiness: Essentials for Military Leaders and Chaplains. *Health & Social Care Chaplaincy*, 11(1), 133-35.
- Seddon, R. L., Jones E. & Greenberg, N. (2011). The Role of Chaplains in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Health of Military Personnel: A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Military Medicine*, 176(12), 1357-61.
- Stahl, R. Y. (2017). *Enlisting Faith*.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hitt, J. E. (2014). *Bringing God to Men: American Military Chaplains and the Vietnam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군종목사는 군대에서 어떤 상담자인가?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동향 분석을 통하여-

What Kind of Counselor is A Military Chaplain? -centering around the US. Military Chaplain's Role and Tendency Analysis

전 요 섭 (성결대학교)

논문초록

이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미군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과 동향 분석을 통해 한국군 군종목사가 군대에서 어떤 상담자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종목사는 ‘군복을 입은 성직자’라는 군인과 목사의 이중적 지위에서 근래에는 ‘군인,’ ‘목사,’ ‘상담자’라는 삼중적 지위로 인식될만큼 상담적 임무가 부각되고 있다.

(1) 미군은 종교연락장교로서 군종목사의 상담자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미군 군종목사의 종교연락장교 임무는 한국군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한국군 군종목사들도 대민업무에서 더욱 전문성이 강조된 상담자로서 종교관련 민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2) 심리영적 치유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는 불안, 공포가 팽배한 군의 극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심리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비전투손실을 막고,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이다. (3) 복음전도를 위한 상담자로서 군종목사는 장병들에게 상담능력을 발휘하여 위로와 안위를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갖고 기독교신앙을 수용하도록 목사 고유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 군종목사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예배와 설교에서는 물론, 상담을 통해 목사 고유의 사명감당 기회, 전도의 기회, 구원 사역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연구자는 군종목사의 상담역량 강화방안으로 군에서 CPE가 더욱 강조, 강화되어야 하고, 양성과정(초군반)이나 직무능력향상과정(고군반)에 상담관련 과목과 교육시간의 확장 등 상담자교육 및 임상훈련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군종목사들이 상담학회와 연계하여 임상지원체계에 따라 수련감독급 상담사들로부터 수련받는 것을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미군처럼 재직 중에 역량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군종목사가 상담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군종목사, 기독교상담, 목회상담, 군상담, 정신건강, 미군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Theological Concepts of Young Children

김성원 (Sung-Won Kim)**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a scale to measure the theological concepts of young children. The process for developing a scale was as follows: First, sub-factors were chosen and 59 preliminary corresponding ques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irty-nine questions were extracted from eight experts through a content validity procedure. After conducting a preliminary survey with 25 young children using parental ratings to revise the wording of the questions, in the main survey, data from 421 young children were collected using the same method. After excluding data with a negligent manner, 406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Two-hundred seventy-seven copies were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229 copies were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rallel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JAMOV 2.3, SPSS 22, and AMOS 22. After analyzing construct validity, including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nd verifying reliability through Cronbach's α , an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the final extracted factors and items are as follows: 12 questions for 'understanding God and Jesus', 6 questions for 'understanding salvation and a life of companionship', 4 questions for 'understanding good and evil', and 3 questions for 'understanding spiritual disciplines'. It is hoped that this scale will be a useful tool for research and ministries in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a data source for evaluating the faith of young children.

Key words: young children, theological concepts, scale development, scale validation

* 2023년 8월 11일 접수, 9월 5일 최종수정, 9월 5일 게재 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부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sungwon1331@gmail.com

I. 서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은 신학이라 명명된다(서철원, 2018: 21). 조직신학자 Erickson(2013: 3)에 의하면, 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실재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a discipline of study that seeks to understand the God revealed in the Bible and to provide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reality)”라고 정의된다. 서철원(2018: 33-34)은 신학의 목적을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학을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심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지지한다고(Christian theology serves the Christian faith) 본 Härle(2012: 10)의 주장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신학의 분야 중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조직신학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체적으로 통일된 체계로 제공하는 학문이다(이승구·강웅산 역/Van Til, 2009: 25). Erickson(2013: 121-1104)은 조직신학의 내용으로 하나님, 인간, 죄,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종말론을 제시하였다. 조직신학에서 파생된 신학적 개념은 성도의 현세와 내세에서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eers, 1986). 구체적으로, 성경의 진리 체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경우 이단에 대한 최선의 방어가 되며(송지섭, 2022; 이승구·강웅산 역/Van Til, 2009: 33), 더 나아가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이승구·강웅산 역/Van Til, 2009: 33). 또한 교육학을 실천함에 있어서 성경에 기초한 계시, 신론, 예수님, 성령론, 인간과 죄, 구원, 교회론 등은 기독교교육학의 체계적인 신학을 제공하고 교육의 목적, 교사와 학습자 이해, 교육과정, 환경,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Estep Jr., Anthony & Allison, 2008: 2-3).

신학적 개념은 성인뿐 아니라 유아에게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신학적 개념이 미래 신앙적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유아가 신학적 개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때 그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 언어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아기에는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등으로 명명하여 기독교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권기수, 2013). 인지적으로 획득하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 교리교육의 내용이 이미 체화한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의 영적 지형도와 조화를 이룰 때 유아의 신앙은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차원에서 통합되는 전인적 신앙으로 성장될 수 있다(주연수, 2019). 유아의 신앙 형성에 관하여 기독교교육 박사와 교회교육 전문가 18명을 면담한 연구에서 신학적 개념의 이해기 유아 신앙의 특징 중 하나로 도출되었다(김성원, 2020a). 이 연구에서 도출된 75개 서술문의 중요도를 5점 평정척도로 평가한 후속연구에서 4.7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15개의 서술문을 추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학적 개념 이해, 종교적 행위, 가정의 신앙교육, 교회의 신앙교육으로 유목화되었다(김성원, 2022).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개념은 유아기 신앙에서 중요도가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유아기 신학적 개념의 내용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은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경우와 이혜상(1988)은 유아를 위한 신학적 개념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죄와 죄사함, 부활, 영생, 성경, 예배(기도, 헌금, 찬송)를 제시하였다. 예수님 개념의 내용에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다’ 등이 포함된다. 김성원(1999)은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 기도, 교회, 성경, 죽음과 사후세계로 구성되었으며, 예수님에 관한 문항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등이었다. 권기수(2013)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개념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 예배, 창조, 믿음과 신앙생활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가 제안한 예수님 개념 문항에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OO의 죄(잘못)가 용서받았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니?’ 등이 포함된다. Beers(1986)는 4-5세 유아가 배워야 할 개념을 하나님, 예수님, 성경, 가정과 부모, 교회와 주일학교, 타인, 천사와 마지막 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안된 예수님 개념에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Jesus is now living in heaven)’,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Jesus is always with me)’, ‘예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Jesus can help me do hard things)’ 등이 포함된다. McQuitty(2008)는 유아가 하나님, 예수님, 성경, 교회, 자신, 타인, 가족, 자연세계에 관한 기본적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으로 학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녀가 제시한 예수님 개념에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다(Jesus performed miracles and healed the sick)’가 있다. 미국 침례교단 출판사인 Lifeway에서는 유아가 배워야 할 신학적 개념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경, 창조, 가족, 자신, 공동체와 세상을 제시하였다. 소개된 예수님 개념에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했다(People in the OLD TESTAMENT times told that Jesus would be born)’,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God sent Jesus to earth because He loves us)’,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Jesus wants people to love and to obey Him)’ 등이 포함된다.

유아기에 배울 신학적 개념의 내용에 대한 제안이 여러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를 측정하는 연구는 주로 하나님 개념에 집중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김민정(2019)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영

유아가 인식하는 하나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rett, Richart와 Driesenga의 크래커 실험, Petrovich의 사진변별 실험, Petrovich의 자연기원반응 실험을 실시하였다. 크래커 실험에서 “크래커 상자에 돌 넣은 것을 엄마와 하나님이 아실까?”라는 질문에 “엄마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답한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사진변별 실험에서는 인공물과 자연물 사진을 보여주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것을 구분한 경우 1점, 아닌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자연기원반응 실험에서는 식물, 동물, 하늘, 땅 등 자연물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을까?”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 의해’, ‘모르는 존재에 의해’, ‘모르겠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왜 이것은 하나님/인간/모르는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을까?” 또는 “왜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까?”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변별할 경우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2-5세라고 밝힌 이 연구에서 자연기원반응 실험의 두 번째 질문, 이것이 OO에 의해 만들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이 2-3세에게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사진변별 실험에서처럼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인공물과 자연물 창조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측정되는 것의 신학적 건전성에 의문이 들었다.

송영란(2005)은 Fowler와 Goldman이 사용한 면접문항을 참고하여 하나님, 예수님, 하늘나라, 기도, 성경, 용서 등에 관한 28개의 질문을 통해 유아의 신앙 발달 수준을 파악하였다. 유아가 무응답하거나 ‘모른다’고 하면 0점을, 전조작적 종교적 사고는 1점, 구체적 조작적 종교적 사고를 대답한 경우는 2점을 배당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니?”에 대한 답으로 ‘전지전능하신 분’, ‘어느 곳이나 계신 분’이라고 반응할 경우 2점, ‘착하신 분’, ‘좋은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답할 경우 1점, ‘몰라요’나 무응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니?”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적들(소경, 병자들을 고치심)’은 2점, ‘우리를 도와주심’은 1점, ‘몰라요’나 무응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첫 번째 문항의 경우 질문과 예시 답변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문항의 예시 답변에서 전조작적 사고와 구체적 조작적 사고 구분의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오영희와 정미(2009)의 연구 그리고 이해정과 김미경(2010)의 연구에서도 송영란이 개발한 자료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유아의 신앙 발달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평정자가 유아의 반응을 전조작기적 종교적 사고와 구체적 조작기적 종교적 사고로 구분하여 평정하는 방법은 국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Goldman의 종교적 사고발달 단계를 따르는 것인데, 5-7세 유아들은 직관적 종교기에 해당하며 비조직적이고 단편적, 자기중심적, 단순 및 비종합적, 그리고 관계가 없는 개념을 연결하는 성향인 변환적 특징이 있다. 8세에 접어들면서 시작되는 구체적 조작기에는 귀납적 논리와 인과관계 인

식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사고가 구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경험, 감각적 자료에 머무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양금희, 2011: 125-126, 128-130). 전술한 바와 같이 점수 부여의 기준으로 제시된 예에서는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의 모호함과 개방형 답 중에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의 처리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고은님(2008)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유아의 신앙을 측정하기 위해 천지창조,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 구원,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15개 문항을 선정하여 그림과 함께 사용하였다. 유아의 답변을 미분화 사고, 전개념적 사고, 직관적 사고, 구체적 사고로 구분하였던 Krych의 방법을 따라 0-3점을 부여하였다. 학술지로 발표된 후속연구에(고은님, 2010) 소개된 점수 부여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라는 질문에 ‘몰라요’나 무응답(미분화 사고)은 0점, ‘(그림을 보며) 토끼, 사자’(전개념적 사고)는 1점, ‘찰흙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똑딱똑딱 만들었어요’(직관적 사고)는 2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구체적 사고)는 3점. 송영란이 시도했던 점수 부여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준으로 유아의 사고력과 신앙을 판단하는 방법은 신학적, 논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국내에서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한 사례로는 권기수(2013)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그는 유아의 기독교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하나님 13문항, 예수님 5문항, 성령님 3문항, 기도 6문항, 예배 3문항, 창조 4문항, 믿음과 신앙생활 5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문항 중 ‘1. OO는 하나님을 믿나요?’, ‘22. OO는 기도를 하고 있니?’, ‘26. 기도할 때 친구나 가족, 교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 ‘27. 집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니?’, ‘29. 주일교회학교 예배에 참석하니?’ 등이 유아의 기독교 개념 측정에 적절한 문항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또한 ‘5. 하나님은 OO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계시까?’, ‘10. 하나님이 OO를 사랑하시는 것을 못 느끼니?’, ‘19.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21.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25. 하나님께서 OO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니?’, ‘38.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니?’ 문항의 발달적, 신학적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사와 공인타당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긴 하나, 측정도구 개발에 요구되는 요인분석이라는 과학적 검증 과정이 생략된 점은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유아기 신앙 발달 이론을 제시함에 있어 전문가들이 하나님, 예수님, 인간, 죄와 구원, 교회, 성경 등 신학적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제안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는 주로 하나님 개념에 집중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Goldman과 Fowler의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와 면담 또는 설문한 반응을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거나 권기수(2013)의 기독교 신념 측정도구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은 이미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수

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알아야 하는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적 개념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의 구성 및 하위요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421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완성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40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 전공자나 측정도구 개발자들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같은 자료로 실행함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별개의 자료로 실행할 것을 추천한다(Fokkema & Greiff, 2017; Lorenzo-Seva, 2022). 특별히 Lorenzo-Seva는 카이저의 법칙(Kaiser's rule)을 사용한 솔로몬(SOLOMON) 방법으로 자료를 분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을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277부를, 확인적 요인분석에 229부를 사용하였고, 설문자료의 양이 충분치 않은 이유로 100부는 두 가지 요인분석에 중복으로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남아가 123명, 여아가 154명이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남아가 107명, 여아가 122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Table 1에 소개하였다.

Table 1. 연구대상 배경 (N= 277, 229)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ategory		N	%	Category		N	%
Gender	Boys	123	44.40	Gender	Boys	107	46.72
	Girls	154	55.60		Girls	122	53.28
Month	39-47 months	0	0	Month	39-47 months	6	2.62
	48-59 months	78	28.16		48-59 months	62	27.07
	60-71 months	95	34.30		60-71 months	75	32.75
	72-83 months	104	37.55		72-83 months	86	37.55

2. 연구 절차

유아를 위한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의 절차는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한 구성요인 선택 및 그에 해당하는 예비문항 개발, 내용타당도 검사, 예비 조사, 본 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순이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성요인 추출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은 구성요인 결정 및 그에 해당하는 예비문항 작성을 위해 해당 주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고은님, 2008; 권기수, 2013; 김성원, 2020b; 이경우·이혜상, 1988: 149-156; Anthony, 2001; Beers, 1986; Cunningham, 1992; Life-way; Tamminen, 1992: 358-361; Trent, Osborne, & Bruner, 2000: 119-120)를 분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연구자들이 유아기에 배워야 할 신학적 개념의 구성요인 및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제안을 하나,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분석, 종합하여 신학적 개념으로 빈번하게 제시되었던 하나님, 예수님, 인간, 성경, 교회, 사후세계/구원, 기타를 구성요인으로 선정하고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교리에 대한 유아의 이해와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2) 문항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증

선행연구의 내용 및 연구자의 지식 및 경험을 반영하여 하나님, 예수님, 인간, 성경, 교회 사후세계/구원 등에 해당하는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은 하나님 21문항, 예수님 9문항, 인간 6문항, 성경 3문항, 교회 4문항, 사후세계/구원 7문항, 기타 9문항으로 총 59문항이었다. 기타 문항의 예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가르칠 부모님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등이었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기독교교육 박사 5명과 유아교육 박사로서 신학대학 교수, 교회 부설 유치원 원장, 선교사로서 기독교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3인으로부터 2020년 11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평가를 받았다.

(3)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사를 통해 추출 및 수정·보완된 문항으로 2020년 11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2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과정에서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평정하기에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하나님은 죄에 대해 벌하신다’를 ‘하나님은 죄

를 미워하신다’로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를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2023년 4월 17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및 1차 본 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COVID-19로 인해 주일학교 참석이나 유아교육기관 등원이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어서 부모가 각 문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1점-아니다, 2점-아닌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그렇다) 평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회수된 421부 중 중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응답지를 제외하고 40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277부,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229부를 사용함으로 100부가 중복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JAMOV 2.3, SPSS 22.0,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우선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선 분석(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출 요인분석을 요인추출 방법으로, 직접 오블리민을 요인회전 방법으로 선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표준화계수,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 값을 구하여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았다.

III. 연구 결과

1. 측정도구의 구성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의 예비문항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하나님, 예수님, 인간, 성경, 교회, 사후세계/구원, 기타에 해당하는 59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기독교 교육 박사 5인과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기독교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아교육 박사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점수가 높은 37문항을 추출하고 2문항을 추가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전문가에 의해 추가된 문항이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

름을 알고 계신다; 모든 사람을 지켜보는 일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내가 캄캄한 곳에 숨으면 보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만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벌하신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 우리처럼 자라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특별하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 지옥은 실제로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가르칠 부모님을 주셨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거나 때를 쓰는 것은 죄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예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또한 평정 점수는 높으나 표현이 어색하다고 평가된 5문항을 수정하였는데, 그 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부자나 가난한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신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를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를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로 수정함 등이다. 39문항으로 설문한 자료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12문항,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 6문항, ‘선과 악에 대한 이해’ 4문항,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 3문항, 총 25문항을 최종 요인과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

(1)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KMO 값이 .95으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검정치는 7226.92(df=300,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Jamovi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행선 분석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할 자료의 하위 요인이 4개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 후 주축 요인추출을 추출 방법으로, 직접 오블리민을 회전 방법으로 선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 .40 미만과 교차부하 문항을 삭제하여 전체 변량 70.87%을 설명하는 4요인 25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결과의 네 번째 요인의 아이겐 값은 기준치인 1을 초과하지 못함에도, 즉 Kaiser 법칙에 위반됨에도 결과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 근거는 Kaiser 법칙의 한계를 제시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방법으로 평행선 분석을 제시

한 선행연구(서원진 외, 2018: 180)에서 발견된다. 연구자들은 평행선 분석과 스크리도표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이러한 절차와 원리를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3.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4.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 12. 하나님도 늙고 병들 수 있다; 18.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21. 성경은 사람들에게 구원받는(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22. 착한 사람은 죄가 없다; 23.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27.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창조물, 사람, 우리나라)을 돌볼 것을 원하신다; 28. 하나님은 잘못(죄)에 대해 뉘우치면 용서하신다; 32.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34.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35.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진짜)이다; 37.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소중하다; 38. 착한 일을 하면 천국(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60.51%의 설명력을 갖는 1요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명명하였으며,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95%의 설명력을 보이는 2요인은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로 명명하였다.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3.08%를 설명하는 3요인은 ‘선과 악에 대한 이해’로 명명하였고, 마지막으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2.33%의 설명력을 갖는 4요인은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로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Table 2. 탐색적 요인분석

Factor	Item	Factor				Communality
		1	2	3	4	
Understanding God & Jesus	6. God can heal a sick person.	.78	-.07	.24	.24	.77
	2. God keeps his promises.	.76	-.09	.02	.01	.66
	11. God is good and loving.	.74	.08	.01	-.19	.70
	8. A church is a place to praise and worship God.	.72	-.17	-.11	-.12	.68
	39. God wants all people (the rich and poor, people of all colors) to believe in Jesus.	.71	-.19	-.08	-.11	.71
	5. Children of God should lov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63	.01	.23	-.11	.74
	25. God made the mountains and the sea.	.58	-.29	.01	-.12	.72
	13. Jesus helped the poor and needy.	.57	.27	.17	-.23	.52
	7.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56	-.10	.13	-.22	.74
	26. The church is a place where people who love God gather.	.51	-.03	.09	-.31	.65
	24. Jesus does miracles (healing illnesses, preventing accidents).	.50	-.20	.36	.09	.76
	31. God sent Jesus to forgive everyone's sins.	.43	-.22	.30	-.03	.70

Understanding salvation & companionship	1. God is not visible, but He is real.	.34	-.64	.03	.04	.77
	19. Someday, Jesus will come back to Earth.	.04	-.60	.29	-.18	.82
	30. God is always with me, even when I am in the kindergarten or child-care center.	-.07	-.58	.27	-.10	.59
	29. Jesus died on the cross and came alive again.	.35	-.56	.11	-.00	.77
	20. You can go to heaven if you believe in Jesus.	.15	-.53	.19	-.21	.74
	16. Jesus can help me.	.11	-.46	.20	-.34	.75
Understanding good & evil	9. God hates sin.	.00	-.04	.75	.03	.58
	33. When we choose to sin, Jesus is sad.	.11	-.13	.74	.01	.80
	36. Sin is doing what I want and not caring what God thinks about it	.14	-.09	.71	.02	.72
	14. Humans were created to worship God.	-.08	-.03	.68	-.35	.73
Understanding spiritual discipline	10. Heaven is a beautiful and joyful place.	.21	-.13	.02	-.60	.67
	15. The Bible is the book about God.	.28	-.03	.22	-.56	.82
	17. Church is where we learn about God.	.19	-.15	.09	-.55	.64
Eigenvalue		15.41	1.56	1.06	.89	
% of Variance		60.51	4.95	3.08	2.33	
Total variance		60.51	65.46	68.54	70.87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모형에 대하여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모델 평가 방법은 χ^2 값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145-147). χ^2 값은 738.13(df=269, $p<.001$)로 나타났는데, χ^2 값은 자료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증분적합지수 TLI와 CFI 그리고 절대 적합지수 RMR, G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의 값은 RMR=.02, GFI=.80, TLI=.89, CFI=.90, RMSEA=.09로 일부 계수가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지수를 확인하여 값이 높게 나타난 'e20<->e21'(21.18)에 해당하는 문항의 의미가 유사함(33번 문항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36번 문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죄다)을 확인 후 공분산으로 연결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측정변수 간 상관잔차가 높게 나타난 경우, 측정변수들이 고유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기에 측정오차 간 상관을 부여할 수 있다는 Kline의 제안(2019: 384)을 따름이다. 수정 후의 적합도 지수의 값은 $\chi^2=705.59$ (df=268, $p<.001$), RMR=.02, GFI=.81, TLI=.90, CFI=.91, RMSEA=.09로 대부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는 Table 3에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Figure 1에 제시되었다.

Table 3. 모형적합도

Model	χ^2	df	RMR	GFI	TLI	CFI	RMSEA
Original	738.13	269	.02	.80	.89	.90	.09
Modified	705.59	268	.02	.81	.90	.91	.09
Cut-off			<.05		>.90		.6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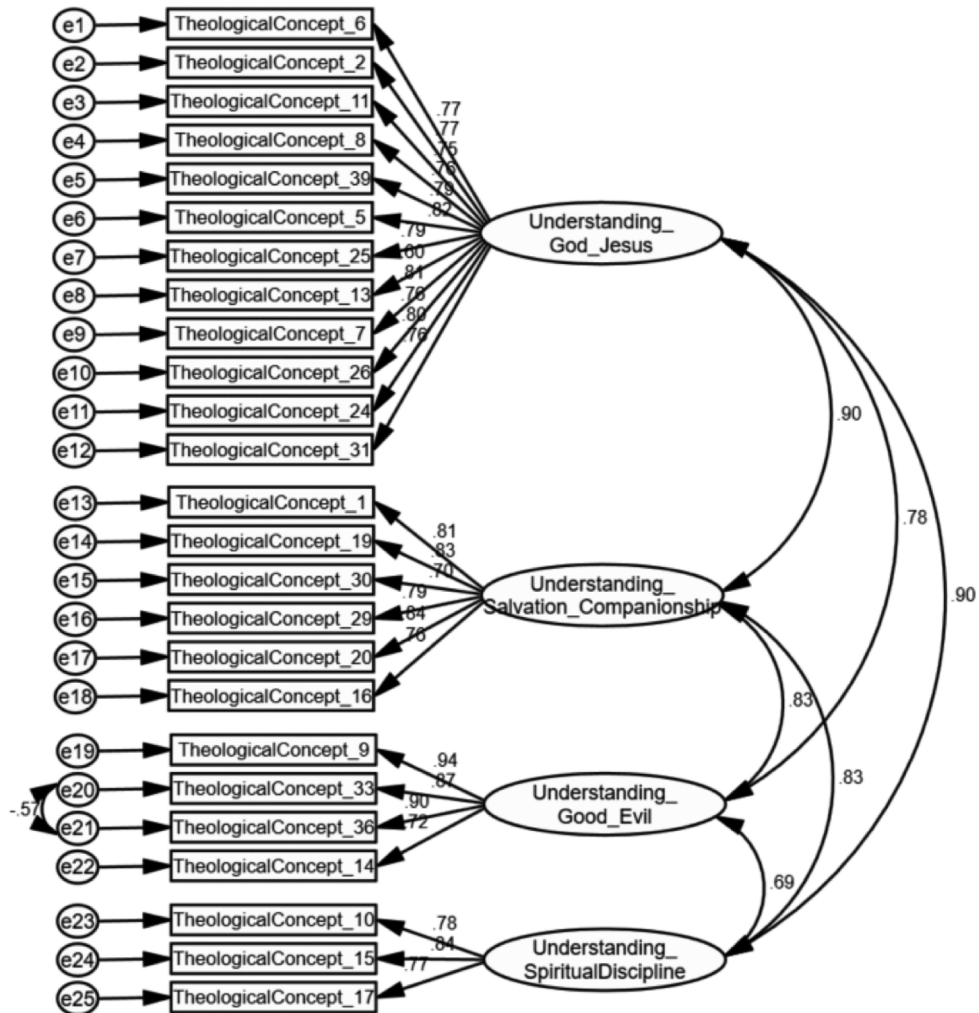


Figure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3) 집중타당도

집중타당도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한다. Table 4에 제시된 집중타당도 검증의 모든 지표는 표준화 계수 .50 이상, 평균분산추출(AVE) 지수 .50 이상,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지수 .70 이상이라는 기준치(우종필, 2022: 16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모든 경로가 .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집중타당도

Factor	Item	Estimate		S.E.	C.R.	AVE	Construct Reliability
		B	β				
Understanding God & Jesus	Theological Concept_31	1.00	.77			.90	.99
	Theological Concept_24	1.09	.80	.08	13.13***		
	Theological Concept_26	.87	.77	.07	12.38***		
	Theological Concept_7	1.00	.81	.07	13.30***		
	Theological Concept_13	.74	.60	.08	9.29***		
	Theological Concept_25	.86	.79	.07	12.89***		
	Theological Concept_5	.92	.82	.07	13.53***		
	Theological Concept_39	.98	.79	.08	12.94***		
	Theological Concept_8	.74	.76	.06	12.34***		
	Theological Concept_11	.85	.75	.07	12.12***		
	Theological Concept_2	.98	.78	.08	12.57***		
Understanding salvation & companion-ship	Theological Concept_6	1.03	.77	.08	12.53***	.88	.98
	Theological Concept_16	1.00	.76				
	Theological Concept_20	1.20	.84	.09	13.39***		
	Theological Concept_29	1.18	.79	.09	12.53***		
	Theological Concept_30	1.21	.70	.11	10.83***		
Understanding good & evil	Theological Concept_19	1.40	.83	.11	13.25***	.91	.98
	Theological Concept_1	1.30	.81	.10	12.96***		
	Theological Concept_14	1.00	.72				
	Theological Concept_36	1.37	.90	.10	13.53***		
Understanding spiritual discipline	Theological Concept_33	1.22	.87	.09	12.96***	.92	.97
	Theological Concept_9	1.35	.94	.09	14.29***		
	Theological Concept_17	1.00	.77				
	Theological Concept_15	1.02	.84	.08	13.28***		
	Theological Concept_10	1.05	.78	.09	12.22***		

*** $p < .001$

(4) 판별타당도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요인 1)’와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요인 2)’의 상관계수는 .82($p<.01$),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선과 악에 대한 이해(요인 3)’의 상관계수는 .77($p<.01$),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요인 4)’의 상관계수는 .80($p<.01$)로 나타났다. 또한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와 ‘선과 악에 대한 이해’의 상관계수는 .79($p<.01$),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와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의 상관계수는 .71($p<.01$), ‘선과 악에 대한 이해’와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의 상관계수는 .66($p<.01$)로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수의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큰 경우 입증될 수 있는데(우종필, 2022: 169), 본 연구에서 모든 잠재변수의 AVE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Table 5. 판별타당도

	Factor 1	Factor 2	Factor 3	AVE
Factor 1				.90
Factor 2	.82**			.88
Factor 3	.77**	.79**		.91
Factor 4	.80**	.71**	.66**	.92

** $p<.01$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4개 요인 25개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Cronbach's α 값은 1요인 .94, 2요인 .90, 3요인 .91, 4요인 .84, 그리고 전체는 .97로 나타났다.

Table 6. 신뢰도

	Items	Cronbach's α
Factor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	.94
Factor 2	13, 14, 15, 16, 17, 18	.90
Factor 3	19, 20, 21, 22	.91
Factor 4	23, 24, 25	.84
Total	1-25	.97

* Final Item number

4. 최종 문항

이상에서 제시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도출된 유아용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는 4요인, 25문항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Table 7에도 제시되었다: 요인 1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1.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 2.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3.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4.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다; 5. 하나님은 모든 사람(부자나 가난한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신다; 6. 하나님의 자녀는 친구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7. 하나님은 산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다; 8.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셨다; 9.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0.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11. 예수님은 기적(병 고침, 사고 예방)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12.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요인 2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 13.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계신다; 14.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15. 하나님은 내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16.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다; 17.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18.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요인 3 선과 악에 대한 이해- 19.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20.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21.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죄다; 22.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요인 4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 23. 천국(하늘나라)은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다; 24.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25.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곳이다.

Table 7. 최종 요인 및 문항

Factor	Item
Understanding God & Jesus	1. God can heal a sick person.
	2. God keeps his promises.
	3. God is good and loving.
	4. A church is a place to praise and worship God.
	5. God wants all people (the rich and poor, people of all colors) to believe in Jesus.
	6. Children of God should lov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7. God made the mountains and the sea.
	8. Jesus helped the poor and needy.
	9.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10. The church is a place where people who love God gather.
	11. Jesus does miracles (healing illnesses, preventing accidents).
	12. God sent Jesus to forgive everyone's sins.

Understanding salvation & companionship	13. God is not visible, but He is real.
	14. Someday, Jesus will come back to Earth.
	15. God is always with me, even when I am in the kindergarten or child-care center.
	16. Jesus died on the cross and came alive again.
	17. You can go to heaven if you believe in Jesus.
Understanding good & evil	18. Jesus can help me.
	19. God hates sin.
	20. When we choose to sin, Jesus is sad.
	21. Sin is doing what I want and not caring what God thinks about it
Understanding spiritual discipline	22. Humans were created to worship God.
	23. Heaven is a beautiful and joyful place.
	24. The Bible is the book about God.
	25. Church is where we learn about God.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학적 개념을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교리에 대한 유아의 이해와 신념’으로 정의하고 수행되었다. 측정도구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 유아 신학적 개념을 측정함에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 ‘선과 악에 대한 이해’,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라는 하위요인과 이에 해당하는 25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하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측정도구의 구성 및 타당화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측정도구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하위요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여기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산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기적을(병 고침, 사고 예방)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등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다. 이 요인은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가장 많은 문항을 포함하고 가장 큰 변량을 설명하기에 중요도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신학적 개념에 대해 연구했던 기독교교육자 대부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이 시기에 배워야 할 중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권기수, 2013; 이경우·이혜상, 1988; Beers, 1986; Lifeway; McQuitty, 2008). 유아 신앙에 관하여 전문가들과의 면담 결과 중 중요도가 높은 내용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기,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아버지임을 고백하기,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식하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고백하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김성원,

2022).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학적 개념 이해가 다양하게 포함되었던 이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아 신학적 개념의 두 번째 하위요인은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로 명명되었으며, 여기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요인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사후세계 그리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현재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경우와 이혜상(1988)은 ‘죄와 죄사함’을 ‘하나님’, ‘예수님’과 별도의 구성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예수님’ 개념 중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와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포함되어 있고, ‘죄와 죄사함’ 개념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잘못을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어린이는 죄를 짓은 것(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할 수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와 같이 구원이 별도의 요인으로 구별되지는 않지만 신학적 개념을 제시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 등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김기수, 1993 ; Anthony, 2001 ; Beers, 1986 ; Trent, Osborne, & Brune, 2000: 120)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나 예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개념은 별도의 요인으로 구별하여 제시되지는 않으나, 유아기에 알아야 할 개념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Beers(1986)가 ‘예수님’ 개념에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Jesus is always with me)’와 ‘예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하도록 도우신다(Jesus can help me do hard things)’의 문항을, 이경우와 이혜상(1988)이 ‘예수님’ 개념에 ‘예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다’를 제시한 것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 신학적 개념의 세 번째 하위요인은 ‘선과 악에 대한 이해’이며, 여기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죄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등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죄에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교육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아기 신앙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 중 하나는 신학적 개념의 이해였고, 여기에는 하나님, 예수님 · 구원, 선악의 분별, 기타가 포함되어 있었다(김성원, 2020a). 선악의 기준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유아기는 삶을 살아가는 규칙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배워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뜻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에 따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길 기대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Self(1986) 역시 4-5세 유아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며 유아의 양심은 자신에 대한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작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유아는 불순

종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경우와 이해상(1988)은 유아기 신학적 개념으로 ‘죄와 죄사함’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죄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과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린이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불친절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등을 죄 또는 죄사함에 관련된 개념으로 제시된 바 있다. 유아기에 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발견과 연구자들의 제안은 본 연구의 발견과 부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마지막 하위요인은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이며 여기에는 ‘천국(하늘나라)은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곳이다’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료와 장소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의 속성을 나타냄이다.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가 신학적 개념에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나, Beers(1986)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The Bible tells about God)’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곳이다(Church is a place where we learn about God)’이라는 본 연구의 문항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5-6세가 알아야 할 신학적 개념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경우와 이해상(1988) 역시 ‘성경’ 개념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린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를 포함시켰다. 유사하게 Anthony(2001)가 4-5세를 위한 영적 진리에 ‘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다(I can learn about God and Jesus in God’s Word-the Bible)’를 포함시킨 것을 본 연구의 발견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유아 신학적 개념의 내용은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받거나 연구자들이 제안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측정도구의 타당화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4개의 구성요인은 70% 이상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60% 이상의 요인 적재량이 나타나는 경우 요인의 설명력은 넉넉하다고 보기에(노경섭, 2019: 159)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적합도 지수 RMR, TLI, CFI가 기준치를 상회함을 확인하여 본 측정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요인부하량과 유의도, 평균분산추출 및 개념신뢰도 지수를 확인하여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제곱과 평균분산추출 지수를 비교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각 하위요인 및 전체 신뢰도 값이 모두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

라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무리 없이 측정하는 일은 수월한 과제가 아닌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요인 구성 및 그에 해당하는 예비문항 개발, 내용 타당도 검증, 예비 조사, 본 조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사의 절차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였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설문자료 중 100부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 중복적으로 사용한 점과 모형적합도 지수 중 GFI와 RMSEA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주일학교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유아의 신앙을 평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교사 평정용 측정도구 개발 시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 평정 자료를 활용하여 공인타당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본 연구의 결과가 유아 신앙 확인의 지표, 유치부 교육 방향 및 실제의 적절성 판단 기준, 교육과정 구성의 디딤돌 등으로 활용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유아 신앙에 관한 후속연구에서 활용되고 유아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신앙 교육의 지표로써 활용되어 성경적·발달적으로 건강한 사역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은님 (2008). **유아를 위한 성경에 기초한 교회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고은님 (2010). 유아를 위한 교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189-212.
- 권기수 (2013). **유아의 기독교 개념의 측정 및 발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김민정 (2019). **영유아가 인식하는 하나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성원 (1999). **유아의 연령과 부모의 신앙교육 정도가 유아의 신학적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성원 (2020a). 유아 신앙 형성에 관한 탐색적 질적 연구: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인식한 유아 신앙. **신학과 실천**, 68, 411-449.
- 김성원 (2020b). 유아가 인식하는 신앙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3, 283-315.
- 김성원 (2022). 유아기 신앙 특성 및 요인에 관한 혼합연구. **기독교교육논총**, 70, 175-206.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경섭 (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개정증보판). 서울: 한빛 아카데미.
- 서원진·이수민·김미리혜·김제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 서철원 (2018).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1: 신학서론**. 서울: 쿤란출판사.
- 송영란 (2005). **유아의 신앙발달과 친사회적행동 발달 증진을 위한 성경동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송지섭 (2022). 신천지에 대처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65, 73-100.
- 양금희 (2011). **기독교 유아·아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오영희·정미 (2009). 성경 이야기 극화활동이 유아의 신앙발달과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문논총**, 26, 123-149.
- 우종필 (202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개정판). 서울: 한나래.
- 이경우·이혜상 (1988). **유아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승구·강웅산 역 (2009). **조직신학 서론**. Van Til, C. (2007).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고양: 크리스찬출판사.
- 이현숙·장승민·신혜숙·김수진·전경희 역 (2019). **구조방정식 모형 원리와 적용**.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서울: 학지사.
- 이혜정·김미경 (2010). 창조 요소에 기초한 명화 감상이 유아의 신앙 발달에 미치는 효과. **신앙과 학문**, 15(2), 153-175.

- 주연수 (2019). 영·유아기 영성함양을 위한 기독교적 형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58, 243-283.
- Anthony, M. (2001). Childhood education. In M. J. Anthony (Ed.). *Introducing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p. 205-216).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Beers, V. G. (1986). Teaching theological concepts to children. In R. E. Clark, J. Brubaker & R. B. Zuck (Ed.)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pp. 363-379). Chicago: Moody Press.
- Cunningham, S. M. (1992). The Christian education of children. In M. J. Anthony (Ed.). *Foundations of Ministry* (pp. 137-158). Wheaton, IL: Victor Books.
- de Roos, S. A. (2006). Young children's God concepts: Influences of attachment and religious socialization in a family and school context. *Religious Education*, 101(1), 84-103.
- Dickie, J. R., Eshleman, A. K., Merasco, D. M., Shepard, A., Vander Wilt, M. & Johnson, M. (1997).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images of God.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1), 25-43.
- Erickson, M. J. (2013). *Christian Theology* (3r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Estep, Jr. J. R., Anthony, M. J. & Allison, G. R. (2008).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B & H Academic.
- Fokkema, M. & Greiff, S. (2017). How performing PCA and CFA on the same data equals trouble: Overfitting in the assessment of internal structure and some editorial thoughts on i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3, 399-402.
- Härle, W. (2012). *Outline of Christian Doctrine: An Evangelical Dogmatic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LifeWay. *Levels of Biblical Learning*.
- Lorenzo-Seva¹, L. (2022). SOLOMON: A method for splitting a sample into equivalent subsamples in factor analysis. *Behavior Research Methods*, 54, 2665-2677.
- McQuitty, M. (2008). Teaching preschoolers. In W. R. Yount (Ed.).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2nd ed.) (pp. 285-302).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 Self, M. M. (1986). Understanding fours and fives. In R. E. Clark, J. Brubaker & R. B. Zuck (Ed.)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pp. 109-124). Chicago: Moody Press.
- Tamminen, K. (1991). *Religious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Youth: A Empirical Study*.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 Trent, J., Osborne, R. & Bruner, K. (2000). *Spiritual Growth of Children*.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Theological Concepts of Young Children

김성원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확인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측정도구 개발의 절차는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구성요인을 결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59개의 예비문항 개발하여 내용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8명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내용타당도 검사를 통해 39개 문항을 추출한 후 2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평정을 통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에서 일부 문항의 표현을 수정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421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40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에 277부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에 229부를 사용하였다. JAMOV 2.3, SPSS 22, 그리고 AMOS 22를 사용하여 평행선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포함하는 개념타당도 분석 및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사용한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 추출된 요인 및 문항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해당하는 12문항,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에 해당하는 6문항, '선과 악에 대한 이해'에 해당하는 4문항, 그리고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에 해당하는 3문항. 본 측정도구는 유아의 신앙을 확인하는 자료로써 기독교 유아교육 분야의 연구와 사역에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 측정도구 타당화

기독교적 교수-학습 모형 탐색: D. I. Smith의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

**A Study on a Model of Faith-Informed Teaching: Teaching as a
Christian Practice by D. I. Smith**

유은희 (Eun Hee Yoo)**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attempts to desig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by D. I. Smith, director of the Kuyers Institute for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and professor of education at Calvin University. While it is inappropriate to present his various and complex approaches as a single model because he does not label them as such, it is still beneficial to explore his approaches in order to expand and deepen the discussion of faith-informed teaching and learning beyond reframing curriculum from a Christian worldview, illuminating content and issues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emphasizing the character and modeling of the Christian teacher, and suggesting pedagogical principles and methods appropriate to Christian principles and premises. His theory draws on McIntyre'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ractice in the formation of habits and virtues, Wenger's pedagogical reflections on communities of practice using concepts such as identity, repertoire, participation and reification, and Dykstra's theological reflections on the formative power of Christian practices and faith community. Smith suggests to think of pedagogy as building a pedagogical home where teachers and students engage and participate in certain rhythms of life and by doing so, they are formed. To design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he proposed three strategies: seeing anew, choosing engagement, and reshaping practice. Incorporating the definition of social practice by MacIntyre, teaching Christianly is a complex, coherent practice with an intrinsic good: to help students grow as a whole person

* 2023년 8월 11일 접수, 9월 5일 최종수정, 9월 5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충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기독교교육과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eunhe.eyoo@gmail.com

and disciples of Christ. It is a historical practice that has been practic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community in the Old Testament, and it is a social practice that can be learned and done in a more fitting and mature way by practicing it with mentors and peers within the community of practice.

Key words: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 Christian worldview, imagination, practic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 들어가는 말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기독교적 학문함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제임스 스미스(J. Smith)가 젊은 칼빈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2010)에서 말하듯이 처음 개혁주의 전통에 입문한 사람들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우물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피조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비롯해서 “거룩한 지적인 모험을 격려”하는 전통을 만나게 된다(2010: 2, 3). 만물을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다”(Kuyper, 박태현 역, 2020: 71). 하나님의 주권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에도 잘 드러난다(롬 11: 36). 죄의 영향이 총체적이듯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구원뿐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인정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내에 있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동기는 종교성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혹은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행해질 수 있기에 신앙은 학문함과 교육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활동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김성수, 2015 ; Dooyeweerd, 2012).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고전 10: 31),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하는 것(고후 10: 5)은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그렇기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상에는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듯이 거듭난 사람이 하는 학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학문, 두 종류의 학문이 존재한다고 한다. 반틸의 경우에도 학문뿐 아니라 교육에도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하는 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 사이에는 상반성(antitheses)이 존재하고 그 대립은 교육철학뿐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생을 보는 관점과 교사의 권위 등 모든 면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Van Til, 이경섭 역, 2017).

그러나 동시에 개혁주의 신앙은 일반은총 교리를 간과하지 않는다. 니콜라스 월터스톨프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반틸의 주장 그리고 거듭남과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철학적 전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독교적 학문함의 출발점은 다른 학문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신실한 학문을 추구함이라고 말한다(Wolterstorff, 신영순·이민경·이현민 역, 2014). 신실하게 학문을 추구한 결과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수학, 심리학, 혹은 과학과는 다른 수학, 다른 심리학, 다른 과학으로 판명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인해 유사할 수도 있다. 반틸도 교육의 결과와 관련해서 월터스톨프와 유사하게 일반은총의 영향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은혜 언

약, 믿음, 일반은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독교 교리 및 신학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뿐 아니라 기독교교육이라는 과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뒷받침해왔고, 그에 대한 실천으로 기독교적으로 학문하고 가르치는 노력은 발전해왔다. 더 나아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기독교적 재구성과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기독교학교를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서 신앙과 가르침을 통합하고자 하는 기독교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자료와 모형들이 소개되었다. 대표적인 모형들로는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 세계관 관점으로 단원을 재구성하는 브루멜론의 모델(Brummelem, 2009), 성경적 세계관의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합하여 수업계획안을 설계하도록 돕는 오버만과 존슨의 성경적 세계관 통합 수업 모델(Overman & Johnson, 2004), 성경의 내러티브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열 개의 주제와 단원 및 학습경험을 연결하도록 돕는 ‘변화를 위한 교육(Teaching for Transformation)’(Monsma, 2015),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큰 그림 모형으로 성경 이야기의 주요 주제이면서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될 수 있는 스물세 개의 주제를 교육과정과 연결하는 ‘디자인에 의한 변화(Transformation by Design)’(Dickens et al., 2017 ; Hanscamp et al., 2019)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철학적, 엘리트적, 주지주의적으로 사용되어 온 데 대한 비판적 성찰로 ‘사회적 상상력(social imagery)’이라는 표현을 선호하거나 전인식적 차원과 습관, 욕망, 몸을 포함하는 형성(formation)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고 있다(Smith, 박세혁 역, 2016 ; 2018). 또한, 백인 개혁주의 철학자들이 주도했던 기독교 학문과 예술의 흐름에 흑인 오순절 전통과 루터교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독교 전통의 참여로 기독교적 학문에 대한 보다 풍성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있다(Jacobson & Jacobsen, 2003 ; Van Til ; Daniel III, 2005).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해서도 교육의 목적과 철학, 교육과정의 내용을 신앙과 통합하거나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계관의 주제와 교과 내용을 연결시킬 뿐 학습경험에서 깊은 의미의 통합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교수 학습방법과 교수설계 차원에서의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여전히 미비함이 지적되고 있다(박은숙, 2010 ; 김정효 & 이해지, 2011 ; 이은실, 2013). 최근 기독교적 원리와 상응하는 교수방법이나 학습원리를 제안하는 논문들이 발표되는 것은 고무적이나, 교수-학습 상황에서 일어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실천과 학습경험의 미묘함과 복잡성에 신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스며들어 학생의 형성에 관여하게 되는 기독교적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통찰은 여전히 부족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틈새를 보충하면서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실행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확장하는 데 데이빗 스미스(D. I. Smith)의 접근이 공헌하는 바가 크다 판단하여 그의 접근을 탐색

하고자 한다.

스미스는 중등학교 제2외국어(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교사로 시작하여 칼빈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까지 지난 30년간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를 연구하고 실천하며 여러 나라의 기독교 교사들과 여러 전공의 교수들과 협업하여 기독교적인 수업을 개발해 왔다.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스미스는 자신의 접근을 하나의 모델로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접근을 활용했다. 대신 그의 연구와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그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떻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적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한다. 그 방식은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일 수도, 비유일 수도, 실천일 수도, 덕이나 내러티브일 수도, 영성이나 환대일 수도 있다. 물론 때로는 모델이 필요하지만 정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처방전이나 요리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론이 담긴 사례를 통해 비판적 실재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여러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교수-학습 과정을 관찰하며 “이것 한 번 보라, 흥미롭지 않은가?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뭐가 달라질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것인가?”와 같은 질문과 대화를 여는 것이라 했다(Smith,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27, 2023). 그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교수-학습이라는 실천의 복잡성을 단순하게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길 원치 않기에 그의 접근을 한 모델로 소개하는 데 조심스러움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가 기독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워크숍¹⁾의 주제명을 따라 그의 접근을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teaching as Christian practice)’으로 일시적으로 명명하고 그가 교사들을 돕는 데 활용하는 한 모델(What If Learning)을 소개하겠다(Smith, 2018 ; Cooling et al., 2016). 본 논문의 구성은 스미스가 가진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접근의 이론적 배경과 모델을 살펴보고, 결론으로 그의 접근의 함의에 대해 논의하되, 특히 실천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문제 제기

스미스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기독교적 학문의 발달과 학문활동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을 학문 분야와 통합시키는 연구에 비해 기독교적 가르침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1) 2023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 지역의 기독교학교 교사들과 칼빈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워크숍의 주제가 ‘Teaching as Christian Practice’ 였다.

교과내용에 초점을 두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의 신앙과 교수의 통합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 과정을 기독교적으로 성찰하고 재구성하는데 있어서나, 학생들의 지적인 형성뿐 아니라 영적 도덕적 형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내용의 기독교적 재구성보다는 교수-학습 과정과 실천에 초점을 둔 모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 기독교적 교수-학습에 관한 학문 활동의 양과 질의 문제

기독교적 학문의 발달에 있어서 기독교적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와 학술활동의 양과 깊이의 부족에 관한 논의는 특히 두 가지 연구에 기반을 둔다. 2014년에 엄준영과 베버스루이스(Um & Beversluis)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스미스는 기독교적 관점에 기초한 연구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학술저널과 기독교적 기관에서 출판되는 학술저널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앙을 포함하는 일부 종교적 학술저널로부터 197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판된 여러 학술 분야의 논문 9,028편에서 교수-학습 과정, 학생들의 학습, 교실에서의 실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페даго지) 설계 혹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들이나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이 한 문단이라도 포함된 논문을 페даго지 논문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Um & Beversluis, 2014: 78). 그 결과 기독교 저널들에서는 11.3%, 종교적 저널에서는 4.17%가 페даго지 관련 논문으로 분류되었고(2014: 80-82), 학문 분야마다 그 비율은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인 분야는 철학, 예술, 영문학 그리고 정치과학으로 0.28%에서 1.35%, 가장 높은 분야는 외국어 33.33%, 비즈니스와 경제 17.20%, 수학 21.74%를 보였다. 그러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분야에서 출판된 기독교적 학술논문의 수는 지극히 소수여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2014: 83).

양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그는 페даго지 관련 논문들이 보이는 경향에 그는 주목한다. 가르치고 배우는 주제를 다루고자 의도한 글들도 인식론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사상사에 관한 내용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며, 자신의 학문 분야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조명할 때 드러나는 깊이와 주장의 미묘한 차이를 분별해내는 정확성과 학문성, 한 주제에 관한 논의에 장기간 관여하며 깊이를 더해가는 일관성과 같은 것이 기독교적 교수-학습을 다루는 논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페даго지 관련 논문에서는 강의법보다는 모둠 활동이 더 기독교적이라든지, 지적인 측면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에 호소하고 영향을 미치는 교수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등의 다소 단순한 이원론적 사고를 보이거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제언을 하는 데 그쳤고, 지속적인 것이기보다는 간헐적이고 단편적인 연구가 발표되는 경향이 있었다(2018: 144-145). 나아가서 스

미스는 보이어를 비롯한 학자들의 연구를 근거로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미친 교수-학습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존중받는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의 관행과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한다(Smith et al., 2014 ; Smith, 2018).

기독교적 학술활동에 있어서 교수학습 분야에서 드러나는 양적·질적 격차에 대한 또 다른 근거는 앨먼, 글랜저, 거스리가 기독교 단과 대학과 종합대학 협의회(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CCCU)에 속한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다(Alleman, Glanzer, Guthrie, 2016). 앨먼과 그의 동료들은 협의회에 속한 110개의 기독교 고등교육 기관 중 두 번째 단계의 연구에 참여한 48개 기관 2,309명의 교수진에게 자신의 신학적 전통이 강의 목표, 강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 세계관 혹은 내러티브, 수업에 대한 동기와 태도, 윤리적 접근 그리고 교수 방법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영역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연구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다.

Table 1. Response to the question ‘Does your theological tradition influence the following areas of your teaching?’ (Smith, 2016: 106-107)

질 문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강의 목표	48	9	43
강의를 안내하는 토대, 세계관, 내러티브	79	5	16
수업 동기나 태도	78	6	16
윤리적 접근	84	4	12
교수 방법	40	20	40

스미스는 몇 가지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기획이 널리 공감되고 확산되고 있음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신학적 전통이 강의의 세계관, 윤리적 접근,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의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강의 목표나 교수 방법과 같은 교수 실천에 관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4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가 특히 흥미롭게 여긴 것은 교수 방법 영역 내 각 답변의 비율 분포이다(2018: 145-46). 교수 방법에 자신의 신학적 전통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니다’와 ‘그렇다’의 응답 비율은 동등하게 40%였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20%로 다른 모든 영역에서 나온 ‘모르겠다’ 답변 비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다른 영역에 비해 교수진들은 자신의 신앙전통이 교수법에도, 교실에서의 교수-학습 실천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혹은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2018: 146).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교수 방법이 기술이나 따라야 할

단계와 같이 단순하고 좁게 이해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한다.

2. 교수-학습과 신앙의 통합에 대한 협소한 관점

가르친다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적일 수 있을까? 가르치는 내용이 기독교적이면 혹은 그 내용을 조명하는 관점과 전제가 기독교적이면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일까? 가르치는 교사가 인격적이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기독교적인 성품을 보인다면 기독교적인 가르침일까? 뇌과학이나 구성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다 학생중심적이고 참여적인 교수 방법을 활용하면 그 수업이 기독교적인 수업인가? 수업 중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언급되고, 수업의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배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로 이어진다면 기독교적인 교수일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교수-학습 과정이 혹은 폐даго지가 기독교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런 수업은 어떤 모습일까? 스미스는 한 기독교 중고등학교에 교사 전문성 개발을 돕기 위한 강사로 방문했다가 만났던 경험과 연륜이 많은 생물 교사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 교사가 스미스를 만나자 꺼낸 첫마디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가나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과목과 가르치는 일에 적용해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것이었다. 그러한 교육은 이미 많이 받아 왔음을 시사한다. 이어진 말이 중요하다. “문제는 대부분 시간에 저는 그저 광합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2018: 85).”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기독교 고등교육에서부터 학문 분야에 관한 기독교 신학적, 철학적, 세계관적 조명에 집중되어 이루어졌고,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도 “세계관, 전제, 관점, 과학과 종교, 여러 이즘(-ism)들”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한 이슈들과 가장 논란이 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토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생물 시간에 늘 종의 기원이나, 환경 문제, 진화와 같은 논쟁적인 이슈들만을 다룰 수는 없다. 그러한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적 성찰을 제시하고 토론할 때만이 기독교적인 수업을 하는 것이라면, 교사들이 가르치는 시간 대부분에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광합성과 같은 논란거리가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매일의 생물 시간에는 신앙과 교수-학습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스미스는 이를 상상하도록 돕고 일상의 평범한 가르치는 실천을 안내할 수 있는 렌즈나 틀로서 기독교 세계관이나 철학적 관점들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온 우리의 방식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Smith, 2018: 85-86).

더 나아가서 스미스는 기독교적 전제, 관점, 세계관과 같은 높고 거대하고 다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수업에 통합하도록 돕는 자원에 비해 교실의 일상과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실천에 신앙이 관여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식을 상상하고 안내하는 자원은 희소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교과 내용뿐 아니라 학습경험이 가진 형성적 힘을 간과하게 하고, 지적인 측면뿐 아니라 학생의 도덕적·영적 측면

을 포함하는 전인적 기독교적 형성을 추구하는데 미흡하다. 그는 기독교 학교에 다니던 자기 아들이 저녁에 학교 종교수업에서 받아온 학습지를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던 일화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한다. 학습지는 두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서 왼편에는 칭의, 성화와 같은 신학적 용어들이 다른 한 편에는 각 용어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었고, 그것을 숙지하는 것이 과제였다. 교육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로서 스미스는 아들에게 “승천은 단지 물리적 공간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니?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은 무엇이니? 이 중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나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니?”와 같은 질문으로 이해정도를 물어보았다. 처음 몇 질문에 대답하던 아들은 이내 짜증을 표출하며 “아니, 그렇게까지 잘 알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는 단어와 정의를 연결하는 문제만 나올 거예요!”라고 말하며 아버지 손에 들려진 학습지를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2018: 5). 스미스가 주목하는 것은 아들이 이러한 학습지가 과제로 주어지면 추후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에 맞게 학습의 성격과 학습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의 양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학습지가 과제로 나왔을 때는 깊은 이해보다는 매칭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기억과 암기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 아이에게 있었다. 스미스는 여기서 교수학습의 문제는 학습지의 내용이 기독교적이지 않았거나, 기독교적 세계관이 규정하는 한 가지 특별한 학습지 설계 양식이나 시험문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교사가 따르지 않았거나, 이러한 과제지를 설계한 교사의 성품에 결함이 있거나, 교사가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학생들의 학습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다만 학습지의 설계, 시험의 패턴, 십대의 바쁜 학업과 삶의 스케줄과 그것이 주는 압박 등이 맞물려서 그 종교수업의 학습과제지의 양식과 시험출제의 패턴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곧 학생이 기독교 신앙에 핵심적인 중요한 신학적 용어를 그 정의의 첫 두 단어 정도를 기억하여 매칭할 수 있을 만큼의 피상적인 학습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스미스는 분석한다.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의 확장이 필요하다. 교육내용과 좁은 의미의 교수방법론의 문제를 넘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관행의 다양한 일상적 측면들을 성찰하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의 복잡성을 고려하며 전인적인 기독교적 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독교적 페다고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다.² 그러한 그의 제안을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이라고 명명하고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2) 스미스는 ‘pedagogy’를 의도적으로 사용.

III.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을 위한 이론적 배경

스미스는 스미스(J. Smith), 드 영(R. DeYoung) 등의 동료들과 함께 가르치는 것과 역사적 전통으로 물려받은 기독교적 실천들과의 관계에 관한 책 *Teaching and Christian Practices* (2011)에서 자신의 기독교적 교수-학습 접근의 틀이 되는 세 가지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첫째는 사회적 실천의 형성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매킨타이어(A. MacIntyre)와 보르드외(P. Bourdieu)와 같은 학자들의 철학과 사회학적 문헌으로부터 가져왔다. 둘째는 웅어(E. Wenger)와 라브(J. Lave)와 같은 교육학자들의 실천공동체와 상황인지에 관한 이론으로부터 철학과 사회학에서 개발된 ‘실천’의 개념이 교수-학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셋째는 사회적 실천을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헌신해 온 영적 훈련과 같은 기독교적 실천과 연결시키는 다익스트라(Dykstra)와 같은 학자들의 신학적 성찰을 기독교적 교수-학습을 위한 지혜를 얻는 데 활용한다 (2011: 6).

1. 사회적 실천과 형성으로서의 학습

공동체주의 철학자 매킨타이어가 덕의 상실(2021)이라는 책을 통해 현대 사회의 도덕적 위기를 계몽주의 기획의 실패와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공동체주의를 통한 도덕적 회복의 해법을 제시한다. 매킨타이어는 특히 도덕적 형성을 위해 텔로스와 텔로스를 향해 기울어져 행동하는 습관과 기질인 덕, 덕을 덕으로 간주하게 하는 공동체의 서사와 전통, 덕이 몸에 새겨지고 텔로스가 구체화하는 선이 내면화되게 하는 사회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을 스미스는 기독교적 사상이나 관점을 전달하거나 학생들의 지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전인적인 기독교적 형성으로 여기기에 매킨타이어의 기획은 중요하다. 매킨타이어의 전통, 서사, 실천, 텔로스와 같은 개념들은 스미스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실천의 개념이 그러하다. 매킨타이어는 ‘실천’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정의한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실천”은, 특정한 활동형식에 적합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 활동형식을 통해 정의된 탁월성의 기준을 성취하고자 하는 시도의 과정에서 이 활동형식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이 이 활동을 통해——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힘과 관련된 목표와 선들에 관한 인간의 표상들이 체계적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실현되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협동

적 인간 활동의 모든 정합적, 복합적 형식을 뜻한다(MacIntyre, 이진우 역, 1997: 277)

복잡한 정의이지만 스미스가 주목하는 특징으로 첫째, 실천은 사회적이며, 공동체적이고, 물려받은 것으로서, 일상과 의례의 복합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둘째, 모든 활동이나 실천, 일상의 패턴이나 의례가 다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실천은 그 활동형식에 내재하고 있는 선을 가지며, 그 선은 다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그 실천에 참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내재적인 선을 추구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그 실천의 실천가가 되는 것이다(Smith, 2011: 9). 마지막으로, 모든 실천에는 탁월성의 적절한 표준이 있으며 그 표준은 그 실천을 육성하는 공동체와 전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어떤 실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천공동체와 그 표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천의 내적인 선은 다른 실천가들과의 관계에서 그 실천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MacIntyre, 2007: 191). 또한, 역사성과 사회성을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실천을 관행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으나,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기계적으로 행해진다는 의미의 관행과는 구별된다.

사회적 실천의 형성적 힘을 이해하기 위해 매킨타이어나 J. 스미스는 보르드외(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개념을 빌려오며, 스미스 역시 그러하다. 보르드외는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실증주의 유물론과는 달리 지식의 대상은 수동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며, 지적 이상주의와 달리 이러한 구성의 원리는 구조화된 구조화하는 성향의 체계로서의 습관이며, 이는 실천에서 구성되고 항상 실용적인 기능을 지향한다”라고 주장한다(Bourdieu, 1990: 52). 실천 안에서 구성되고 실용적으로 기능하는 성격을 가지며 ‘구조화된, 구조화하는 성향들의 체계로서의 습관’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 그 의미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부연 된다. 부르디외는 “특정 계급의 존재 조건들과 관련된 조건화는 아비투스를 생산”하는데, 그 아비투스는 “내구성 있고 전치 가능한 성향들의 체계들이며, 목적에 대한 의식적 지향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조작들에 대한 신속한 숙달을 전제하지 않고도 그 결과에 객관적으로 알맞은 실천들과 표상들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원리로서 구조화하는 구조들”이며 그렇게 기능하기 쉽다고 말한다(Bourdieu, 1990: 53). 아비투스는 목적에 맞게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선택하며 결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발성을 띠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단 체화되어 두 번째 본성과 같이 내면화되면 이 아비투스는 어떤 면에서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규율이나 명시적인 규범보다 더 신뢰할 만하게, 목적이나 결과에 객관적으로 알맞은 방식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실천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1990: 54). 나아가서 아비투스는 과거 실천의 경험으로부터 왔기에 “역사의 산물”이며 “두 번째 본성으로 내면화된 체화된 역사”이며 “축적된 자본”으로 기능한다(1990: 56). 다시 말해서, “아비투스는 의식이나 의지

가 없는 자발성으로서, 합리주의 이론에서 ‘관성이 없는’ 주체의 반사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기계론적 이론에서 역사가 없는 사물의 기계적 필연성과 반대된다”(1990: 56). Teaching and Christian Practices (2011)를 공동편집한 제임스 스미스는 기독교교육은 정보 전달이나 기독교적인 내용을 소통하고 나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형성에 관한 것으로, “특정 텔로스, 즉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양에 의해 규정되는 특정 욕망이나 열정에 의해 정의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규정되는 좋은 삶에 대한 궁극적 전망으로서의 텔로스가 습관을 통해 인간의 성품에 새겨져, 제2의 본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 그 텔로스를 향해 기울어진 습관대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과 제자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Smith, 박세혁 역, 2016: 2018). 그런 면에서 그는 기독교적 형성을 기독교적 아비투스의 형성으로 보기도 한다.

스미스(D. Smith)가 관심을 두는 실천의 다른 측면은 실천이 가진 논리이다. 파스칼은 실천은 논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부르디외도 의례와 같은 “실천에는 논리학자의 논리가 아닌 논리”가 있음을 주장한다(1990: 86). 즉 실천에는 그 나름의 논리가 내재하고 있어서 그 실천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경험된다. 스미스는 실천에 내재하는 논리가 있듯이, 페다고지적 실천에도 그 실천에 본래 내재하고 체현되는 환원할 수 없는 논리 혹은 지혜가 있고 (Smith & Smith, 2011, 10-11), 그것이 “구조화된 구조화하는 시스템”(Bourdieu, 1990: 53)으로 형성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유용함을 제안한다.

2. 웅어의 실천공동체 이론을 통한 실천에 대한 교육적 성찰

스미스는 라브와 특히 웅어와 같은 교육학자들의 실천공동체와 상황인지에 관한 논의에 기초해 철학과 사회학에서 개발된 ‘실천’의 개념이 어떻게 교수-학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교실의 실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Smith & Smith, 2011: 11). 웅어는 그의 책 실천공동체를 미국 대형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청구센터에서 일하는 한 직원의 일과에 대한 문화기술로 시작한다. 웅어에 의하면, 보험처리사들이 상호 작용하며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실천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즉, “회사가 빚어낸 갈등을 해소하는 기계”와 직원 개개인이 세부적인 업무 전체를 알지 못해도 자신의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공동의 기억 역할”, “신참들이 공동체의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공동체의 “특정한 시각이나 말을 만들어 내어”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그에 맞추어 처리하도록 돕는 역할, 업무의 “의미 없고 단조로운 측면들을 공동체적인 삶에서의 관례나 이야기, 드라마, 사건, 리듬 등으로 엮어 줌으로” 의미를 얻도

록, “자동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Wenger, 손민호·배을규 역, 2007: 83). 웅어에게 실천이란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와 구조를 부여해 주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내에서의 활동”을 의미하며, 그의 정의에 의하면 “실천은 항상 사회적 실천”이다(2007: 84).

웅어가 의미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학습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스미스는 그 개념들을 교수-학습 과정과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성찰하고 설명하고 기획하는 데 대부분 활용한다. 참여(participation), 관여(engagement), 객체화(reification), 공동 자산으로서의 레파토리(repertoire), 공유된 상상력(shared imagination), 의미의 협상, 경계, 정체성, 소속감, 조율(alignment) 등의 주요 개념 중 뒤에 나올 스미스의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 최소한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participation)는 “사회공동체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경험과 활동”으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 서로 관계하는 방식과 소속감 등이 “어우러진 복잡한 과정”이면서 ‘전인적’인 성격을 띤다(Wenger, 손민호·배을규 역, 2007: 96). 참여는 실천에 관여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협상을 통해 교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정체성을 형성한다(Wenger, 손민호·배을규 역, 2007: 98).

추상적인 생각이나 개념은 그 자체로 작동하고 생명력을 갖기 어렵기에 공동체 내에서 작동하는 생각, 개념들을 “객체로 만들어 냄으로써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객체화(reification)라고 부른다(Wenger, 손민호·배을규, 2007: 101). 교수-학습 상황에서 객체화의 예는 의자와 책상의 배열, 교과서, 점수, 수업계획서, 시험, 몸짓, 소리, 이미지 등으로 교수자의 “생각, 가정, 목적들이 공동의 물리적 환경의 일부로 객체화된다”(Smith & Smith, 2011: 13). 이러한 객체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실천에 관여하며 상호 작용하면서 실천공동체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고, 이뿐 아니라 경험과 실천에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실천이 매번 많은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작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미래의 행동을 제한하기도 한다(Wenger, 손민호·배을규 역, 2007: 101 ; Smith & Smith, 2011: 13).

실천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함께 공동의 업무와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면서 행동들의 의미를 협상하고, 서로의 행동과 의미를 나란히 조정하고 조율해 나간다. 이러한 조율의 과정을 거쳐 그 공동체에게 특정한 의미를 지닌 일련의 행동과 언어 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웅어는 “레파토리(repertoire 공동의 자산)”라고 불렀다. 레파토리는 “아비투스과 같이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방식들에 새겨진 패턴들을 이르는 방식”이며, 그 공동체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각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대되는 행보이고 그렇기에 다른 실천공동체와의 경계를 규정한다(Smith & Smith, 2011: 13).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상상’(imagination)으로, 웅어는 그것을 “우리의 경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제”로 보았다(Wenger, 손민호·배을규 역, 2007: 259). 그는 잘 알려진 두 석공의 이야기를 하며 그 개념을 설명한다. 누군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한 석공은 쌓아 올릴 정육면체의 벽돌을 자르고 있다고 했고, 다른 한 석공은 성당을 짓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관여하고 있는 실천과 관련해서는 두 석공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답변에서 드러나듯 자신이 하는 일을 상상하는 방식에 따라 그들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고,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세계와 다른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었다(2007: 259-262). 상상의 차이가 세계와 정체성과 공동의 업무와 실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창조하게 했다. 이러한 상상은 공동체 구성원의 말뿐 아니라 행동에 나타난다. 상상은 실천공동체의 레파토리 내에 체화되고 동시에 레파토리가 상상을 형성하기도 한다(Smith & Smith, 2011: 14).

웅어의 상상, 레파토리, 객체화와 같은 개념들은 스미스가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기를 돕기 위해 제시하는 세 국면, 곧 새롭게 보기(seeing anew), 관여방식 선택하기(choosing engagement), 그리고 실천 재구성하기(reshaping practice)와 각각 연결된다. 스미스는 기독교 세계관과 비전이 교육적 실천 내에 어떻게 구체화되며, 어떻게 학습이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패다고지적 실천을 통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조직적인 렌즈 혹은 틀을 웅어의 이론이 제공해 준다고 믿는다(Smith & Smith, 2011: 14).

3. 실천에 대한 신학적 성찰

스미스가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접근하는 마지막 이론적 배경은 역사적 기독교 교회와 전통 내에서 실천의 중요성과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실천이 가진 형성적 힘을 강조했던 다익스트라의 신학적 성찰이다(Dykstra, 2005: 41). 다익스트라는 실천의 정의와 덕을 형성하는 실천의 힘에 대해서 매킨타이어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는 단순히 기독교적 신앙과 삶에 대해서 알거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실천에 참여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실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낯선 이를 환대하는 등 다양한 기독교적 실천이 실행되는 실천의 맥락에 참여하며, 그 실천들에 관여하면서 신앙과 신앙 안에서의 삶이 성숙하게 된다고 주장한다(2005, 44). 그는 전통적으로 일관되게 행해진 기독교적 실천의 예에 예배와 성만찬뿐 아니라 ‘영적 훈련’(spiritual disciplines)’으로 알려진 실천들도 포함시킨다(2005: 42-43). 이러한 실천은 몸의 관여를 포함하고, 복잡성의 수준과 참여의 범위에 있어서 넓고 다양하며, 하나의 실천은 다른 실천들

과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 실천에만 관여한다면 그 형성적인 힘을 온전히 경험하기 어렵다(2005: 45, 56).

기독교적 실천들을 잘 행하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학습,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기에, 다익스트라는 기독교 교육과 신학적 가르침도 “좋은 코칭”과 같은 성격을 띤다고 말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코치와 같이 기독교적인 실천들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고, 그래서 그것에 능숙해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신앙에 초보인 성도들을 도와 모델과 멘토와 선생과 동역자가 되어 그 실천에 함께 참여해주고, 그 실천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그 실천의 의미와 그 실천에 배어 있는 지혜와 가치와 논리를 설명해주며, 그 실천에 대한 이해와 실행에 깊이와 유능함을 더해 가도록 우리를 매료시켜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Dykstra, 2005: 72-73). 매킨타이어와 마찬가지로 다익스트라(2005)는 기독교적 실천에 지속해서 참여함으로써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삶에 내재하는 덕과 선을 삶에서 실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셔서 어떠한 존재가 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

형성적 측면에서, 실천에 지속해서 그리고 훈련된 방식과 패턴으로 참여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천은 “더 이상 우리가 행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행해지는 장이 된다”고 이야기한다(Dykstra, 2005: 56). J. 스미스(2018) 역시 유사한 의미로 실천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인가일 뿐 아니라 실천이 그 실천에 관여하는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실천을 통한 형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어렵다. 뉘어가 언급한 실천공동체의 경계와 다양한 실천공동체의 멤버십 사이의 협상과 같이 성도들은 신앙공동체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의 지적, 정치적, 사회 문화적, 직업적 삶에 다수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실천들이 그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기독교적인 실천을 통한 형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어렵고, 체계적인 교육과 이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다익스트라는 주장한다(Dykstra, 2005: 73-74).

실천의 정의와 성격, 형성적인 힘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적 실천과 유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익스트라는 기독교적 실천에는 독특성이 있으며 그리고 그 독특성이 기독교적 교수-학습의 성격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적 실천의 독특성은 그 실천이 다른 사회적 실천과는 다른 구별된 이야기의 일부이며 다른 전제 위에 구축되었다는 데서 비롯된다(Dykstra, 2005: 75). 외적으로는 같을 수 있으나 이야기가 다르기에 구별된 실천이다. 실천은 “이해할 수 있는 행동(intelligible action)”이어야 하며, 기독교적 실천이라면 성경의 내러티브와 그 이야기로부터 흘러나온 분별력, 상상, 목적, 의미가 깃든 행동이어야 한다(2005: 72). 나아가 다익스트라는 신앙의 실

천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실천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실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령의 거주하심”이며(Dykstra, 2005: 78),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임재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삶에 틈을 창조해주는 공동체적 행동의 패턴”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사회적 실천과 구별된다고 한다(2005: 66). 스미스는 이러한 기독교적 실천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지 아비투스를 새겨주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다른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을 활용하고 만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전통을 통해 물려받은 기독교 실천들을 교수-학습에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페다고지를 위한 지혜가 풍성하리라 생각했고, 그 사례들을 Teaching and Christian Practices에 담았다(Smith & Smith, 2011: 17).

III.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 설계

1. 가르치고 배우는 집, 페다고지적 가정(pedagogical home) 꾸리기

기독교적 가르침뿐 아니라 가르침 혹은 교수라는 용어의 자체가 협소하여져서 교수법이나 가르치는 기술을 떠올리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미스는 의도적으로 교수법이라는 용어 사용을 피한다. 대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교수-학습이나, 페다고지와 같은 표현을 의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그가 사용하는 페다고지(pedagogy)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한다. 15세기 중세 유럽에서 대학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주로 개인 숙소를 빌리거나 공동학생회관과 같은 곳에서 생활했다고 한다(Smith, 2018: 11). 그의 설명에 의하면, 공동학생회관은 대학에 일부로서 배움의 장소였고, 교수(magister)가 맡아 감독하며 그곳에 함께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가르침도 제공하고 식사와 공동의 규칙 및 공동체의 일상을 책임을 지는 형태로 꾸려졌다. 당시 이러한 주거 공간들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이미지로 호스피스나 호스피치즘(hospicisum)으로 불리거나,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페다고지움(paedagogium, a place of pedagogy), 페다고지의 장소”라 불릴 수 있었다(2018: 11). 그런 의미에서 스미스는 가르친다는 것 곧 페다고지를 오늘날과 같이 가르치는 방법이나 기술, 교사가 학생들에게 행하는 무엇인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따라야 할 일련의 체계적인 단계로 보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한동안 살아가고 배우는 보금자리로서의 집이나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상상할 것을 제안한다(2018: 11-12). 페다고지움은 아래와 같이 묘사된다.

가르친다는 것은 물론 가르칠 내용과 계획, 몇 가지 전략이나 기술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르친다는 것은 또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인지, 그러한 상호작용을 좌우할 규칙이나 리듬은 무엇이어야 할지, 무엇이 영양분으로 제공되고 공유된 상상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것인지,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패턴들은 어떻게 배치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다. 페다고지는 학습하는 동안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을 제공한다. 그 공간은 조용히 성찰할 시간이 많거나 혹은 적을 수도 있는 곳이며,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협력하며 학습하거나 혹은 수동적으로 듣는 곳일 수도 있고, 주변 이웃의 문제가 다루어지거나 혹은 다른 문제들로 인해 옆으로 제쳐지는 곳이거나, 외부의 목소리가 환영받거나 혹은 기피되는 곳일 수도 있고, 초점이 유용성에 있거나 혹은 경이로움에 있을 수도 있는 공간이다. 페다고지는 포용하거나 배제할 수도, 한대하거나 불친절할 수도, 활력을 불어넣거나 죽일 수도 있다(Smith, 2018: 12).

스미스는 만일 우리가 가르친다는 의미를 확장하여 호스피키움이나 페다고지움과 같이 배우러 온 학생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고 형성되어 가는 페다고지적 가정(pedagogical home), 곧 가르치고 배우는 집을 세워가는 것으로 상상한다면, 가르친다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적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실천도 훨씬 풍성할 수 있으리라 주장한다(2018: 12).

2. 새롭게 상상하기, 참여방식 선택하기, 실천 재구성하기

스미스는 가장 최근에 진행한 시민교육 프로젝트(<https://civichospitality.com>)로부터 교실에서 과학과 신앙을 다양하게 연결하는 활동과 수업을 개발한 프로젝트(<https://teachfastly.com>), 가장 초창기 프로젝트로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신앙과 가르침을 연결한 수업을 개발한 “*What If Learning*(만일 학습이 ~라면)” 프로젝트(<https://whatiflearning.com>) 등 다양한 수업개발 프로젝트를 여러 나라 교사들과 진행해 왔다.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한 수업개발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이 실제로 기독교 교사들을 도우면서 활용했던 간단하면서도 유연한 틀을 소개한다. 이 틀은 *What If Learning*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수업개발을 위한 세 가지 측면 혹은 전략으로 새롭게 보기(see anew), 참여방식 선택하기(choose engagement), 실천 재구성하기(reshape practice)를 제시한다(2018: 69; <https://whatiflearning.com>).

(1) 새롭게 보기(see anew)

첫 번째 측면인 새롭게 보기는 새롭게 상상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Smith, 2018: 69). 스미스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교실과 교육에 속한 모든 것이 그저 우리에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묻는다(Smith & Felch, 2015: 2). 앞서 언급한 두 석공의 예에서 돌을 정육면체로 자르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그 일을 하면서 무슨 경험을 하고 무엇을 배우고 그 결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학교는 무엇과 같아야 하며, 교사로서 나는 누구이며 세계 내 위치가 무엇이고, 학생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들의 필요는 무엇이고,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등, 당연하고 보편적인 관행으로 여겨 지속해왔던 실천의 패턴들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다르게 상상하고 볼 수 있다면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교수-학습 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보았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새롭게 보는 예로 들려준다. 제2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여행을 가고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받는 소비주의와 관광 프레임 안에서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한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낯선 이에 대한 환대와 이웃 사랑의 프레임 안에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묻는다. 실제 사람들의 삶과 거리가 있는 만화나 스톡 사진의 인위적인 이미지 대신, 만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과 공감을 자아내는 이미지를 수업에 활용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혼자 작업하는 학습지와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씨름하는 과제만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과제를 내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2018: 69, 70). 이러한 질문과 상상을 해 보는 것이 새롭게 보기가 하는 일이다.

상상은 이미 누구나 하는 일이며, 그 상상은 사람들의 습관, 직감, 감성, 갈망, 은유, 무엇이 적절하고,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감각 안에 담겨 있다(Smith, 2018: 70). 예를 들어 “교실을 열매가 풍성한 정원이나, 가르치는 일을 떡을 떼는 것이나, 학습을 순례나, 교육과정 계획을 성전 건축으로 보는 비전에 거할 수 있다면”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과 패턴이 새로운 조명하에 변화될 수 있으리라 말한다(Smith & Felch, 2015, 2). 나아가서 상상은 공유된다. 요즘 아이들의 인성이나 학업능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혀를 찰 때, 요즘 학교와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염려할 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학교에 대해서 이상적인 교육 목표에 대해서 혹은 사람됨이 어떠해야 한다고 상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2018: 70). 공유된 상상력은 “우리에게 무엇이 설득력 있고 타당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해주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정신적 세계와 기관과 제도적 실천 및 문화적 틀을 연결해준다”(Smith & Felch, 2015: 5, 6). 교사의 상상력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

다(2015: 5).

스미스는 새롭게 상상한다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것을 상상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한다. 사물을 올바른 맥락에 두는 방식으로, 세계 안에서 그것을 올바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Smith & Felch, 2015: 3 ; Overman & Johnson, 2004 ; Vanhoozer, 2007). 새롭게 보기에서 보고 상상하는 측면은 세계관 혹은 찰스 테일러의 사회적 상상의 기능과 유사하다.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새롭게 보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사회적 상상력으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앙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상상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상상을 깊이 흡수하고 기독교 전통에서 그 상상력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성경적 상상이 우리가 학습에 대해서 보고 말하는 방식들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스미스와 펠치는 주장한다(2015: 2). *Teaching and Christian Imagination*이라는 책에서 그 예를 잘 발견할 수 있다(2015: 2). 스미스가 제안하는 새롭게 보고 상상하기를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동료에게 자신의 교실과 수업을 관찰하게 하고, 교수-학습의 실천에 주목하게 한 후 학생들과 교사와 교과와 주제 사이의 상호작용과 참여하는 리듬과 패턴 그리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종류의 세계를 암시하며, 어떤 가치를 장려하고, 어떠한 형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왜 그렇게 보이는지 묻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2018: 71).

교사는 수업계획서를 통해서 혹은 학기나 수업을 시작하면서 교수-학습의 목적과 과정을 새롭게 보고 상상한 바를 말로 표현하고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백된 신앙, 제시된 비전, 영감을 주는 말씀이나 인용문을 통해 전달된 수업을 새롭게 보고 상상하는 새로운 프레임은 반드시 학습경험으로 형체와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자신이 상상한 방식과 일관되게 통전적으로 학습경험을 빚어가는 것이 What If Learning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측면이다.

(2) 참여 방식 선택하기(choose engagement)

*What If Learning*의 두 번째 측면은 참여 방식을 선택하는 것(Choosing Engagement)이다. 웹어의 이론에서는 의미의 협상이 일어나고 공동의 레퍼토리(공동자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교수 설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암묵적인 일련의 기대”와 “암묵적 대본”이 내포되어 있다(Smith, 2018: 97). 새롭게 상상한 비전과 일관된 방식으로 학습 과정에 관여할 때 학생들은 무엇을 하며 그들에게 기대되는 참여 방식은 무엇인가를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과서나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읽고 관여하는 방식뿐 아니라 학습되는 모든 것, 곧 학생들 간 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며 동료 학습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 “어떤 목소리와 이야기가 들려지고, 지역 사회 공동체와 더 넓은 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지, 봉사나 정의 추

학습에 통합해야 할지”와 같은 교실과 학교 너머 더 넓은 세계에 관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2018: 112).

스미스는 참여방식 선택하기를 설명하기 위해 본회퍼(Bonhoeffer)의 *성도의 공동생활(Life Together)*을 교재로 사용했던 독일어 강의를 한 예로 사용한다. 본회퍼는 1935년 어려웠던 시기에 독일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작은 신학교를 시작할 기회가 있었고, 이를 위해 교육의 내용뿐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방식에 관해 고민했다. 그 결과 “산상수훈에 따라서 사는 삶의 방식을 타협하지 않는 새로운 수도원 주의” 곧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제자도에 순종하는 공동체적 실천 모델을 학생들의 참여방식으로 채택했다(Smith, 2018: 99). 아침과 저녁에 긴 공동체적 경건의 시간이 있었고, 깊은 개인 기도와 묵상 시간, 정오 식사 중 낭독과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동료와 한 번씩 함께 긴 산책을 하고,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만일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자신이 무엇이라 했는지를 그 사람에게 고백해야 하는 규칙 등이 그것이었다(Smith, 2018: 99-100). 본회퍼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제자도에 대한 성찰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특정한 방식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경건과 “자아 성찰”과 “공동체적 화해”를 위한 의도적인 실천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형성되어 갈 떼다고 지적 가정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도의 공동생활*을 특정 주제 관련 독일 문학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면서 스미스가 고민한 것은 학생들이 이 교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있었다.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요약하고 강의하고 토론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학의 강의실이라는 특유의 관행에 본회퍼의 대항 문화적인 실천을 길들이는 것이 될 수 있고, 본회퍼가 말하는 바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칠 수 있음을 인식했다(2018: 101, 102).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의 교제와 제자도를 가시화하고 구현한 실천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만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것과 형성돼가는 경험은 놓치게 될 위험이 있다. 참여의 유형에 따라 다른 학습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스미스는 학생들이 본회퍼가 다룬 기독교적 실천에 실제로 참여하며 형성에 관한 질문에 숙고하며 성찰할 수 있도록, 라브와 웡거(1991)가 말하는 “합법적인 주변적 참여(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를 시도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는 캠퍼스에서 주중에 여러 번 만나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여 일주일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가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묵상하고 그들의 삶에 감사하는 일이었고, 그러한 실천을 통해 경험하고 배운 바를 일지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거의 매일 보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한 명 선택하여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일지를 기록하는 과제도 주어졌다(2018: 102-107). 스미스는 이러한 학습경험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형성과 제자됨의 훈련 대 비판적 사고라든가 헌신과 형성 대 지적 참여

와 탐구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2018: 112). 사고, 팔고, 예약하는 단어 나 산책하고 애도하고 기도하는 단어의 수준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학생들은 여전히 독일어 문법을 배우고 독일어 문학을 읽고 이해했다. 거기다 실천을 통해 얻게 된 자아 성찰과 자아 인식 그리고 참여하며 경험하고 얻게 된 통찰에 근거해 책에 기술된 그리스도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본회퍼의 비전과 제안을 더 깊이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2018: 112).

(3) 실천 재구성하기(reshape practice)

두 번째 측면과 함께 세 번째 측면은 새롭게 보고 상상한 비전이 교수-학습 과정에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지만, 실천을 재구성하는 이유는 비전과 참여의 연결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강물을 설치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2018: 73). 이 전략은 웬어에게 있어서는 “개체화(reific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수-학습은 말뿐 아니라, 말의 어조 변화와 강조, “신체 언어, 자세, 이미지, 자료, 리듬, 침묵, 일시 정지, 반복, 생략, 공간 배치”에 의해서 전달되고 구체화되며, 새롭게 상상한 비전과 채택한 참여 방식은 시간과 공간의 조직과 관리, 시각적 자료, 음향, 가구 배치와 같은 물질적 측면들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실천의 개조를 통해 떠받쳐진다(2018: 73).

교실에는 신체적 의례가 있고 학생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의도와 태도는 반드시 페다고지적 선택과 행동과 물리적 환경을 통해 상연되고 구현되어야 학생들에게 경험될 수 있다(Smith, 2018: 116). 예를 들어, 첫 수업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비전이 선포되었다 해도, 교사가 자신의 강의안을 읽기에 급급하고 눈을 마주치거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공헌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초기 교사의 비전에 공감하여 수업 자료를 미리 읽고 질문하고 토론할 내용을 준비해 수업에 들어오던 학생들도 교사의 선언적 비전의 공허함을 깨달아 결국 노트필기에 집중하는 형태의 참여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2018: 73). 다른 예로, 스미스는 맥라렌(McLaren, 1999: 112)의 연구를 기반으로 모든 교실과 교사들에게는 위협을 느끼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후퇴하거나 자신의 교사로서의 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때 서게 되는 “권력의 자리(power spot)”가 있다고 말한다. 대체교사가 우연히 그 자리에 서도 각자 자기의 일에 분주하던 학생들이 그를 선생님이로 알고 주목하게 되는 그런 자리이다(Smith, 2018: 117).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실천의 재구성의 한 부분이다. 시간과 속도 역시 학습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질문 후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면, 빨리 반응하는 특정 학생들만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반응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하는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2018: 120).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세심한 주의력과 공평함과 사랑과 겸손이라는 덕을 가지고 반응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실천일 수 있다(2018:

120). 한 학기나 학년도가 시험과 온라인으로 통보되는 시험결과 그리고 방학이라고 하는 “심판과 해산”으로 끝나지 않고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방법은 없는지, 교회의 전례들과 같이 “축복과 위임”으로 끝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고, 학기 말 혹은 학년 말 시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도 실천의 재구성의 한 부분이라 말한다(2018: 124-125).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소비하듯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식의 읽기 습관을 지닌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들고 교실 밖 한적한 장소에 홀로 가서 느린 속도로 읽고 묵상한 바를 손글씨로 적도록 하는 것, 자신의 수업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관행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의 독서를 할당함으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방식의 독서가 가능하도록 시간의 리듬을 관리하는 것도 공간과 시간의 건축술로서 실천의 재형성이다(2018: 121, 125-126).

마지막으로 스미스가 그의 모형에서 강조하는 바는 말과 실천의 일치, 곧 언어로 표현된 비전과 교사가 만들어가는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으로서의 페다고지의 집이 정합성이 있는 온전함(integrity)과 새롭게 보고, 참여방식을 선택하고 실천을 재구성하는 측면들이 일관되고 조화롭게 서로 조율되는(alignment) 것이다(2018: 79). 그러한 일관성과 조화 속에서 상상력은 참여와 실천에 생명을 불어넣고, 참여와 실천 방식은 상상력의 인프라가 되어 그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더 풍성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기독교 학교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언어는 적절한 맥락에서 벗어나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이라 스미스는 경고한다(2018: 79).

V. 논의 및 결론

스미스의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의 What If Learning 모형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재구성을 넘어서서 가르치고 배우는 복잡하고 신비로운 과정과 실천 전체를 기독교적 신앙에 기반한 새로운 틀에서 상상해보도록(reframing) 교사들을 초청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가르치고 배우는 관행과 말과 행동의 리듬을 지배하는 이야기와 비유, 그리고 공유된 상상력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도록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자녀로 인해 속상해하는 학부모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수업 중 모둠 형성에서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학생은 소외를 경험했다. 한번은 소풍 가는 버스에서 같이 앉아갈 친구가 없을 학생을 고려해 담임교사가 ‘키대로 앉아서 가자’라고 학급에 제안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거센 반박에 결국에는 좋아하는 친구끼리 앉아가자는 학생들 의견을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어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 내 따돌림과 폭력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집단따돌림에 관한 논문에서 한 연구참여자는 “여학생들의 무리에

서 가해자를 ‘여왕벌’이라고 하고, 따돌림을 일명 ‘여왕벌 놀이’라고 비유하였는데 무리에서 가해자는 다른 여학생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 권력으로 아이들을 조정하는 형태의 공격 행동을 한다”고 말했다(남순애 & 최지영, 2019: 474). 최근 많은 주목을 받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도 ‘여왕벌 놀이’ 비유는 잘 어울린다. 학생들은 서로를 그리고 교사와 교실과 학교를 무엇으로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스미스의 모형은 교수-학습의 일부분이나 한 요소가 기독교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교실의 공유된 상상력과 말과 행동의 레파토리와 패턴 그리고 물리적 구조 등 전체가 서로 조화롭게 조율되는 것이 기독교적 교수-학습의 형성적인 힘과 영향력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임을 강조한다. 앞선 이야기에서 ‘키대로 앉자’는 교사의 개입이 학생들에게 타당하게 느껴지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실천이 교실에 이미 구축된 상호작용의 레파토리라는 맥락에 놓일 수 있어야 했고, 그 레파토리를 가능하게 하는 이야기나 비유가 그들을 매료시켜 그들의 공유된 상상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야 했다. 요즘 우리 사회와 학교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가? 경쟁과 정글, 생존이 오늘 우리 사회, 학교, 교실을 사로잡은 이야기요 비유일지도 모른다. 서로를 붙잡히 여기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며 다른 친구가 학습과정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돌아보고 돕는 배움의 공동체를 상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공유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집’의 독특한 삶의 패턴과 리듬, 관여와 실천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기독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다.

우리 사회는 교사가 누구이며,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한다는 의미와 실천은 무엇인지, 교사와 학생, 교사와 부모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상상하기 시작해야 한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깊은 애도와 분노와 함께 교권 추락과 공교육붕괴, 학생인권조례, 교사 인권과 교권보호에 관한 논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법률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스미스는 “오늘날 교사들은 우리 자신을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보도록 돕기보다는 네모난 모양으로 돌을 자르는 일에 계속 힘쓰라고 밀어붙이는 환경에서 일한다”라고 말한다(Smith & Felch, 2016: 6).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상상력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말이 그것을 보여준다(2016: 6).

교육에 대한 우리의 말은 누군가는 뒤쳐지는 여정, [...] 행진하는 중에 누군가는 중도 탈락하는 집단, 하루를 구하는 영웅적인 슈퍼 교사 등에 대한 암묵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대부분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믿음, 소망, 사랑의 렌즈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교육적 상상력은 우리에게 영감

을 주고 주의를 환기시키며 열정이나 냉소주의를 다독이며 그쪽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라고 살짝살짝 밀기도 한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이미지가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와 학교에 이용 가능한 이야기들은 교사들에게 절망이나 냉소주의 대신 소망과 자부심과 의미를 공유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2016: 6).

그러나 스미스의 모형은 상상력을 언급하면서 영감을 줄 뿐 구체적인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모형이 아니다. 그의 모형은 교육내용과 교수방법뿐 아니라 시험문제의 패턴, 학습과제지의 구조, 반복해야 할 교수-학습 과정의 리듬, 학생들이 교사와 다른 학습자, 학습의 내용에 참여하는 방식, 교사의 포지셔닝과 교과서의 그림, 교실 가구의 배치 등 구체적인 교수-학습 상황 전반을 고려한다. 그는 “우리의 춤의 스텝을 결정하는 것” 곧 매일의 교육적 실천과 교사의 일과를 결정하고 “우리의 열망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것은 시선 높은 곳에 있는 신앙적 사명 선언문이나 철학적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교사의 발목 높이에서 물러고 달려들며 으르렁거리는 매일의 물질적·관계적 압박과 교수-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사건과 같은 것들이라 말한다(Smith, 2018, 1).

스미스의 모형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특히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교수-학습을 재구성(reframing)하는 일은 명시적인 수준에서부터 암묵적인 수준까지 가능하므로 공교육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서 스미스가 사용하는 ‘실천’이라는 렌즈는 교육적 맥락과 교수-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형성적 측면을 더 잘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틀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 교수와 메타버스 등 교육 매체와 환경의 변화가 급격한 때에 스미스의 통찰은 교수법이나 테크놀로지를 좁은 의미나 이분법적으로 혹은 무죄한 도구로써 보는 대신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이 학생들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다(Smith et al., 2020). 예를 들어,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해서 스미스(2023)는, 만일 디지털 기기를 ‘도구’로 생각한다면 학습 목표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초점을 두겠지만, 디지털 기술을 매체나 ‘환경’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혹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형성되어 가는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고 한다. 디지털 기술을 ‘사회적 실천’으로 본다면,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공동의 관행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고, 디지털 기술을 교수-학습에 활용한 한 번의 이상적인 사례에 의해서보다는 그것을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습관에 의해 학생들이 형성되어 감에 주의할 수 있다(Smith, 2023).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콘텐츠나 사이버 따돌림에 노출되는 문제

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과 같은 교사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습관과 관행이 소비주의와 물질주의를 조장할 수 있고, 빠른 정보 습득, 편리한 접근과 기록, 효율적 과제완수에 익숙해져 깊이 있는 학습과 숙고, 시간이 걸리는 영적인 성장과 관계 형성을 위한 수고를 경시하게 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Smith, 2023).

스미스의 모형이 주는 도전과 영감은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실천을 사회적 실천으로, 전통과 탁월성의 기준이 있는 실천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멘토의 가르침, 동료의 피드백을 포함하는 기독교 교사 실천공동체의 역할을 되새기게 하고,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실천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 실천의 내재적 선과 탁월성의 기준을 어떻게 명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행위전통 자체가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매킨타이어가 말하듯 사회적으로 성립되고 정합성 있고 복잡한 실천이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보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족장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해 왔던 일이며, 성경의 저자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과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행해왔던 사회적 실천이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실천들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복잡한 실천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 기도, 중요한 이슈들을 파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물리적 도덕적 영적 대기를 읽고 연구하되 피상적 수준을 넘기 위한 훈련, 진보와 보수를 이해하고 통시적인 관점을 갖기 위한 역사이해와 인간 본성 이해를 위한 인문학적 역량, 다양한 이슈들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신학 함, 세상을 읽고 관찰하되 현상학적 판단 중지 혹은 황금율의 태도의 실천, 비판적 성찰뿐 아니라 공평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덕을 가지고 책을 읽는 법, 미디어 리터러시, 관용을 뛰어넘는 성경적 환대,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며 대화하는 방법, 이를 잘 하도록 돕는 멘토와 동료의 필요성,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준비도, 지적 도덕적 영적 수준의 고려, 교육과정 재구성, 새롭게 보고, 관여방식을 선택하고, 실천을 재구성하는 등 여러 실천이 결합된 복잡한 실천이다. 여러 실천이 결합되었기에 다양한 역량의 개발과 훈련을 요구하지만, 그 모든 역량을 결합한 함이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역량이라 할 수 있거나 그 열매를 보장할 수는 없다.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단 한 가지 옳은 방식은 없지만, 나름의 탁월성의 기준에 더 적합하고 더 정합성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탁월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도 기독교적 맥락에서 필요하다.

스미스의 모형의 한계와 관련하여, 그의 사례가 교실과 학교라는 교육적 맥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과 교실 밖의 교육적 맥락에도 그의 모형의 전이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시에 교수-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춘 그의 모형은 앞서 언급했던 교육과정

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재구성하는 모형들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더불어서 스미스는 매킨타이어의 실천의 정의를 빌려 가르치는 것을 실천으로 보았지만, 매킨타이어 자신은 가르치는 것은 다양한 실천들에 대한 봉사나 수단이지 그 이상은 아니며 그 자체로 내적인 선을 지닌 실천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가르침을 실천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MacIntyre & Dunne, 2002: 8-9). 실천은 그의 모형의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이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킨타이어와 달리 여러 교육학자들이 스미스와 같이 가르침을 실천으로 본다. 수학을 예로 들면, 매킨타이어는 수학교사의 실천은 수학자의 실천에 포함될 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교육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던은 가르침을 어떤 실천안에 포함된 하나의 재료로서의 기술이나 습관으로 해석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풍성한 관점을 가져오지 못하며, 교사의 실천은 “교과의 선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Dunne, 2003: 354, 355). 교사는 학생의 적성과 필요를 판단하여 학생을 위한 더 큰 선을 위해 교과의 선을 옆으로 잠시 제쳐두거나 학생의 준비도와 능력에 따라서 성취와 숙달을 위해 더 밀어붙여야 할 때와 천천히 가거나 방향을 바꿔야 할 때를 분별하고 판단하기를 계속한다고 했다(Dunne, 2003: 355). 즉, 던은 교과만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사랑과 돌봄(care)이 가르치는 행위를 교과와 구별되는 실천으로 만든다고 했다.

나딩스도 가르치는 행위는 물론 수단이나 봉사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매킨타이어의 말은 지난 친 표현이며, 가르침은 실천이되 특히 “관계적 실천”이라 주장한다(Noddings, 2003: 241, 242). 예를 들어, 수학교사는 수학자 그룹의 내부 기준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수학교사도 자신을 수학자로 생각하지도 대부분 시간을 수학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수학자를 양성하면서 보내지도 않는다(2003: 248). 그러한 수학교사가 있다면 대학에서나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부 교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대신 나딩스가 생각하는 가르침이라는 활동의 형태에 내재하는 선은 첫째로, 학생이 전인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교사는 이 발전을 돕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노력한다(2003: 249).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뿐 아니라 학생과 관계하는 방식과 태도가 학생이 느끼는 교실에서의 안정감과 지적인 탐구에 대한 열정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며, 자기 과목만 아니라 넓은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분야에도 폭넓게 관심을 가지도록 초청하고, 수학교사로 영감을 줄 뿐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며, 수학이라는 배움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목적과 삶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도록 자유를 준다고 했다(2003: 249). 그는 이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가르침이라는 실천은 관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2003: 249-250). 나딩스가 말하는 가르침의 또 다른 내적인 선은 실천가에게 지적인 성장을 격려하는 실천이라는 데 있다(2003: 251). 그러나 여기에서도

교사의 주안점은 교과목 지식 자체라기보다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있다. 자신의 교과목 분야 최근 발전 동향을 탐구하지만 무엇을 언제 얼마나 가르칠까를 판단하는 데는 “수학자의 탁월성 기준”을 따르다 지식으로 학생들을 압도하거나 낙심시키기보다는, 학생의 필요와 능력을 고려하는 즉 “가르침의 내적 탁월성 기준”을 활용한다(Noddings, 2003: 251).

결론적으로, 나딩스는 가르침은 실천이되, “관계적 실천이며, 내재적 탁월성을 위한 구별된 준거를 지니고,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그 선을 부여하고 나누어주는 실천”이라 주장하는데 기독교적인 가르침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Noddings, 2003: 251).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실천 역시도 기독교 교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역량이며 교사 자신에게도 성장과 약속과 만족을 주는 실천이지만, 무엇보다도 학생을 향한 관계적 실천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세상과 교회의 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주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실천이다.

본 논문은 스미스의 실천으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이론적 배경과 What If Learning 모형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그쳤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세 개의 웹사이트에서 과학, 종교, 시민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과와 주제와 관련해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설계하고 실행한 선별된 수업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미스의 모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의 모형을 따라 수업과 교수-학습 경험을 개발해 보고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성수 (2015). **기독교 교육학 개론**. 부산: 생명의 양식.
- 김정호·이해지 (2011). 기독교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이론의 검토와 그 활용. **신앙과 학문**, 16(1), 33-60.
- 남순애·최지영 (2019). 초등학교 여학생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의 대처경험. **교육심리연구**, 33(3), 451-481.
- 박세혁 역 (2016).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Smith, J. K. A. (2009). *Desiring the Kingdom*. 서울: IVP.
- 박세혁 역 (2018). **습관이 영성이다**. Smith, J. K. A. (2016). *You Are What You Love*. 서울: 비아토르.
- 박은숙 (2010). 기독교 팀기반학습 모형개발. **기독교교육논총**, 24, 256-283.
-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군포: 다함.
- 손민호·배을규 역 (2007). **실천공동체**. Wenger, E. (1999). *Communities of Practice*. 서울: 학지사.
- 신영순·이민경·이현민 역 (2014). **shalom을 위한 교육**.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서울: SFC.
- 이경섭 역 (2017). **개혁주의 교육학**. Berkhof, L. & Van Til, C. (1989). *Found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Addresses to Christian Teachers*.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 이은실 (2013). 기독교 교육과정개발 및 재구성 관련 석사학위논문 분석 **신앙과 학문**, 18(1), 73-98.
- 이진우 역 (1997). **덕의 상실**. MacIntyre, A. (1984). *After Virtue* (2rd ed.). 서울: 문예출판사.
- Alleman, N. F., Glanzer, P. L. & Guthrie, D. S. (2016). The integration of Christian theological traditions into the classroom: a survey of CCCU faculty. *Christian Scholar's Review*, 45(2). Wint 2016, 103-124.
- Bourdieu, P. (1990).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ummelen, H. V. (2009).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
- Cooling, T., Green, B., Morris, A. & Revell, L. (2016). *Christian Faith in English Church Schools*. Bern, Switzerland: Peter Lang AG,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 Daniels, D. D. III. (2005). 'Wonder and Scholarship': reflecting on Jacobsen and Jacobsen's scholarship and Christian faith. *Pneuma*, 27(1), 110-114.
- Dickens, K., Hanscamp, M., Mustin, A., Parker, C., Stok, J. & White, T. (2017). *Transformation by Design: the Big Picture*.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

- Dooyeweerd, H. (2012). *Roots of Western Culture*. On, Canada: Paideia Press/ Reformational Publishing Project.
- Dunne, J. (2003). Arguing for teaching as a practice: a reply to Alasdair MacIntyr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7(2), 353-369.
- Hanscamp, M., Clarke, D., Mustin, A. & Parker, C. (2019). *Transformation by Design: Crafting Formational Learning*. Christian Education National.
- Jacobsen, D. & Jacobsen, R. H. (2003). *Scholarship and Christian Faith: Enlarging the Conversa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Intyre, A. & Dunne, J. (2002). Alasdair MacIntyre on education: In dialogue with Joseph Dunn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6(1), 1-19.
- McLaren, P. (1999). *Schooling as a Ritual Performance: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Educational Symbols and Gestures*, 3rd ed. Latham, MD: Rowman & Littlefield.
- Monsma, Doug. (2015). Teaching for transformation: see the story, live the story. *Christian Courier* (Feb. 9). Retrieved August 2, 2023 from <https://www.christiancourier.ca/teaching-for-transformation-see-the-story-live-the-story/>
- Noddings, N. (2003). Is Teaching a Practic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7(2), 241-251.
- Overman, C. & Johnson, D. (2004). *Making the Connections*. Puyallup, Washington: The Biblical Worldview Institute.
- Smith, D. I. & Smith, J. K. A. (2011). *Teaching and Christian Practice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Smith, D. I., Um, J. & Beversluis, C. D. (2014).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in a Christian context*. Christian Higher Education. 13(1), 74-87.
- Smith, D. I. & Felch, S. M. (2016). *Teaching and Christian Imagination*.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Smith, D. I. (2018). *On Christian Teaching*.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Smith, D. I., Sevensma, K., Terpstra, M. & McMullen, S. (2020). *Digital Life Together: The Challenge of Technology for Christian Schools*. Grand Rapids, MI: Eerdmans.
- Smith, D. I., 2023. Digital Life Together: Seven Questions about Technology and Formation. 2023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Information Technology(KSCEIT) International Conference (2023. 03. 25).

Smith, J. K. A. (2010). *Letters to a Young Calvinist: An Invita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Vanhoozer, K. J., Anderson, C. A. & Sleasman, M. J. (Ed.) (2007). *Everyday Theology: How to Read Cultural Texts and Interpret Trends (Cultural Exegesi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Van Til, K. (2007). Scholarship and Christian faith. *Calvin Theological Journal*, 42(1), 177-180.

<https://whatiflearning.com>

<https://teachfastly.com>

<https://civichospitality.com>

<https://www.teachingfortransformation.org/>

기독교적 교수-학습 설계 탐색: D. I. Smith의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

**A Study on a Model of Faith-Informed Teaching: Teaching as a
Christian Practice by D. I. Smith**

유은희 (충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칼빈대학에서 Kuyers Institute of Christian Teaching and Learning의 디렉터이며,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D. I. Smith의 기독교적 교수-학습 설계를 위한 시도를 탐색한다.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와 실천을 확장하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한 자신의 다양한 시도를 하나의 모형으로 명명하고 있지 않기에 하나의 접근이나 모형으로 소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육내용과 쟁점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조명하며 기독교 교사의 성품과 모범을 강조하고 기독교적인 원리와 전제에 적합한 교수원리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논의를 더 확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스미스의 시도가 중요한 통찰을 제시 해주리라 기대하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의 이론은 매킨타이어의 습관과 덕의 형성에 있어서 실천의 중요성, 웅어의 실천공동체의 참여, 정체성, 레파토리, 개체화 등의 개념을 활용한 실천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과 실천과 공동체의 형성적 힘에 대한 다익스트라의 신학적 성찰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를 무엇을 가르치는가의 문제만 아니라 학생과 교수자가 함께 살아갈 삶의 패턴과 실천이 있는 페다고지적 집을 만드는 과정으로 확장하고, 그 실천에 참여함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형성되어가는 학생의 전인적 형성에 주의를 기울였다. 기독교적 교수-학습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는 새롭게 보고 상상하며, 학습 자료와 서로에게 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실천을 재구성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킨타이어가 생각한 것과 달리 학생들을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험이라는 내재적 선을 지닌 복잡하고, 정합성 있는 실천이다. 그 나름의 탁월성의 기준이 있고, 이는 구약의 기독교 공동체의 시작부터 연습해 온 역사적 실천이며, 멘토와 동료들을 포함하는 실천공동체와 함께함으로 더 성숙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사회적인 실천이다.

주제어: 기독교적 교수-학습, 기독교 세계관, 상상력, 실천, 참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

흐룬 판 프린스터러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Christian Worldview of Groen van Prinsterer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hristian worldview of G. Groen van Prinsterer(1801-1876), a Dutch Christian politician and historian. Against the liberal, revolutionary and humanistic worldview that prevailed in Europe in the late 19th century, he developed a Christian view of history, state, politics, and education based on the Bible that acknowledges God's sovereignty in all areas. Through media, publications, and other concrete activities, he tried to transform the Dutch reformed church and society. In particular, he was a pioneer of Christian political party and at the same time acted as the leader of the so-called 'school struggle', which fought for Christian schools to receiv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n an equal basis with public schools. In this way, Groen made a decisive influence on Abraham Kuyper who succeeded him. He argued that the Protestant Netherlands was born by God's providence, and so criticized the spirit of the French Revolution as an unbelief in God. Furthermore, he made a lot of impact all over the world. Since his Christian worldview is very important and has deep implications for the situation in Korea, this article first examines his life and analyzes his Christian worldview especially on history-state, politics and education. After his legacy is mentioned, a conclusion is drawn with some lessons he gives in the Korean context.

Key words: Groen van Prinsterer, revolution, unbelief, Christian politics, Christian school

* 2023년 8월 11일 접수, 9월 5일 최종수정, 9월 11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 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I. 서론

히욜 흐론 판 프린스터리(Guillaume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는 네덜란드의 역사가요 법률가인 동시에 기독 정치인으로 19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헌신했으며 특히 기독교 정당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동시에 그는 기독교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소위 ‘학교 투쟁(schoolstrijd: 1806-1917)’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나중에 그의 후계자가 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젊은 시절에는 그도 자유주의자였으나 1830년경 부흥 운동(Réveil)¹의 영향을 받아 개신교 정통주의로 전향하여 반모더니즘 운동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는 종교란 삶의 원리로서 생활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고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흐론은 그의 책 『조국의 역사 편람(*Handboek der geschiedenis van het vaderland*)』에서 네덜란드가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80년간 독립전쟁(1567-1648)을 치른 것을 통해 드러나듯 네덜란드의 역사를 ‘복음의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보았다(Van Prinsterer, 1846). 나아가 『불신앙과 혁명(*Ongeloof en Revolutie*)』이라는 주저에서 그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뿌리는 결국 인본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불신앙이라고 비판했다(Van Prinsterer, 1847). 나아가 그는 하원 의원(1849-57, 1862-66)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자유주의 내각을 비판하고 기독 정당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의 사후 카이퍼가 1879년에 네덜란드 최초의 기독 정당인 반혁명당(ARP: Anti-Revolutionaire Partij)²을 창당하게 되었다.

흐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네덜란드어와 영어 및 아프리칸스어로 된 문헌은 있으나(Vos, 1886-1891 ; Diepenhorst, 1932 ; Smitskamp, 1945 ; Mulder, 1973; Schutte, 1976 ; Langley, 1989 ; Schlebusch, 2018 ; Van Dyke, 2019 등) 국내 한글로 된 연구는 정성구 및 성희찬의 일반적인 논문과 조성국이 발표한 흐론의 기독교교육에 관한 논문 외에는 거의 없다(정성구, 1977 ; 성희찬,

1) 이 운동(1815-1865)은 19세기 유럽 일부에서 개혁주의의 영적 부흥 운동이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역사가, 언어학자, 시인, 변호사였던 빌더데이크(Willem Bilderdijk, 1756-1831)가 이 운동의 아버지였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며 암스테르담의 시인이자 역사가였던 다 코스타(Isaac da Costa, 1798-1860) 및 흐론은 그의 학생이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및 독일 남부에서도 개혁과 부흥이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다. 이 운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개인적 체험과 내적인 확신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적 구제에 참여함을 강조했다(Van Dyke, 1989: 21).

2) 반혁명당은 1879년부터 1980년까지 활동한 네덜란드 최초의 기독 정당으로 1918년에 창당한 로마가톨릭 국가당(RKSP: Roomsche-Katholieke Staatspartij)과 달리 개신교인들이 주축이 되었다. 반혁명 전당대회는 1840년대부터 열렸는데 네덜란드 개교회 내의 정통경향을 나타내었다. 흐론의 지도로 반혁명가들은 진정한 정치 세력이 되어 개교회 및 정치의 자유주의 경향에 반대했다. ‘반혁명’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프랑스 혁명 정신에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1980년에 반혁명당은 가톨릭 인민당(KVP: Katholieke Volkspartij) 및 기독 역사연합(CHU: Christelijk- Historische Unie)과 합쳐 기독교민주연합(CDA: Christen-Democratisch Appèl)으로 재창당했다.

2014 ; 조성국, 2019). 하지만 필자는 그의 기독교 세계관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 상황에 던지는 함의도 깊다고 본다. 가령 그는 칼빈주의 사상가 중 1868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불신앙과 혁명』 제2판 서문에서 ‘세계관’(wereldbeschouwing)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면서 자신의 기독교적 확신을 “기독교-역사적, 혹은 반혁명적 세계관(eener christelijk-historische of anti-revolutionaire wereldbeschouwing)”이라고 말하였는데(Groen van Prinsterer, 1868: xv) 이는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이 역사적인 종교개혁 전통에 근거한 것이며, ‘반혁명적’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에 나타난 19세기 모더니즘 시대정신을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그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의 기독교 세계관을 역사 및 국가관, 정치관 및 교육관의 순서로 고찰하고 그의 유산을 분석한 후 그가 한국적 상황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제시함으로 결론을 맺겠다.

II. 호른 판 프린스터리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고찰

1. 호른 판 프린스터리의 생애와 저작

호른은 궁중 의사였던 뻬트루스 호른 판 프린스터리(Petrus Jacobus Groen van Prinsterer)와 로테르담 은행가의 딸이었던 아드리아나 칸(Adriana Hendrika Caan)의 아들로 1801년에 헤이그 근처의 포어부르흐(Voorburg)에서 태어나 보수적인 왈롱 개혁교회(Waals-hervormd kerk)³에서 자랐다. 그가 10세가 된 1810년에 나폴레옹은 네덜란드를 프랑스에 합병하였으나 1813년에 연합군이 네덜란드에 들어오면서 다시 해방을 맞았다. 이처럼 그는 어릴 때 이미 격동하는 국내외 사건을 체험하였다. 그 후 호른은 나중에 그의 정치적 반대자가 된 요한 토르베케(Johan Rudolph Thorbecke)⁴와 함께 레이든 대학에서 공부하며 문학과 법학을 전공하였다.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역사적인 법학파를 배운 후 1823년 12월 17일,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것도 하루에 두 개의 박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Langley, 1989: 2). 그 후 1828년에 호로닝엔(Groningen) 시장의 딸이었던 엘리사벳 판 데어 호프(Elizabeth Maria Magdalena van der Hoop)와 결혼했으나 자녀는

3) 왈롱 교회(프랑스어: Église wallonne)는 네덜란드와 이전 식민지에 있는 칼빈주의 교회로, 교인은 원래 남부 네덜란드와 프랑스 출신이며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이 교회의 구성원은 왈롱 개혁교회(Waals Reformé, 프랑스어: Réformé wallon)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네덜란드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Nederduits Reformé)와 구별되었다.

4) 요한 토르베케(Johan Rudolph Thorbecke, 1798-1872)는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1848년에 사실상 혼자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왕의 권한을 줄이면서 주지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종교적, 개인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했다.

없었다. 그의 아내도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부부는 상류층이었으나 경건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나중에는 흐룬은 노동자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다(Van Dyke, 1989: 45).

흐룬은 부친의 권유로 1827년부터 1833년까지 네덜란드 국왕 빌름 2세(Willem II, 1792-1849)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왕실 문서 보관소에 출입하며 왕실 역사에 중요한 서신들을 정리하고 붙여로 각주를 달아 『오란여-나사우 왕가의 자료(*Archives ou correspondance inédite de la maison d'Orange-Nassau*)』를 편찬하였다(Van Prinsterer, 1835). 그가 왕을 따라 브뤼셀에 잠시 머물 동안 스위스 출신의 개신교 목사이자 궁정 목사로 종교개혁 역사가였던 메를 도비네(Jean-Henri Merle d'Aubigné, 1794-1872)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당시 유럽에 퍼진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흐룬도 이 기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신앙이 세계관과 학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고찰하여 1983년에 『진리가 알려지고 확증되는 방법에 관한 검증(*Proeve over de middelen waardoor de waarheid wordt gekend en gestaafd*)』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여기서 그는 인간이 확실한 지식을 획득하는 수단에 대해 철학, 역사, 만인의 동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열거한 후 이 중에 최종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계시라고 주장한다(Van Prinsterer, 1834: 147-50, 188). 이때부터 그는 네덜란드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Mulder, 1976: 25-26).

그 후 흐룬은 1834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Hervormde Kerk)에서 떨어져(afscheiding) 나온 분리주의자들을 국가가 처벌하려고 할 때 그들을 옹호하면서 1816년에 왕이 직접 교회를 치리하는 일반 규정(het Algemeene Reglement)을 반대했다. 그는 네덜란드 국가개혁교회와 단절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개혁교회 너머 국가 및 사회에서 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개혁 교단(Gereformeerde Gezindte)⁵를 통합했으며 그들과 계속 교제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엘리트집단에 속해 있었지만, 당시 투표권이 없었던 소위 ‘서민(kleine luyden)’ 출신의 분리주의자들을 동지로 보았다. 또한, 그는 1842년에 몇몇 동료들과 함께 헤이그에서 열린 교회 총회에 “신조와 목사 교육, 교육과 교회 행정 조직에 대해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에 보내는 탄원서(Adres aan de Algemeene Synode der Nederlandsche Hervormde Kerk over de formulieren, de academische opleiding der predikanten, het onderwijs en het kerkbestuur)”를 제출하여 1816년 이전 교회 조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것은 19세기에 계속된 교회 회복을 위한 사법 투쟁의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카이퍼가 주도한 돌레안치(Doleantie)⁶ 운동의 사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처럼 흐룬은 진정한

5) 개혁 교단이라는 용어는 흐룬이 만들어 스스로 “개혁파”라고 부르며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지지만, 핵심은 세 가지 즉 네덜란드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및 도르트 신조를 고백한다.

교회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가난한 아동을 위한 보육원,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원을 세웠으며 1845년에는 당시 복음주의 사회운동가 헬드링(Otto G. Heldring, 1804-1876)과 함께 “기독교신우회(Christelijke Vrienden)”를 조직하여 기독교 학교 설립 및 사회 자선 운동도 시행하였다.

1846년에 그가 출판한 『조국의 역사 편람』은 칼빈주의적이며 오란여 왕가 중심적 민족주의를 지지한다. 이듬해에 출간한 『불신앙과 혁명』은 원래 그가 1845년 11월부터 1846년 4월 사이에 선택된 20여 명의 동지에게 한 15번의 강의 모음집으로 역사 연구인 동시에 정치적 선언문으로서 주로 당시의 자유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으로, 프랑스 혁명 정신인 자유, 평등 및 국민의 주권과 사회계약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성희찬은 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으며(성희찬, 2014), 조성국은 흐른의 전체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요약하고 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의와 도덕과 자유의 원천이고,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문제에 대하여도 권위의 원천이다... 둘째, 삶 전체가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혹은 불순종하는 방식의 종교로서, 오직 참 종교와 거짓 종교가 있을 뿐이므로 종교의 영역과 중립적인 세속의 영역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셋째, 칼빈주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모든 진리는 십자가 보혈을 통한 화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하나님은 주권자이며,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제한된 권세를 공직자들에게 부여하시므로,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섯째, 역사의 중심은 기독교이며,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의 주된 문제로서 다른 모든 것은 여기에 종속되어 있다. (조성국, 209: 18-20)

흐른은 그 후 네덜란드 정치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면서, 점차 반혁명당 창립을 준비하는 지도자가 되어 성경적 원칙이 정치에서도 실행되기를 원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하원 의원으로 있으면서 정치적 저술가로서도 활동했는데 다양한 팸플릿을 통해 1848년과 1849년의 헌법 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령 1850년부터 1855년까지는 거의 독점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신문인 『네덜란드인(De Nederlander)』에 매일 자신의 견해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당시 보조금을 받지 못했

6) 돌레안치(Doleantie, 라틴어 dolere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뜻)는 1886년에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의 지도로 일어난 네덜란드 개혁교회(Nederlands Hervormde Kerk) 분열의 이름이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첫 번째 분파가 1834년에 분리(Afscheiding)로 인해 네덜란드에 기독교 개혁교회(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가 형성된 후 두 번째로 분리한 사건이다.

고 국가 통합에 해롭다는 이유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거부된 기독교 교육을 옹호했고 초등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금지한 교육법에 맞서 싸웠다. 1857년에 새로운 초등교육법이 하원에서 통과되자 그는 이를 비판하면서 하원 의원직을 사임하였다. 그 후 1860년에 그는 전국 기독교 학교 교육협회(CNS: de Vereniging voor Christelijk Nationaal Schoolonderwijs)를 조직하였고 『정교분리와 관련한 기독교 국가 교육의 자유(*Vrijheid van christelijk nationaal onderwijs, in verband met scheiding van kerk en staat*, 1864)』라는 팸플릿도 출간하며 기독교 학교 운동을 주도했다.

흐룬은 독일의 법철학자와 정치인으로서 그리스도인도 정당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슈탈(Friedrich Julius Stahl, 1802-1861)과 프로이센의 정치가요 판사였던 폰 게를라흐(Ernst Ludwig von Gerlach, 1795-1877)와 함께 국회에서 자유주의와 싸웠다. 대외적으로 그는 1810년에 네덜란드가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프랑스 영토가 되었으나 1815년 빈 회의의 결과 네덜란드 왕국으로 새롭게 독립하였는데 이 빈(Wien) 회의에서의 합의가 네덜란드 같은 작은 국가의 독립을 위한 유일한 보호책으로 유지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독일을 통일하여 독일 제국을 건설한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Fürst von Bismarck-Schönhausen, 1815-1898) 정부가 1864년 덴마크와 1866년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기존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자 『프로이센과 네덜란드. 베를린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La Prusse et les Pays-Bas. À mes amis de Berlin*, 1867)』 및 『프로이센 제국과 묵시록. 베를린에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L'empire prussien et l'apocalypse. À mes amis de Berlin*, 1867)』라는 팸플릿에서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흐룬은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기조(François Pierre Guillaume Guizot, 1787-1874)의 영향도 받았는데 이것은 그의 『조국의 역사 편람』과 미국의 작가이자 외교관이며 역사가였던 모틀리(John Lothrop Motley, 1814-1877)가 연합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관이었고 오랫동안 오란제 왕가의 마우리츠(Maurits van Oranje, 1567-1625) 왕자와 긴밀히 협력했지만 결국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공개 참수형을 당한 판 올덴바르너펠트(Johan van Oldenbarnevelt, 1547-1619)에 관해 쓴 책(Motley, 1874)을 비판하면서 불어로 출판한 『모리스와 바르너펠트. 역사 연구(*Maurice et Barnevelt. Étude historique*, 1875)』에서 나타난다. 나아가 흐룬은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얻은 토르베케가 헌법 개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경건하지 않고 자유주의적이라고 비판했으며 187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2. 흐룬의 역사 및 국가관

흐룬은 『오란제-나사우 왕가의 자료』를 출판하면서 역사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다. 그의

역사관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는 성경이 계시한 진리를 계속해서 확증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본주의적 역사관을 비판했다. 그의 관심은 먼저 유럽의 역사 속에서 당시 네덜란드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당시 유럽은 인간에 대한 낙관론과 함께 이성, 과학 및 기술을 통해 인류는 무한히 진보한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의 진화론,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의 사회진화론 그리고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등은 인간사회의 진보를 주장했다. 하지만 호른은 이러한 진보주의와 낙관주의적 합리주의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간과하는 비성경적 사상이라고 비판했다(Van Prinsterer, 1829). 나아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통해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로마 가톨릭교회의 권위도 부정되면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자 호른은 1829년 『네덜란드 사상(*De Nederlandsche Gedachten*)』이라는 잡지를 3년간 지속하여 발행하면서 특히 벨기에 혁명⁷을 직접 목격한 후 모든 폭력에서 분출한 ‘혁명 정신’에 반대했다. 그러므로 1829년은 정당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반혁명 운동이 탄생한 해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사상』이라는 이름은 이 잡지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호른은 당시 네덜란드인들의 국가적 인식을 일깨우고 싶었으며 하나님, 네덜란드 및 오란제 왕가⁸는 서로 연결된 삼중 코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계몽주의에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한 종교는 하나이며 이를 통해 깨어진 언약이 회복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나의 중보자이며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Van Prinsterer, 1834: 20-21).

그러므로 호른은 성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과 같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Civitas Dei*)와 이 세상의 나라(*Civitas Terrena*)가 대립하지만 결국 하늘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했다(Van Prinsterer, 1834: 59).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의 중심이다((Van Prinsterer, 1834: 131). 역사는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그 중심에는 교회, 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보존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역사를 통일하는 원리이고 역사의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가 중심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증거하며 불신앙과 미신에 대해 계속 대적해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7) 벨기에 혁명(프랑스어: Révolution belge, 네덜란드어: Belgische Revolutie)은 1830년 8월에 벨기에가 네덜란드 연합왕국으로부터 로마가톨릭 국가로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가리킨다.

8) 오란제-나사우 가문(네덜란드어: Huis van Oranje-Nassau)은 현재 네덜란드를 다스리는 가문이다. 이 가문은 특히 80년 전쟁(1568-1648) 이후 스페인 통치에 대항하여 네덜란드 반란을 조직한 빌럼 1세 이후로 네덜란드와 유럽의 정치와 정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역사의 노정에 빛이다. 성경이 없다면 세계 역사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내용과 목적을 안다: 에덴동산에서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이며 시험하는 자에 대한 메시아의 승리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주셨고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모든 민족과 시대의 운명은 주님 교회의 설립, 유지 그리고 영화에 종속된다(Van Prinsterer, 1846: 1).

나아가 흐론은 『조국의 역사 편람』에서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는 하나님의 섭리로 탄생했다고 보았고 그의 주저 『불신앙과 혁명』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에 점증하는 세속주의를 비판하고 교회와 국가에 만연한 자유주의를 경계하면서 성경적 원칙에 따라 올바른 역사적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서의 주된 내용은 복음이 국가와 사회에서 떠나면 세속적인 자유 이념이 무정부 상황을 낳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독재자가 출현하므로 세속주의는 결국 전체주의로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 혁명은 유럽 사회의 영적 기초를 전복시킨 ‘지적’ 혁명의 구체적인 열매였으며 뿌리 깊은 주관주의와 그 결과인 회의주의는 계몽주의가 인간의 삶에 제정된 신적 계시와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권위도 부인하는 정치철학을 낳아 결국 무신론과 정치적 극단주의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Van Dyke, 1989: 3). 본서를 더 자세히 보면 1-2장에서 그는 서론 및 혁명 시대의 근본 원리가 무엇이며 세계사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소개한다. 3-5장에서는 반혁명의 원리 및 흔히 혁명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나 실제로는 틀린 원인을 다룬다. 6-7장은 혁명의 발생을 설명하는 두 원인, 즉 근대 국가법과 종교개혁을 서술한다. 흐론은 여기서 근대 국가법이 혁명의 정신을 초래하였지만, 종교개혁은 혁명 정신을 바르게 저지하였음을 지적한다. 8-10장은 혁명이 불신앙적이며 자연과 법에 반함을 논술하며, 11-14장은 혁명의 실제와 결과를 말한다. 그리고 15장은 결론으로 현재와 미래에 네덜란드에서 복음을 고백하는 자의 소명을 다루면서 인본주의화된 유럽 사회는 앞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하지 않는 한 지속해서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혁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흐론의 전기 작가 까이빠(Roel Kuiper)는 흐론이 종종 영국의 정치인이자 연설가였던 버크(Edmund Burke, 1729-1797) 및 기조와 같은 외국 작가들을 언급했고 슈탈과 프랑스의 역사학자 미셀레(Jules Michelet, 1798-1874)는 불어와 라틴어로 직접 인용했으며, 때로 축약형과 불완전한 문장도 반복하여 사용해 이 책을 읽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Kuiper, 2001). 하지만 흐론의 요점은 대중주권에 기초한 ‘혁명적’ 국가를 반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권위는 그에게서 나오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는 폭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라운(Robert

Fruin)이 신권정치와 절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호른을 비판하자 호른은 성경적 역사 및 국가관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과감히 맞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 이것은 나중에 카이퍼에 의해 계승되어 반혁명당을 창당한 후 구체적인 강령을 제시하면서 의회에 진출하여 활동하였고(Kuyper, 1880; 손기화 역, 2018),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칼빈주의’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강연을 하면서 세 번째로 ‘칼빈주의와 정치’에 관해 강의했으며(Kuyper, 1899 ; 박태현 역, 2021) 수상으로 재직하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그의 마지막 저작도 『반혁명적 국가학(Antirevolutionaire Staatkunde)』이었다(Kuyper, 1916).

그 후 1860년에 호른은 프랑스, 스위스 및 기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네덜란드 반혁명 운동 상황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반혁명 및 고백당: 현대사 연구(Le parti anti-révolutionnaire et confessionnel dans l'église réformée des Pays-Bas: Etude d'histoire contemporaine)』을 출판하였다. 본서는 영어로도 번역되었는데(Wright, 2015) 여기서 그는 자신이 주도한 반혁명 운동은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을 가짐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혁명으로 드러난 무신론에 대한 대안적 원리로 돌트 신조⁹에 근거한 성경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판 에센(Van Essen)은 그의 역사관을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다.

1. 역사의 의미: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계시 되었고 그것이 역사의 의미이다. 2. 역사에서 인과율: 1) 하나님과 개인 (또는 국가들) 간의 관계: 신앙과 순종은 축복을 낳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은 심판을 낳는다. 2) 사상의 영향과 관련하여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3)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의 본질과 성격은 인간이 바꿀 수 없으며 역사의 과정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 4) 시간은 확정적 효과가 있어 기존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5) 인과율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분리되어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Van Essen, 1990: 38)¹⁰

9) 도르트 신조(네덜란드어: Dordtse Leerregels)는 1618년에서 1619년 사이에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Dordrecht)에서 작성된 기독교 신조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네덜란드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 되는 세 문서라고 불리며, 네덜란드, 남아공, 미국 등에서 칼뱅주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장로교회, 개혁교회 등)의 신앙 고백 문서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60-1609)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 교리, 특히 네덜란드 신앙 고백을 부정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답변한 것인데 그 요약이 소위 칼빈주의 5대 강령이다

10) 본 논문은 원래 네덜란드의 역사가 판 에센(Jantje Lubbergiena Van Essen, 1913-2013)이 강의를 한 것을 네덜란드어로 쓴 것(제목: “Groen van Prinsterer en zijn geschiedbeschouwing(호른 판 프린스터와 그의 역사관)”이며 『성경과 학문(Bijbel en Wetenschap)』 4/23 (January 1979)에 실린 것이다. 영어 번역본은 나중에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4 (1982) 205-49에 실렸다.

3. 흐룬의 정치관

기독교 정치사상은 성 어거스틴의 『신국론(De Civitate Dei)』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흐룬의 친구와 적 모두 그를 네덜란드 개신교 정치의 창시자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의 인본주의적 불신앙과 혁명적 세계관에 맞서 싸우면서 그의 사후에 설립될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는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확산한 세속적 세계관 그리고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급진적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에 이르는 일련의 사상들이 모두 궁극적으로는 인본주의에 기초함을 예리하게 지적했다(Langley, 1989: 10). 1815년에 네덜란드 헌법이 제정되자 그는 『네덜란드 정신에 따른 헌법 개정에 관한 고찰(Bijdrage tot herziening der Grondwet in Nederlandschen zin)』이라는 저작을 출판하여 이 헌법에 담긴 혁명적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네덜란드에 필요한 것은 반혁명적 관점임을 주장했다(Van Prinsterer, 1840). 나아가 유럽 여러 도시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흐룬은 유럽의 영적, 정치적 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자신의 성경적 정치관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다.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다. 통치자들의 교체, 권력의 재분배, 통치형태의 변화, 정치적 분쟁, 신념의 차이는 사회적 격변과 그 범위와 원칙에서 아무런 공통점이 없고 그 성격은 모든 정부와 모든 종류의 종교를 반대한다. 도덕과 사회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사회적 또는 반사회적 격변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역이자 우상숭배의 실천인 반기독교적 혁명이다(Van Prinsterer, 1847: 262).

시간이 흐르면서 흐룬은 상류층 사이에 지적인 기독교 정치계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신문사도 창간했다. 그는 『오란여-나사우 왕가의 자료』 편집자로 알려지면서 네덜란드의 가샤르(Gachard)¹¹⁾라는 칭호도 얻게 되었다. 모틀리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부상(The Rise of the Dutch Republic, 1856)』 서문에서 흐룬의 기록 자료에 대해 빚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흐룬의 책을 영어로 번역한 판 다이크(Harry Van Dyke)는 흐룬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요약했다.

흐룬의 시대에 제시된 정치적 스펙트럼은 의미 있는 선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급진 좌파’는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를 믿는 광신자들로 구성되었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과잉에 대해 경고하고 절제를

11) 루이 가샤르(Louis Prosper Gachard, 1800-1885)는 벨기에의 문필가로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826년에 국가 문서 보관소에 들어갔고 1831년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55년 동안 재직했다.

설교하는 따뜻한 신자들이었고 '보수적 우파'는 통찰력, 신중함 또는 현대적 교리를 단절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만, 이데올로기가 일관된 방식으로 실행되고 구현될 때마다 그 결과에 반발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했다... 호른은 “반혁명, 기독교-역사 노선에 따른 정치의 급진적 대안”을 요구하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정치적 입장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Van Dyke, 1989: 3-4).

남아공의 슐레부쉬(Jan Adriaan Schlebusch)도 호른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한다.

호른에게 ‘혁명’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주권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계몽주의는 인간이 만든 추상화를 신의 계시보다 더 높은 진리로 부당하게 높이는 합리주의 종교의 열매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관점은 그의 정치 이론과 참여를 형성했다... 따라서 반혁명적 또는 기독교-역사적 입장은 이 인식론적 혁명이 사회적 재난과 정치적 폭정으로 가는 길을 반대하는 것을 수반했다(Schlebusch, 2020: 120-121).

1848년 토르베케에 의해 이루어진 헌법 개정 1년 후인 1849년에 호른은 하원에 다시 입성하여 토르베케 헌법의 “혁명 정신”은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호른은 베른의 스위스 헌법 변호사, 정치인, 홍보인 및 경제학자였던 폰 할러(Karl Ludwig von Haller, 1768-1854)의 정부 권위에 대한 사법적 개념에 동의하면서 권위는 권위 보유자의 양도할 수 없는 소유로 간주하였고 1848년에 슈탈이 평화와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국가의 권위가 공공 정의에 봉사한다고 주장한 공법의 권위 개념을 제안했다. 호른은 헌법을 작성하고 선출의 독립성과 토론의 합리성 등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게임의 규칙을 고안한 토르베케에 대해 비판하면서 자신을 정통 개신교의 대표자로 설정하고 신앙 문제도 정치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호른과 토르베케는 여러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데 갈뱅주의자 호른과 루터주의자인 토르베케는 대표의 중요성, 정치 생활의 개방성 및 진정한 입헌 군주제는 함께 인정하였다.

카이퍼는 그의 마지막 대작 『반혁명적 국가학』에서 호른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가 반혁명당의 정치적 존재 및 목적의 화신으로 모든 당원의 자연스럽고 살아 있는 중심점이었다고 하면서 호른의 성경적 정치관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가 반혁명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적어도 1789년에... 발생한 폭풍은 조국을 정화했고 우리 동아리에서 잠자던 생명력을 다시 일깨워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오히려 우리를 전능자와 묶어 놓은 유대를 끊고 우리를 자기 숭배하는 인간 정신의

폭정에 빠뜨렸을 때 혁명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가져온 저주를 물리치고 불변하며 거부할 수 없는 유익을 받았음을 온전히 인정하기 위함이다(Kuyper, 1916: 139-140).

요컨대 흐룬이 가장 염두에 둔 것은 “혁명에 반대하는 복음(Tegen de Revolutie het Evangelie)”이었다. 나아가 그는 노예제도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1842년에 그는 “노예제 폐지 촉진을 위한 네덜란드 협회(Nederlandse Maatschappij ter Bevordering van de Afschaffing van de Slavernij)”에서 여러 폐지론자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고 1853년에 노예제도 폐지에 관한 국가 위원회의 의장이 되었지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결국, 네덜란드가 노예제도를 폐지하기까지는 1863년까지 시간이 걸렸다.

흐룬에게는 반혁명적 동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강령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이것은 카이퍼와 함께 시작할 예정이었고 1848년 이후 진보, 보수, 반혁명 사이의 경계는 다소 유동적이었다. 가령 흐룬은 1850년대에 네덜란드 화학자이자 위트레흐트 대학의 교수였던 뮐더(Gerardus Johannes Mulder, 1802-1880)의 보수적 선거인단 ‘왕과 조국(Koning en Vaderland)’를 통해 하원 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뮐더는 신앙이 깊은 흐룬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1866년 4월에 흐룬은 여전히 보수파와 반모더니즘적 정당을 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해 후반에 흐룬은 보수적인 네덜란드 내각의 지도자 판 네이어펠트(Julius Philip Jacob Adriaan, Count van Zuylen van Nijvelt, 1819-1894)와 헤임스케르프(Jan Heemskerck Abrahamszoon, 1818-1897)가 특수 기독교 교육에 반대하자 이들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흐룬은 총리를 두 번 그리고 내무부 장관을 세 번 역임한 네덜란드의 중요한 정치가 헤임스케르프가 1868년에 설립한 네덜란드 최초의 정당인 보편 선거협회(Algemeene Kiesvereniging)에 가입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보수파와의 단절로 흐룬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비스마르크가 장악한 독일 정치에 대한 그의 비판은 “혁명적” 프랑스도 대적으로 보았기에 그의 고립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고립 속에 우리의 힘이 있다(In ons isolement ligt onze kracht)”고 말했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정치적 원칙의 확고함과 동시에 정치적 순교도 의미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나 오해받는 예언자처럼 느껴졌다. 카이퍼는 이렇게 말한다.

흐룬 판 프린스터러는 자신의 신문인 네덜란드인(Nederlander)을 출간했지만, 구독자를 거의 찾지 못했고 결국 중단해야 했다. 그리고 흐룬 판 프린스터러가 자신의 정당 창설자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그를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정치에 기초를 설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롱을 거의 억제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유당과 보수당이 있었기 때문이고 부흥 운동 출신

남자들은 그에게 부분적인 동정을 보였으나 여전히 확고한 정당 구성에 대해 그들 역시 거의 아는 바가 없어 그를 반대했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순수하게 명목상 지원하여 “군대 없는 장군”이라고 불렀다(Kuyper, 1916: 489).

이처럼 호른의 정치관은 철저히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었으며 평생 외롭게 보이는 싸움을 싸웠다. 나아가 그는 한동안 여러 어려움도 당했으나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그의 후계자인 카이퍼가 등장하여 호른의 세계관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4. 호른의 교육관

호른은 세계관과 기독교 교육의 상관성을 가장 깊이 드러내면서 하원 의원으로서 행한 정치사회활동은 거의 교육 문제에 집중했다. 그의 공헌은, 학교 교육의 자유 개념과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독교 학교의 법적, 제도적 확립에 집중되어 있었다. 처음에 그는 개신교 공립학교를 원했다. 자신은 비록 평생 자녀 없이 살았지만, 교육이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녀 교육을 언약 신앙의 핵심으로 보았다. 당시 내각은 1848년에 도입된 헌법 가운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자유다”라는 194조를 새 교육법에 맞추어 개정하려고 했으며 그 핵심은 학교에서 종교 교리 교육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호른은 각 종교(기독교, 가톨릭, 유대교)가 자기 종교에 기초한 공립학교를 세울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1857년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공방 끝에 37대 13으로 통과된 새 교육법(Onderwijswet)은 사립학교 설립의 길을 열어 놓기는 하였지만, 정부의 재정 보조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은 1806년 학교법을 통해 발생한 공교육과 사교육 지지자들 사이의 학교투쟁을 종식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정치가였던 판 라빠르트(Anthony Gerhard Alexander Ridder van Rappard, 1799-1869)가 제안했다. 이 법은 공교육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공립학교의 교육은 모든 종파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초등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과목을 처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호른은 개신교 교육이 사립학교에서 제공되어야 하지만 공교육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대중에게 영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

이후 호른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받아들였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중립 정부는 긴급 해결책에 불과했다. 그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항상 개신교 국가였으며 따라서 개혁교회는 네덜

12) 호른에 대한 카이퍼의 전기는 1857년에 제정된 교육법의 역사를 깊이 조명한다(Kuiper, 2001).

란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자격이 있었지만 교회가 지배하는 국가를 선호하지는 않았으며 신권을 옹호했지만, 종교적 박해는 반대했다. 호른은 양심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고 따라서 가톨릭 신자와 유대인들도 공공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 그룹은 역사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호른은 종교와 양심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다. 가령 네덜란드에서는 성경을 코란과 동등하게 만드는 어떤 평등도 부과될 수 없었다. 호른에 따르면 헌법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리라고 보면서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을 옹호했다. 그는 두드러진 반혁명적 원리로 로마서를 인용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 정하신 것이니”(로마서 13:1) 여기서 그는 즉시 이렇게 덧붙인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로 여겨야 한다.” 조성국은 호른의 기독교교육 사상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다.

첫째, (그는) 교육을,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작업으로 보았다. 둘째, 중립적 세계관이라는 가정에 이루어지는 국가의 세계관 교육은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 방법으로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교육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프랑스 혁명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아동은 국가 소유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부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적 의무에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다. 여섯째, 국가 교육은…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복수체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각 종파가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여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자유를 부여받아야 하며, 모두 공립학교로서 동등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곱째, 모든 학교가 공립학교처럼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덟째, 교육을 정치 사회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교육의 발전과 개혁도 정치 사회적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졌다 (조성국, 209: 24-26).

1860년에 개정법에 따라 비록 정부 재정 보조는 없다 할지라도 사립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되자 호른은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전국 기독교 교육협회를 설립하였고 그 결과 1867년에는 전국에 62개의 기독교 사립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 후 카이퍼는 정치 투쟁을 계속하면서 반학교법 협회(het Anti-Schoolwet Verbond)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후에 반혁명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17년에 자유주의적인 코르트 판 데어 린든(Cort van der Linden)¹³ 내각은 마침내 헌법을 개정하여 23조에 기독교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

13) 뻬터 코르트 판 데어 린든(Pieter Wilhelm Adrianus Cort van der Linden, 1846-1935)은 네덜란드의 정치인으로 1913년 8월 29일부터 1918년 9월 9일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지냈다.

정함으로써 80여 년간 지속했던 학교 투쟁을 마침내 해결했다. 그리하여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립학교도 정부로부터 전액 재정 지원을 받는 국가이다.

5. 호론의 유산

호론의 영향은 심대했다. 그의 기독교 세계관은 생애 말기에 세 명의 동지들, 즉 신학자 카이퍼, 교육가 판 오텔로(M. D. van Otterloo) 그리고 정치인 쿠체니우스(L. W. C. Keuchenius)에 의해 꽃을 피웠다. 특히 카이퍼는 반혁명당을 창당하였고 큰 성공을 거두어 1901년에 수상이 되었다. 특히 카이퍼는 호론의 기독교 세계관을 각 영역으로 확대하여 소위 ‘신갈뱅주의(Neo-Calvinism)’로 발전시켰다. 또한, 카이퍼의 사상은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와 폴렌호븐(Dirk Hendrik Theodoor Vollenhoven, 1892-1978)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고(최용준, 2005: 37-66)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 세계관 포털사이트인 www.allofliferedeemed.co.uk에 보면 호론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개혁 철학협회(Stichting voor Christelijke Filosofie: christelijkefilosofie.nl)는 호론과 카이퍼의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도여베르트와 폴렌호븐이 발전시킨 기독교 철학을 더욱 확산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네덜란드 기독교자들의 모임인 포럼 씨(Forum C: forumc.nl)도 호론이 뿌린 씨앗의 열매라고 할 수 있으며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한다. 개혁정치연합(GPV: Gereformeerd Politiek Verbond)¹⁴ 및 기독교연합당(ChristenUnie)의 연구소는 호론 판 프린스터러 재단(Groen van Prinsterer Stichting)이라고 불린다. 이 재단은 기독교적 정치와 관련된 소책자를 호론 판 프린스터러-시리즈(Groen van Prinsterer-reeks)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출판했다(Bos, e.a. 1989; Hirsch Ballin, e.a. 1991).

호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반혁명당원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는데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덜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을 물리치기 위한 지렛대로 그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1949년과 1951년에 자유대학교는 호론의 역사관에 관해 비판적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가 네덜란드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으로 직접 연결해 결정론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 역사가 캄프하위스(Jaap Kamphuis)는 호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의 징벌과 보상의 손길은 언약적 인과성이며 결정론적이지 않다는 관점을 제시했다(Kamphuis, 1962). 역사가로서의 호론의 명성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 1989년에 설립된 기독교 역사가 협회(VCH: Vereniging van Christen-Historici)는 상당히

14) 개혁정치연합(Reformed Political Association)은 1948년부터 2003년까지 존재했던 네덜란드 개신교 정당으로 주로 대다수 유권자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로 그것이 공언한 원칙의 유지와 효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이 당은 증거당이라고도 한다. 2000년에 이 당은 개혁주의 정치 연합(RPF: Reformational Political Federation)과 합병하여 기독교연합당(ChristenUnie)이 되었다.

많은 추종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외부 공격으로부터 흐론을 방어하기도 한다. 1976년, 흐론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네덜란드에서는 그를 기념하는 기념 우표도 발행되었으며 그의 이름을 딴 학교들도 힐버썸(Hilversum), 알텐(Aalten), 바렌드레흐트(Barendrecht), 에멘(Emmen) 등 여러 군데 있다. 나아가 그는 카이퍼와 함께 한국에도 소개되어 많은 기독교 지성인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III. 결론

흐론의 기독교 세계관은 제네바의 개혁자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하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면서 당시 인본주의 세계관의 정체를 드러내었고 그에 맞서 대안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주창하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 기초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던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법학과 문학을 전공한 학자였으며, 네덜란드 국가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헌신했고, 신문을 통해 자신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파한 언론인이기도 했으며, 여러 저작을 통해 분명한 성경적 역사관을 제시한 동시에 기독교 교육에도 헌신한 지도자였고 하원 의원을 두 번이나 지낸 기독교 정치인으로 카이퍼의 멘토가 되어 네덜란드 최초로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이 창당되도록 산파 역할을 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카이퍼 또한 목회자로서 네덜란드 개신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헌신했으며, 일간신문 및 주간지에 계속해서 사설을 통해 네덜란드 국민을 일깨운 기독교 언론인이었으며, 교육자로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를 세워 총장을 지냈고, 하원 의원 및 수상을 역임하면서 흐론이 추구했던 기독교 세계관의 꽃을 피웠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그리스도인, 특히 기독교 지성인도 흐론의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치 영역에서 아직도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원론적 경향을 보이며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정치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추구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영역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앞으로 한국사회에도 흐론이나 카이퍼와 같은 유능한 기독교 정치인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 영역에도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흐론은 또한 복음의 고백자로 살면서 당시 세속적이고 모더니즘적인 인본주의 사상에 대항하여 신앙과 학문 및 삶이 성경적으로 통합된 모범적 지도자였다. 이것은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전이 된다. 현대 한국사회는 모더니즘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또한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점에서는 호른의 시대와 동일하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지성인은 이 시대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동시에 여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호른은 혁명이 불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올바른 개혁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가령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 등과 같은 다양한 세계관과 현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분석한 후 이 세계관의 장단점을 예리하게 고찰한 후 단점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최용준, 2020).

나아가 호른은 기독교 교육에 헌신하여 기독교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교육의 자유 그리고 공립학교와 동등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끌어내는 데 그의 후계자 카이퍼와 함께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에도 선교사들에 의해 많은 기독교학교가 설립되어 귀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한국사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 사립학교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신앙적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나아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로 떨어지고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거의 미전도종족 수준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학부모들과 기독교 교사들이 단결하여 호른 및 그와 함께 한 동지들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다시금 올바른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부의 동등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한국에는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교단별로 있으나 이러한 교회들이 운영하는 기독교학교는 매우 적다. 이러한 교회들이 먼저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규모와 관계없이 올바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세워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데 헌신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호른은 그의 후계자 카이퍼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을 단순한 이론으로 체계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의 여러 영역에 적용하고 실천했다. 즉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고 정책화시켰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을 조직하고 기독교 학부모들을 결성하여 기독교 학교 운동을 전개했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 지성인들도 성경적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뿐만 아니라 더는 사적인 영역에 두지 말고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공적 영역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성희찬 (2001). 흐론 판 프린스터러(Groen van Prinsterer)의 생애와 사상. **개혁정론**. 2014.
Retrieved from http://reformedjr.com/board05_04/3042 (2023.01.01)
- 정성구 (1977). 칼빈주의 운동과 Groen van Prinsterer. **신학지남**. 44(1), 61-70.
- 조성국 (2009). 흐론 판 프린스터러의 기독교교육사상. **복음과 교육**. 5, 9-31.
- 최용준 (2005). 헤르만 도여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IVP, 37-66.
- 최용준 (2020). **도전하는 현대의 세계관**. 서울: 예영.
- Bos, E. e.a. (1989). *Mensenrechten Wereldwijd: Een gereformeerde politieke visie*. Groen van Prinsterer-reeks 61. Barneveld: De Vuurbaak.
- Diepenhorst, P. A. (1932). *Groen van Prinsterer*. Kampen: J.H. Kok.
- Hirsch Ballin, E. M. H. e.a. (1991). *Christelijke Politiek in een gesecculariseerd Nederland*. Groen van Prinsterer-reeks 65. Barneveld: De Vuurbaak.
- Kamphuis, J. (1962). *De hedendaagse kritiek op de causaliteit bij Groen van Prinsterer als historicus*. Goes: Oosterbaan en Le Cointre.
- Kuiper, R. (2001). *Tot een voorbeeld zult gij blijven. Mr. G.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 Amsterdam: Buijten En Schipperheijn.
- Kuyper, A. (1880). *Ons Program*. Amsterdam: J. H. Kruyt. Harry Van Dyke (Ed.) *Our Program: A Christian Political Manifesto*. Bellingham, WA: Lexham Press. 손기화 역 (2018).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강령**. 서울: 새물결 플러스.
-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899).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박태현 역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문화변혁의 기독교 세계관 선언서**. 서울: 다함.
- Kuyper, A. (1916).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2 Delen, Kampen: J. H. Kok.
- Langley, M. R. (1989). *Groen van Prinsterer(1801-1876)*. Potchefstroom: 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ristelike Hoër Onderwys.
- Motley, J. L. (1856). *The Rise of the Dutch Republic: A Hist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 Motley, J. L. (1874). *The Life and Death of John of Barneveld*. 2 Vols. New York: Harper &

Brothers.

- Mulder, H. W. J. (1973). *Groen van Prinsterer staatsman en profeet*. Franeker: Wever.
- Schlebusch, J. A. (2018). *Strategic Narratives Groen van Prinsterer as Nineteenth-Century Statesman-Histori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Groningen.
- Schlebusch, J. A. (2020). “Democrat or traditionalist? The epistemology behind Groen van Prinsterer’s notion of political authority” in *Journal for Christian Scholarship* 56(3-4), 120-121.
- Schutte, G. J. (1976). *Mr. G. Groen van Prinsterer*. Goes: Oosterbaan & Le Cointre. (2005). *Groen van Prinsterer: His Life and Work translated by Harry Van Dyke*. Publisher’s Imprint.
- Schutte, G. J. (2016). *Groen van Prinsterer: His Life and Work*. Translated by Harry Van Dyke. Neerlandia, Alberta: Inheritance Publications.
- Smitskamp, H. & Colijn, H. (1945). *Wat heeft Groen van Prinsterer ons vandaag te zeggen?* Den Haag: D.A. Daamen’s Uitgeversmaatschappij, N.V. Translated by Harman Boersema (2017). *Building a Nation on Rock or Sand: Groen Van Prinsterer for Today*. Belleville, Ontario: Guardian Books.
- Van Dyke, H. (1989). *Groen van Prinsterer’s Lectures on Unbelief and Revolution*. Jordan Station, ON: Wedge. It contains a translation (abridged) of Unbelief and Revolution at 293-539 as well as a sketch of Groen’s life and time at 1-83.
- Van Dyke, H. (2019). *Challenging the Spirit of Modernity: A Study of Groen van Prinsterer’s Unbelief and Revolution* (Studies in Historical and Systematic Theology). Bellingham, WA: Lexham Press.
- Van Essen, J. L. (1979). Groen van Prinsterer en zijn geschiedbeschouwing, *Bijbel en Wetenschap*. 4/23.
- Van Essen, J. L. (1982). Groen van Prinsterer and his view of History,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44, 205-249.
- Van Essen, J. L. & Morton, H. D. (1990). *Guillaume Groen van Prinsterer: Selected Studies*. Jordan Station, ON: Wedge.
- Van Prinsterer, G. G. (1829). *Redevoering over de redenen om de geschiedenis der natie bekend te maken*. Brussels: Brest van Kempen.
- Van Prinsterer, G. G. (1834). *Proeve over de middelen waardoor de waarheid wordt gekend en gestaafd*. Leiden: Luchtmans. The 2nd ed. (1858). Amsterdam: H. Höveker.
- Van Prinsterer, G. G. (1835). *Archives ou correspondance inédite de la maison d’Orange Nassau*. Leide: S. et J. Luchtmans.

-
- Van Prinsterer, G. G. (1840). *Bijdrage tot herziening der Grondwet in Nederlandschen zin*. Leyden: S. en J. Luchtmans.
- Van Prinsterer, G. G. (1846). *Handboek der geschiedenis van het vaderland*. Leiden: S. EN J. Luchtmans.
- Van Prinsterer, G. G. (1847, 1868). *Unbelief and revolution: A series of Lectures in History*. Abridged and translated by Harry Van Dyke (1989, 2000) (Jordan Station, ON: Wedge) and now republished by Lexham Press (2019).
- Van Prinsterer, G. G. (1860). *Le parti anti-révolutionnaire et confessionnel dans l'Eglise Réformée des Pays-Bas - étude d'histoire contemporain*. Amsterdam: H. Höveker.
Translated by Colin Wright (2015). *Christian Political Action in an Age of Revolution*. Aalten: WordBridge Publishing.
- Van Prinsterer, G. G. (1864). *Vrijheid van christelijk nationaal onderwijs, in verband met scheiding van kerk en staat*. Amsterdam: H. Höveker.
- Van Prinsterer, G. G. (1867). *La Prusse et les Pays-Bas. À mes amis de Berlin*. Amsterdam: H. Höveker.
- Van Prinsterer, G. G. (1867). *L'empire prussien et l'apocalypse. À mes amis de Berlin*. Amsterdam: H. Höveker.
- Van Prinsterer, G. G. (1875). *Maurice et Barneveld: étude historique*. Utrecht: Kemink et fils.
- Vos, G. J. (1886-91). *Groen van Prinsterer en zijn tijd: studiën en schetsen op het gebied der vaderlandsche kerkgeschiedenis*. Dordrecht: Revers.
- <https://www.allofliferedeemed.co.uk/groenvanprinsterer.htm>
- <https://christelijkefilosofie.nl/>
- <https://forumc.nl/>

흐룬 판 프린스터러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the Christian Worldview of Groen van Prinsterer

최용준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기독교 정치인이자 역사가였던 흐룬 판 프린스터러(G.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19세기 후반 유럽에 풍미하던 자유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에 맞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역사관, 국가관, 정치관 및 교육관을 발전시키며 언론과 출판 기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네덜란드의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기독교 정당 활동의 선구자였고 동시에 기독교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한 소위 ‘학교 투쟁(schoolstrijd)’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 나중에 그의 후계자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는 개신교 네덜란드는 하나님의 섭리로 탄생했다고 보았으며 프랑스 혁명의 정신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흐룬의 사상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의 기독교 세계관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 상황에 던지는 함의도 깊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그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의 기독교 세계관을 역사와 국가관, 정치관 및 교육관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그의 유산을 분석한 후 그가 한국적 상황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평가함으로 결론을 맺는다.

주제어: 흐룬 판 프린스터러, 혁명, 불신앙, 기독교 정치, 기독교 학교

정신장애인의 고통 개념분석*

Concept Analysis of Suffering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최은정 (Eun Joung Choi)**

이민경 (Minkyung Lee)***

조현미 (Hyun-Mee Cho)(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concept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rify ‘Suffering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alker and Avant’s methodology guided the analysis. The suffering experience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as composed of critical attributes: ‘Absence of hope for a cure’, ‘Continuing anxiety-tension state with physical and mental struggles’, ‘Under the threat of self-deconstruction due to social stigmas’, and ‘Misery and sadness resulting from facing inequality regarding disability human rights’. Attributes drawn from this research indicate that proper treatment, prevention of recurrence and proactive intervention by health providers are necessary to prevent psychological difficulties from worsening. In addition, clarification of attributes of suffering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will serve as a basis for preparing a guide for Christians to practice solidarity with neighbors who suffer and contribute to reducing the pain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urthermore, it is significant as it can be used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and advance research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disabled people and foster solidarity within local societies.

Key words: mental disorders, suffering, concept analysis

* 2023년 8월 11일 접수, 9월 13일 최종수정, 9월 13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2021년 고신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간호대학 교수, 부산 서구 감천로 262, jacob7410@kosin.ac.kr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학부대학 조교수,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 joymuch@kosin.ac.kr

**** 가야대학교(Kaya University) 간호학과 조교수, 경남 김해시 삼계로 208, yuchanmom@nate.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신장애는 세계 인구들이 경험하는 질병과 장애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Vigo, Thornicroft & Atun, 2016). 또한 정신질환은 비정상적인 생각과 감정, 기이한 행동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주 호소로 하는 질병으로 조현병, 양극성장애, 주요우울장애 등이 이에 해당된다(WHO, 2016). 이러한 정신장애는 치료와 관리의 장기화와 재발 및 재입원율이 높은 질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의료비용 부담과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Jin & Mosweu, 2017). 한국의 정신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는 95,675명이던 것이 2021년 기준 102,9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20).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일생을 질병을 겪으며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예후와 관련된 우울, 긴장, 위축감, 불안 등을 지닌 채 살아간다(Liberman & Kopelowicz, 2005). 정신장애인은 신체질환처럼 하나의 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깊은 상처를 받는 등(김미영·전성숙·변은경, 2017)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더욱이 정신장애인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다시 정신 증상이 심해지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기를 반복하는 회전문 증후군을 경험한다(Vazquez, 2001). 정신장애인은 입원 치료 후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접하게 되는 문화와 환경의 변화들에 대해 생소함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Dorota, et al., 2018). 정신장애인은 좁아진 대인관계와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을 경험하고, 사회적 편견과 정신 증상으로 인하여 직업적으로도 기회가 적거나 적은 급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전원희·최은정·조현미, 2020).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정신장애인은 질병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통(Suffering)이라는 개념은 질병과 연관되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환별 고통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한 파악들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고통과 관련된 개념분석 연구(강경아, 1996)에서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통의 속성 및 차원을 확인하여 고통을 재정의하였고, 정신장애인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입원 치료 후에도 적응의 어려움, 낙인, 취업의 난관을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전원희·최은정·조현미, 2020 ; Beverley & Geoff, 2016 ; Netto, et al., 2016) 하는 것을 통해서 정신장애인은 질병 과정으로 인해서 고통스런 상황에 봉착해 있으나 이와 연관된 특유의 고통 개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신장애인이 겪는 고통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불확실성과 관련한 최근 연구

에서(Cho, et al., 2023)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큰 결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무가치하거나 기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낙인을 하며 수치심으로 인해 깊은 심리적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상기 연구에서는 질병의 상태와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호전의 희망이 적은 것도 정신장애인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Cho, et al., 2023). 인간의 고통 경험은 슬픔, 절망, 미움 등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의 원초적인 것이고(손봉호, 1994), 따라서 정신장애라는 질병상황에서 경험하는 이들의 고통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은 정신장애인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빈번히 볼 수 있는 개념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인간에 대한 이해와 용서,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함으로 다양한 치유사역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가진 장애와 질병, 이로 인한 고통의 치유를 통해 고통에서의 해방과 관계의 건강함까지 전인적 회복을 이루셨다(정기철, 2017: 97-100 ; 김기홍, 2023). 이에 고통 그 자체가 아닌 고통을 받는 자에게 초점을 둔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같이 정신장애인의 전인적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한편 국내 정신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정신사회재활과 관련한 비용이 가장 적고 입원으로 인한 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장성만 외, 2008)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요건 강화로 인해서(법제처, 2016) 이들의 사회복귀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정신장애인의 관점은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초점으로 한 회복 모델로 변화되고 있으나(WHO, 2018) 한국의 중증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재원 기간은 평균 214.6일로, 이는 미국 평균 10일(이철, 2017)에 비해 긴 재원기간이다. 정신장애인은 증상 회복 후 퇴원을 하게 되더라도 사회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역사회 내로 복귀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관심이 넓어졌고,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2011)의 개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파악하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개념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분야의 실무와 연구수행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고통 받는 자에게 관심을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 사랑을 근거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고통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Walker와 Avant(2011)의 개념분석 방법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관한 결정적 속성을 규명하고 그 의미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및 상담분야 등의 진단과 실무 및 용어 개발을 비롯해 정신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로의 통합된 회복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문헌연구와 분석을 통해 정신장애의 고통의 활용을 확인한다.
- 2) 정신장애인 고통의 결정적 속성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모델사례를 기술한다.
- 3) 정신장애인 고통에 대한 선행요건과 결과를 규명한다.
- 4) 정신장애인 고통에 대한 경험적 준거의 진술을 통해 정신장애인 고통 개념의 속성이 실제적 유형으로 존재하는지 입증해 보인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과 선행연구 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고통’ 개념 분석을 위해 Walker와 Avant(2011)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개념이 가진 속성을 규명하고자 수행된 개념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실재를 대변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 주며 현존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이론적 정의 규명에 도움이 되어(Walker & Avant, 2011) 실무적 진단과 이론의 개발, 정책 수립의 개념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에 본 연구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문헌조사 범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한국과 국외의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와 ‘고통’에 관한 사전적 정의, 이론적 정의 및 선행 연구들이다. 인터넷 베이스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을 활용해서 검색된 학회지 게재 논문 및 학위논문들을 분석에 이용하고 CINAHL,과 PubMed, Web of Science에서 제공하는 DB를 이용하여 검색된 문헌들을 고찰하여 연구에 이용 하였다. 검색된 문헌들 중 연구가 영어나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 졌거나 원문이 검색되지 않는 출판물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고통을 주제로 하

더라도 암 환자나 기타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비롯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재활이나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다룬 연구 등 주제와 관련성이 낮거나 특정 주제를 다룬 논문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헌은 한국의 학위논문 3편, 학술지 논문 20편, 한국을 제외한 외국 논문 16편이 선정되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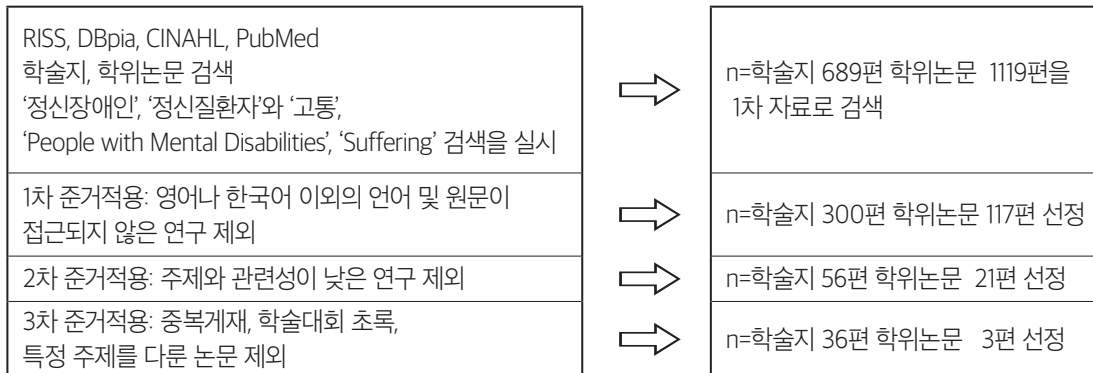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3. 개념분석 과정

정신장애인의 고통의 개념적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념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문헌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특징들을 분류하고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개념 선정
- 개념분석을 하는 목적 결정
-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의 개념사용을 확인
- 개념에 대한 결정적 속성의 추출
- 개념의 모델사례, 반대사례, 유사사례, 연관사례를 제시
- 개념의 선행요건과 결과를 규명
- 경험적 증거 결정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때 이론 및 개념 분석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명의 연구원이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료 내에서의 맥락적 의미, 개념의 의미와 속성, 활용 등에 대해 의논하고 분석 및 의미의 추출과정을 거쳤으며 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주제어를 '정신장애인 고통', '고통분석', '정신질환자', '고통',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Suffering'으로 선정하여 검색하였다. 그 다음으로 개념 분석을 시도하는 목적에 대해 다시 떠올려

보고 정신장애인의 고통이라는 개념이 여러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의미가 희석되거나 다양하고 불분명한 정의적 속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그 후 선정된 개념의 사용을 확인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문헌을 검토하여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속성을 추출할 수 없는 것들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한 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 단계로 최종 선정된 자료들의 내용을 연구자들이 검토한 후 각 분야별로 정신장애인의 고통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 속성을 기반으로 개념을 명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의 필수 양상을 이해시키며, 유사한 개념사용과 혼돈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델, 반대, 경계,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였다(Walker & Avant, 2011). 또한 선정된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관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경험적 증거를 확인한 후 정의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는 Walker와 Avant (2011)가 제시한 것과 같이 대상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여 정신장애인의 고통의 특성을 이해하고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개념 사용 확인

1) 사전적 정의

정신장애인'은 관형어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따위로 감정조절·사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국립국어원, 2022).

'고통'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으로 정의하며(국립국어원, 2022), 영어로 고통(Suffering)은 Merriam-Webster 사전(2022)에 따르면 'the state or experience of one that suffers; pain'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고통에 대한 어원을 찾아보면 네이버 두산 백과(2022)에 따르면 '고통은 피부나 신체의 아픔을 느끼는 감각인 통각(痛覺)에 의한 불쾌감과 구별되는 생리학·철학적 용어로 행위주체의 감각(pathos) 또는 감정의 극단적인 불쾌감'을 말한다. 그리스 쾌락주의 철학자인 아리스티포스는 고

통을 ‘각각의 순간적 불쾌’라 하여 쾌락과 대립시키는 개념으로 말하였다. 이에 반에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감정의 불쾌’라고 보고, 이를 감소시키거나 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쾌락이라고 주장했다. 고통은 슬픔·욕구불만·갈등 등의 상태로 표현되고, 대부분 심리적 원인에서 생긴다’라고 하였다(네이버 두산백과, 2022). 이상의 고통의 정의에서 볼 때 그 의미는 몸과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비롯하여 슬픔, 욕구불만, 갈등 등의 뜻을 내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타 학문에서의 개념 사용

고통에 대한 사용 범위는 여러 영역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그 의미를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종교적 의미에서 고통은(정재현, 2000: 293) 미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체험하는 수단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 겪는 고통, ‘자기 십자가’는 우리를 성숙의 단계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정재현, 2000: 293). 또한 “예수를 따라” 고통을 볼 때 고통 그 자체가 아닌 고통을 마주한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이해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적 연대의식을 가질 개념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였다(정재현, 2007).

사회학에서 고통은 사회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비롯된다고 하였고, 고통이 개인적일 때 우리의 중재는 각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국한되어지지만 고통이 사회적인 것에서 비롯되었을 때에는 사회적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Kleinman et al., 안중설 역 2002: 24).

의학적 상황에서 고통관에 대한 전인적 성찰에 관한 연구(김종우, 2020)에서는 기독교 신학과 의학의 한 융합 사례를 통하여 전인성의 회복을 소망하는 의학적 상황의 미래를 조망해 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질병을 진단받은 대상자를 대할 때 ‘환자가 가진 질병’에 초점을 둔 ‘대상적 고통관’이 아닌 ‘고통을 겪는 사람’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접근해야 함을 말하고 있었다. 특히 그동안 건강 분야에서 ‘대상적 고통관’에 집착해 온 결과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인간개체의 고유성이나 생명성의 의미를 축소시킨다고 보아 대상자의 고통에 관해 “함께 아파함(compassion)”이라는 태도를 갖춘 전인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 간호문헌에서의 개념 사용

간호학에서는 고통을 인간의 통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 개인 내부의 요인들과 개인외부 요인들 및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관련된 것에 의해서 경험된다(Copp, 1990)고 정의하였다. 강경아(1996)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고통에 관해 재정의 하였으

며, 모든 고통은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경험으로서 독특한 개인적인 특성이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영향에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적 요인,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및 외부환경,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관련된 상실, 훼손, 통증이 자아와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위협이 될 때 경험되는 견디기 힘든 극심한 괴로움의 상태이다. 이 고통 현상을 이루는 요소에는 슬픔, 우울, 절망감, 비참함, 죄책감, 위축감, 무력감, 불안, 분노 등이 있다고 하였다.

공병혜(2005)는 의료인은 고통에 관해서 취약한 신체를 지닌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기초하여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며, 자신의 전체적인 삶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상태로서 이해하며, 고통의 전 과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위협받고 손상된 인격의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고통은 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조명되었고, 인간의 통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 경험되며,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간의 고통에 관해 질병이 아닌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중점을 두면서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한 요소임을 드러내고 슬픔, 우울, 절망감, 비참함, 죄책감, 위축감, 무력감, 불안, 분노 등의 다양한 정서를 내포하여 전체적인 삶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신장애인 관련 연구에서의 개념 사용

정신장애인의 주 보호자의 고통에 관한 연구(최은정 외, 2020)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돌보면서 정신증상의 잦은 재발로 인해서 평생 지고 가야 할 멍에처럼 심리적 압박과 힘겨움을 경험하였고, 몸과 마음이 시달려 고통스러운 굴레가 된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환자의 조절되지 않는 증상으로 인해서 가족은 위축되고, 고통스러운 돌봄의 시간을 보내고 질병의 발현과 관련하여 불안과 긴장, 당혹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정신장애 중 가장 대표적인 질병으로 구분되는 조현병의 경우 그 발현이 드물지 않고 증상이 치료, 혹은 완치되는 비율이 타 질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면서 국가의 의료비 부담 뿐 만 아니라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질병 치료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감을 가중시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한다고 하였다(장성만 외, 2008).

이에 더해 정신장애인은 구직이나 여가생활, 교육, 결혼, 정보통신 이용, 운전면허 취득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차별을 빈번히 경험하게 되어 기회의 부족, 심리적 위축, 개선되기 힘든 삶의 질, 서러운 감정 등을 맞닥뜨리는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정기철, 2017; 김기홍, 2023).

2.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

정신장애인의 고통 개념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이 확인되었다.

1)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잠정적 기준 목록

- (1) 질병발생으로 인해 당혹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다(권자영·박향경, 2022 ; 전원희 외, 2020 ; 최은정 외, 2020 ; Cho et al., 2023).
- (2)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해 긴장이 연속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권자영·박향경, 2022 ; 최은정 외, 2020 ; Beverley, Geoff, 2016 ; Cho et al., 2023).
- (3) 몸과 마음이 시달리는 굴레가 되는 조절되지 않는 증상의 경험이다(최은정 외, 2020 ; Beverley, Geoff, 2016 ; Cho et al., 2023 ; Netto et al., 2016).
- (4) 만연한 사회적 배제감의 경험으로 인한 비참함과 서러움의 부정적 감정상태이다(전원희 외, 2020 ; Beverley, Geoff, 2016 ; Cho et al., 2023 ; Dorota et al., 2019)
- (5) 반복되는 회복과 악화의 악순환으로 인한 불확실한 질병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Beverley, Geoff, 2016 ; Cho et al., 2023 ; Davis et al., 2012 ; Dorota et al., 2019 ; Droulout, et al., 2003).
- (6)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자아해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다(전원희 외, 2020 ; 최은정 외, 2020 ; Beverley, Geoff, 2016 ; Cho et al., 2023 ; Davis et al., 2012 ; Dorota et al., 2019 ; Droulout, et al., 2003 ; Netto et al., 2016).

2) 정신장애인의 고통 개념의 결정적 속성 확인

Walker와 Avant(2011)에 따르면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드러나는 현상과 특징이며 이것은 타 개념과 구분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고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정신장애인의 고통은 당혹스러운 질병 경험과 정신장애의 질병 특성으로 인한 불안과 긴장이 연속됨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시달리는 것이었다. 또한 질병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감을 경험함으로써 비참함과 서러움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질병 특유의 불확실성과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자아 해체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된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속성은 다음과 같다.

- (1) 치료 희망의 부재(잠정적 기준목록 (3), (5))
- (2) 몸과 마음이 시달리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잠정적 기준목록 (1), (2), (3))
- (3) 외부로 부터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자아 해체의 위협(잠정적 기준목록 (1), (4), (6))
- (4) 권리보장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비참함과 서러움(잠정적 기준목록 (4), (6))

3. 개념의 사례 개발

1) 모델 사례(Model Case)

모델 사례란 개념의 주요 속성들을 모두 포함하는 사례를 말하며,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Walker & Avant, 2011).

A씨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대학교 2학년 시기에 조현병을 진단받았다. 처음 환청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A씨는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일찍 감지하고 스스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당시 조현병 초기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고 진단명이 주는 부정적 느낌과 자신이 조현병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치료를 시작 했지만 첫 발병 시기에 입원 치료를 시작으로 수차례 증상의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어 일생을 환각 증상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절망스런 생각에 빠졌다(치료 희망의 부재). 질병으로 인해 대학을 6년 만에 겨우 졸업하고 어렵사리 단순 노무일을 하는 직장을 구해 다니면서 증상이 언제 발현될지 몰라 불안했고(불안과 긴장의 연속), 구직과 퇴사를 반복했다. 이미 자신이 조현병 환자라는 것이 이웃과 친척들 사이에도 알려져 자신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 세상 어디에서 자신이 이해받을 수 있을지 몰라 고통스러웠다(외부로 부터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자아 해체의 위협). 취업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몇 가지 자격증을 힘들게 취득해도 자신이 조현병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산물 배송 기사 자리조차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아 서러운 감정이 들었다(권리보장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비참함과 서러움). A씨가 취업이 여의치 않자 A씨의 어머니는 고향에서 농사지으며 살자했고 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이모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로 집을 구하러 갔으나 A씨의 이모가 조현병 환자가 이웃에 있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불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 이사할 마음을 접게 되고 이사마저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졌다(권리보장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비참함과 서러움).

2) 반대 사례(Contrary Case)

반대 사례는 정신장애인의 고통 개념이 아닌 것에 대한 분명한 예시이며 개념의 결정적 속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B씨는 26세에 처음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자신이 정신병에 걸렸을 리가 없다며 정신건강 의학과 병원 방문을 완강히 거부하여 부모님은 가족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B씨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목사님의 설득으로 병원에 갔다. B씨의 병력과 살아온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이번엔 조현병 증상 발현의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치료가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이러한 의사의 설명은 B씨의 마음을 다소 안심시키고 치료에 응하게 했다. 약 6주가량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은 B씨는 환각증상이 거의 호전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약복용 잘하고 스트레스만 잘 조절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퇴원 후 실제로 B씨는 외래 통원 치료하며 성실히 약물을 복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지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 교회 목사님이나 친척들도 이러한 B씨의 노력에 격려를 해 주었고 조현병이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호전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알아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고 최근에는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며 제과제빵 전공을 살려 유명한 제과점에 취업해서 살고 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의사의 친절하고 설명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한 덕분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며 조현병도 치료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불안감이 완화되어 치료희망의 부재와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 없었다. 또한 조현병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B씨를 목사님과 친척들이 격려해 주는 모습을 비롯해 자전거 동호회를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에서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자아 해체의 위협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전공을 살려 취업도 하고 자전거 동호회에도 거부당함 없이 활동한 사례이기에 권리를 적절히 누렸고 권리보장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비참함과 서러움의 속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3) 경계 사례(Borderline Case)

유사 사례라고도 불리는 경계 사례는 개념의 결정적 속성 중 일부만 포함하고 있어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본 연구에서는 위암환자가 경험하는 고통의 예를 통해 모델 사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신장애인의 고통 개념을 더욱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C씨는 54세 남성으로 6년 전 위암 3기를 진단 받았다. C씨는 늘 건강에 관심이 많고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하며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운동을 하는 편이었고 평생을 살아오며 폭음을 한 적도 없다. 누구보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는 자신이 위암에 걸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늦게 발견하여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자주 낙심하였다(치료 희망

의 부재). 그는 또한 위암 3기라는 다소 진행된 상태로 질병을 발견했기에 늘 암의 악화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를 걱정하며 불안과 긴장을 느꼈다(불안과 긴장의 연속). 회사에서도 팀 프로젝트 업무를 주로 해왔던 C씨는 아픈 사람이 뭘 하겠냐는 동료들의 의견 때문에 팀 업무에서도 가장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일에 배정되어 자연스레 진급에서도 배제되어 서러움과 비참함을 느꼈다(권리보장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비참함과 서러움). 그러나 치료를 위해 노력하며 암을 치료 중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C씨의 태도를 보며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는 직장 상사와 친구들, 가족들 덕분에 C씨는 다시 용기를 가지고 투병을 이어가고 있다(외부로 부터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자아 해체의 위협 부재).

4) 관련 사례(Related Case)

관련 사례는 연관사례로 불리기도 하며 분석 대상이 되는 개념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유사하게 보이거나 중요한 속성이 포함되지 않고 그 의미가 다른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1).

D씨는 26세 여성으로 3년 전 조현병을 진단받았다. 상상도 못 했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을 당시 조현병이라는 병명이 주는 부정적 느낌, 선입견 등으로 인해 낙담하고 불안해하였다. 그러나 첫 발병 당시 한 차례 입원치료 한 후 꾸준히 외래 통원하며 약물 치료를 이어갔고 환각증상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될 때마다 낙담하기도 했지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이러한 D씨의 노력에 담당한 의는 당뇨나 고혈압도 방심하면 악화가 된다, 실망하지 말고 힘내서 정신 증상을 관리해 나가자고 격려해 주었다. 환각이 나타날까 자주 신경이 예민해 지기는 하지만 질병에 익숙해지며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이 증상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이 조현병 환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회피하거나 불편해하는 시선을 종종 느낄 때면 서러움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정신병을 가진 이력으로 해 볼 수 있는 일의 한계와 불공평성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D씨는 스스로가 조현병 회복의 당사자가 되어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변화와 편견의 감소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리라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고 조현병을 경험한 시간을 다루는 자서전을 쓰기도 하면서 부정적 현실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D씨는 조현병 진단 및 회복과 악화의 반복으로 불안과 낙담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모습에서 치료 희망의 부재와 몸과 마음이 시달리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라는 속성과 유사하지만 차원이 다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입견과 편견, 권리보장의 한계를 경험하였으나 힘든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D씨의 행동에서 외부로 부터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자아 해체의 위협과 권리보장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비참함

과 서러움과는 일부만 유사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정신장애인의 고통과는 차이가 있는 사례이다.

4.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Walker와 Avant (2011)의 연구방법에서는 개념의 속성을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나열하기 위해 분석하고자 한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신장애인의 고통에서 선행요건(antecedents)은 정신장애인의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하며 결과요인(consequences)은 정신장애인의 고통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사건이나 사항 기술을 의미한다.

앞의 사례 제시를 통해 확인된 정신장애인의 고통을 결정하는 선행요인과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정신장애인의 고통의 선행요인은 정신장애라는 질병의 특성상 일생을 정신질환과 싸우며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예후와 우울, 긴장, 불안 등을 지닌 채 살아간다(김미영 외, 2017). 또한 정신장애는 질병의 경과에 대해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아 치료효과가 빈약한 경우가 많다(Vazquez, 2001). 이러한 질병 특성과 더불어 정신장애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 치료가 진행되고 회복되는 어느 시점에서든 이상행동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갖기 힘들고 불안과 긴장이 연속되어 몸과 마음이 시달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Droulout et al., 2003). 또한 질병에 대한 내재적 낙인 및 사회적 편견 등이 원인이 되어 심리적 위축과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불신의 확대로 자아 해체의 위협을 겪고 지역사회에 만연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안감과 선입견이 더욱 강화되면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이 확보되기 힘든 상황이 발생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정신장애인으로 하여금 비참함, 서러움 등의 심리적 고통을 주어 정신증상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질병을 감추고 적극적인 치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인의 고통의 결과로 정신장애인의 회복의 주요 방향인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방해하는 장벽이 되는 문제를 유발시키고(Mishel, et al., 2005) 질병의 더딘 회복과 정신증상의 악화, 재발을 촉진하는 부정적 요소가 되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의료비 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비는 우리나라 년 간 전체 의료비의 1.6% 정도이며 재발에 따른 의료비용이 안정기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비용의 약 7배에 달하고 있다(Kim, et al., 2011).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질병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정신장애인 주 보호자의 고통과 돌봄 부담도 상승하여 보호자의 건강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Baier, 199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의 고통은 선행요인이 고통을 가져오고 이러한 결과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포함하는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이러한 상황은 또 다시 선

행요인을 강화시켜 정신장애인의 고통을 심화시켜 증상의 악화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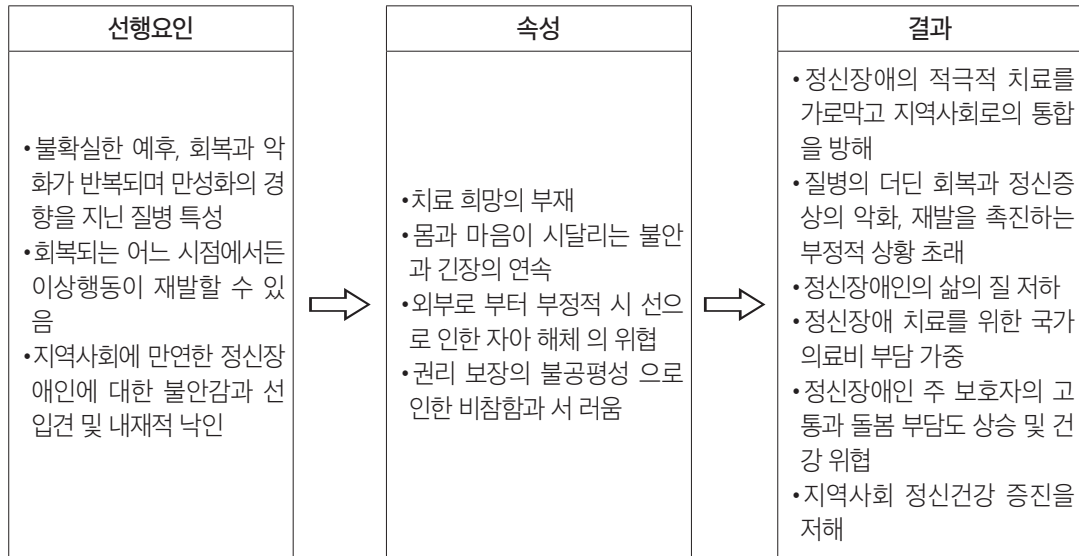


Figure 2. The antecedents, attributes, and consequences of suffering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5. 경험적 증거 확인

경험적 증거는 Walker와 Avant(2011)가 제시한 개념의 속성이 실제적 유형으로서 존재하는지를 인증해 보여주는 개념분석의 최종 단계이다. 권자영과 박향경(2022)의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고통은 정신증상으로 치료받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며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적절한 권리를 누리지 못함,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불투명함, 반복되는 회복과 악화의 과정과 이와 관련한 불안과 낙심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김민아 외(2016)의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다루며 정신증상 경험, 도처에서 차별과 편견을 접하며 주변인으로 맴도는 삶이 정신장애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됨을 기술하고 있다. 국외 연구로 Dorota 외(2018)의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시선과 이미지를 이야기 하며 이에 대한 결과로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Beverley와 Geoff(2016)의 연구를 비롯해 Netto 외(2016)의 연구에서도 오랜기간 앓아온 정신증상과 사회적 편견이 정신장애인에게 고통을 주며 고용 장벽을 경험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상기의 연구들과 같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다루는 수많은 연구들에서 정신장애라는 질병 특성과 만연한 부

정적 이미지로 인해 정신장애는 치료에 희망이 없고 늘 긴장과 불안함을 주며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자아가 상처 받고 적절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을 기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드러난 ‘치료 희망의 부재’, ‘몸과 마음이 시달리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 ‘외부로 부터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자아 해체의 위협’, ‘권리보장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비참함과 서러움’의 정신장애인의 고통 속성과 유사한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불확실성의 속성과 경험적 준거는 같은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고통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정신장애인의 고통은 ‘치료 희망의 부재’, ‘몸과 마음이 시달리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자아 해체의 위협’, ‘권리보장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비참함과 서러움’을 속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신장애인의 고통은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신 증상이 발생되기도 하고 질병의 경과에 대해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아 증상의 재발 징후를 판단하기 힘들어 치료에 대한 희망이 적고 질병 자체가 빈약한 치료 효과를 보여(Vazquez, 2001) 질병의 호전 정도에 대한 기대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자주 불안과 긴장을 경험한다. 이러한 특성은 정신장애인들의 우울과 불안을 가중 시키고(Davis et al., 2012) 정신장애인에 대해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 시선이 환자 스스로 느끼는 낙인감의 증가와 자아 존중감의 감소와 같은 자아 해체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 이에 더해 이러한 특성과 상황들은 치료와 재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수행하는 일에도 장애물이 되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Paul et al., 2010).

따라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정신장애에 대한 명확한 질병정보와 대처방식에 중점을 둔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로써 이들이 질병으로 인해 쉽게 낙심하고 긴장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한 정신건강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질병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교육은 질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Paul et al., 2010).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질병에 대한 불안과 긴장, 치료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생각들을 줄여 나가는 것은 사회적 관계와 활동의 개선을 도모하고 정신장애인의 고통을 줄여 적극적인 질병 관리 및 회복을 촉진 시킬 수 있다(Bisbee, 2020).

개념분석의 결과 정신장애인의 고통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시선, 권리보장의 불

공평성이 고통 속성의 내용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속성들은 정신장애인 스스로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큰 결점이 있고 사회적으로 무가치하거나 사회적으로 기여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 낙인을 하면서 수치심을 높이게 하는 것에도 영향을 끼쳐 적극적인 질병 치료와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o, et al., 2023).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자존 재발과 만성화 촉진, 재입원률 상승, 직업 유지의 어려움, 삶의 질 저하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Higashi, et al., 2013).

이처럼 정신장애인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선행요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속성은 수많은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여 정신장애인 뿐 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비 증가를 비롯해 국민 정신건강증진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관련 개념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해당 개념에 대해 주의해서 다루고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의 질병경험에 대해 충분히 평가하고 정신장애인의 고통의 속성을 인지하고 이를 정신건강관리수행의 충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불안감을 비롯한 심리적 고통이 증가될 경우 질병 회복에 필요한 자기 돌봄 능력을 저하시켜 질병의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Mishel & Sorenson, 1991).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고통의 속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치료 희망의 부재’, ‘몸과 마음이 시달리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자아해체의 위협’, ‘권리보장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비참함과 서러움’과 같은 속성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닌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머무르는 특징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받는 자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자세를 설명하시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연대적 공감과 치유의 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셨다(김종우, 2020).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낙인,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부족은 정신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사회적 참여, 자기옹호 등에 수많은 난관을 경험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고통받는 한 사람을 돌보고 그에 대해 이해하며 경계를 허물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보여 지며 이러한 노력이 정신장애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정신장애인의 삶 속에 수많은 난관으로 작용하는 고통의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과의 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은 정신

장애인과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관련연구와 중재의 개발 등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2011)의 개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개념과 속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규명하며 결정적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본연의 의미가 희석된 용어들의 명료화를 도와 관련분야의 진단과 실무 및 정신건강분야의 용어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정신장애인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신장애인의 고통의 속성이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욕구에 대한 보다 섬세한 이해를 통해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적극적 개입을 실천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신장애인의 고통의 속성은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내재화하여 정신장애인 스스로 자기 낙인을 더욱 견고히 하여 자아 해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어 사회적 스티그마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신건강관련 캠페인 뿐 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가지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개입 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통 연구가 부족하여 고통 개념이 다루어진 기타 연구를 문헌 고찰에 포함시켜 고통을 추측하였고, 많은 자료를 통해 분석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정신장애에 대해 판단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속성 또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신장애인의 고통 개념을 다루거나 세부 속성을 다루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신장애인의 고통의 속성을 고려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질병의 고통 측정 도구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수정 및 보완의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정신장애인 고통의 속성을 활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경아 (1996). 고통(Suffering) 개념분석과 개발 -혼종모형(Hybrid Model) 방법 적용-. **한국간호과학회지**, 26(2), 290-303.
- 김기흥 (2023). 사복음서 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 사역에 나타난 통합 교육적 함의. **신앙과 학문**, 28(2), 51-71.
- 김미영·전성숙·변은경 (2017). 정신장애인의 내재화된 낙인 극복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6(3), 238-247.
- 김민아·이선헌·서진환·송영매·김정은 (2016). 당사자 렌즈로 바라본 “나의 삶”:정신장애인 포토보이스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2), 105-138.
- 김의태·우종민·권준수 (2011). 국내 정신분열병 환자의 재발에 의한 의료비용 증가에 관한 연구.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2(1), 29-33.
- 김종우 (2020). **의학적 상황에서의 고통관에 대한 전인적 성찰: 과학주의에 대한 종교-철학적 비판을 통하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공병혜 (2005). 의료영역에서의 고통에 대한 이해. **인간연구**, 8, 244-259.
- 권자영·박향경 (2022). 정신장애인의 입원경험. **한국사회복지교육**, 60, 1-37.
-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철 (2017).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국립정신건강센터.
- 장성만·조성진·전홍진·함봉진·박종익·조맹제 (2008). 한국 조현병의 경제적 부담. **대한의학회지**, 23(2), 167-175.
- 전원희·최은정·조현미 (2020). 재가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1(3), 244-255.
- 정기철 (2017).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예수**. 서울: 쿤란출판사.
- 정재현 (2000). **티끌만도 못한 주제에: ‘사람됨’을 향한 신학적 인간학**. 철곡: 분도 출판사.
- 정재현 (2007). 종교비판에서 신앙성찰로 - 한국 그리스도교를 위해 ‘무신론’을 다시 보며-. **신학과 실천**, 12(12), 269-301.
- 최은정·조현미·조은주·이민경 (2020). 재가 정신장애인 주보호자의 고통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9(3), 218-228.
- 클라임만·아서·다스·비나·안종설 (2002). **사회적 고통 : 인간의 고통에 대한 사회학적, 의학적, 문화인류학적 접근**. 서울: 그린비.
- Beverley, G. & Geoff, W. (2016). Personal experiences of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when seeking, obtaining and maintaining competitive employment in Queensland, *Australia. Work*, 53(4), 835-843.
- Bisbee, C. C. (2000). Psychiatric patient education. *Psychiatric Times*, 17(4), 23.

- Cho, H. M., Choi, E. J., Choi, H. J. & Cho, E. J. (2023). Concept analysis of uncertainty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45, 44-53.
- Copp, L. A. (1990). Treatment, torture, suffering and compass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6(1), 1-2.
- Davis, L., Kurzban, S. & Brekke, J. (2012). Self-esteem as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functioning and symptoms for individuals with severe mental illness: a prospective analysis of modified labeling theory. *Schizophrenia Research*, 137(1), 185-189.
- Dorota, S., Agnieszka, K., Irena, W., Michal, K. & Joanna, R. (2018). Internalized stigma and its correlates among patien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Neuropsychiatric Disease and Treatment*, 14, 259-2608.
- Droulout, T., Liraud, F. & Verdoux, H. (2003). Relationships between insight and medication adherence in subjects with psychosis. *Journal of L'encephale*, 29(5), 430-437.
- Higashi, K., Medic, G., Littlewood, K. J., Diez, T., Granström, O. & De, H. M. (2013). Medication adherence in schizophrenia: factors influencing adherence and consequences of nonadherenc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Therapeutic Advances in Psychopharmacology*, 3(4), 200-218.
- Jin, H. & Mosweu, I. (2017). The social cost of schizophrenia: a systematic review. *Pharmacoeconomics*, 35(1), 25-42.
- Lieberman, R. P. & Kopelowicz, A. (2005). Recovery from schizophrenia: A concept in search of research. *Psychiatric Services*, 56(6), 735-742.
- Mishel, M. H., Germino, B. B., Gil, K. M., Belyea, M., Lane, I. C. & Stewart, J. (2005). Benefits from an uncertainty management intervention for African-American and Caucasian older long-term breast cancer survivors. *Psycho-Oncology*, 14(11), 962-978.
- Mishel, M. H. & Sorenson, D. S. (1991). Uncertainty in gynecological cancer: A test of the mediating functions of mastery and coping. *Nursing Research*, 40(3), 167-171.
- Netto, J. A., Polly, Y., Cocks, E. & McNamara, B. (2016).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employment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44(1), 61-72.
- Paul, H. L., Philip, T. Y., Jared, O. & David, R. (2010). Association of stigma, self-esteem, and symptoms with concurrent and prospec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in schizophrenia. *Clinical Schizophrenia & Related Psychoses*, 4(1), 41-49.
- Vazquez, M. (2001). Providing competent care for mentally ill persons: an evidence-based goal for ambulatory care nurses. *Nursing Economics*, 19(5), 228-233.

-
- Vigo, D., Thornicroft, G. & Atun, R. (2016). Estimating the true global burden of mental illness. *Lancet Psychiatry*, 3(2), 171-178.
- Walker, L. O. & Avant, K. C. (2011).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trans. by Oh, K., Lee, I. S., Joe, S. Y. Boston: Prentice Hall.
- 국립국어원 2022.3.5. “표준국어대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4483900> (검색일 2022.3.5.)
- 네이버 두산백과 2022. “고통” <https://www.doopedia.co.kr/> (검색일 2022.5.23.)
- 법제처 2016..5.29.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3629#0000> (검색일 2020.3.2.)
- 통계청 2020 “전국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 장애인 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1&vw_cd=MT_ZTITLE&list_id=101_1176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검색일 2022.4.28.)
-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Communications”,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2.3.5.). Retrieved from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83629#0000> (2022.3.5.)]
- “Suffuring” Merriam-Webster (2022). Retrieved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 (2022.5.23.)
- “2016 Health topics, mental disorder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Retrieved from http://www.who.int/topics/mental_disorders/en/ (2022.5.25.)
- “2018 Mental disorder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en/news-room/fact-sheets/detail/mental-disorders> (2022.5.28.)

정신장애인의 고통 개념분석

Concept Analysis of Suffering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최은정 (고신대학교)

이민경 (고신대학교)

조현미 (가야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고통 개념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시도 되었으며 Walker와 Avant의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정신장애인의 고통은 ‘치료 희망의 부재’, ‘몸과 마음이 시달리는 불안과 긴장의 연속’,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자아 해체의 위협’, ‘권리보장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비참함과 서러움’를 결정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고통’을 ‘질병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고 회복되는 어느 시점에서든 이상행동이 재발 될 수 있어 치료에 대한 희망이 빈약하며, 환자 스스로가 질병으로 인해 불안과 긴장이 연속되는 살아가는 힘든 상태가 되고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위축과 낙담,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서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마저 적절히 보장받지 못해 비참함과 서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신장애인의 고통의 속성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적절한 치료 및 재발 방지를 비롯하여 심리적 어려움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고통의 속성에 대한 명료화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이웃과의 연대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고통을 낮추어 회복과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돕기 위한 중재개발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정신장애인, 고통, 개념분석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6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1월 31일
2호	6월 30일	4월 30일
3호	9월 30일	7월 31일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출처는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 Kim &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이윤리, 2007b: 2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내용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그림 1.1(Figure 1.1), 그림 1.2(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

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3(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표 1(Table 1), 표 2(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표 1.1(Table 1.1), 표 1.2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표 1(Table 1)으로 표시한다.

③ 표(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표(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단행본, 번역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잡지의 영어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고,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해당 페이지를 끝부분에 표시한다.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의 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넣는다. 저자가 2인일 경우 한글 저자는 두 저자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두 저자 사이에 & 를 넣는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글 저자는 저자들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넣는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 Vining A.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Gill, D. W. (1979). *The word of God in the Ethics of Jacques Ellul*.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US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Kang, Y. H., Park, J. Y., Nah, B. H. & Kim, M. J.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OO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국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김진숙·권지성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SUCCESS>. (검색일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6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8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김태황 (명지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김홍섭 (인천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박해일 (경희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김동혁 (연세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손화철 (한동대학교)
 송재일 (명지대학교)
 신응철 (숭실대학교)
 안소영 (경상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3호 (통권 96호), 2023년 9월호

발행일 2023년 9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환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